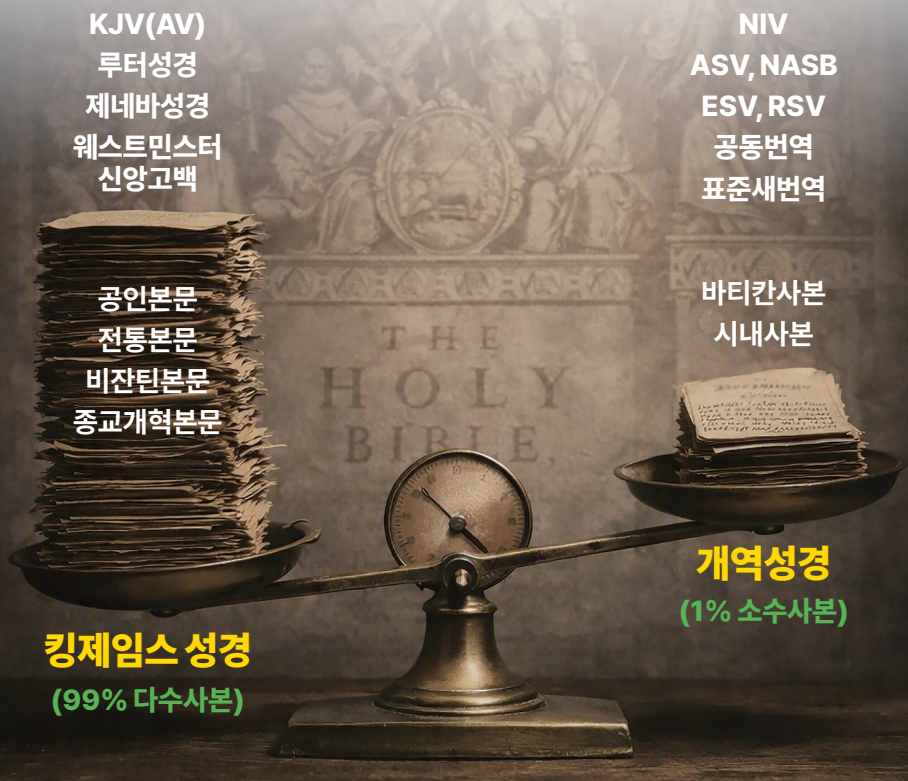
킹제임스 성경 vs 개역성경

비교 대조

신약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본, 본문, 번역자, 번역 기법,
신학, 판매량과 지역 분포, 번역 대본, 베스트셀러 면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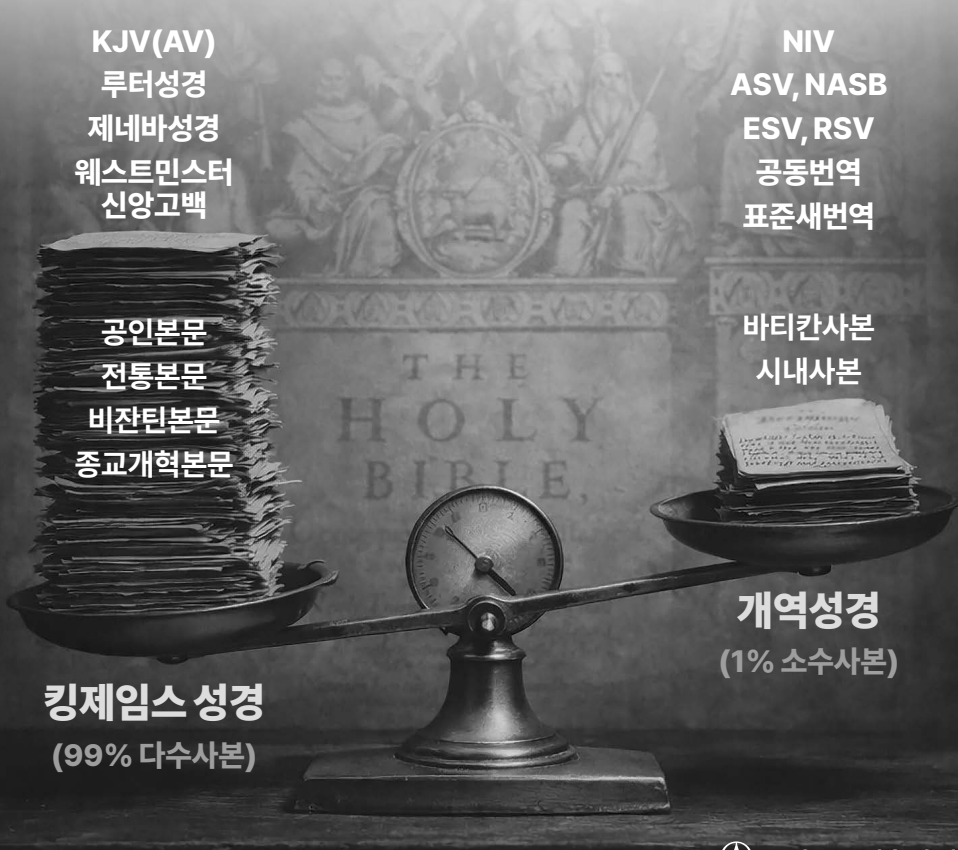
그리스도예수안에

킹제임스 성경 vs 개역성경

비교 대조

신약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본, 본문, 번역자, 번역 기법,
신학, 판매량과 지역 분포, 번역 대본, 베스트셀러 면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그리스도예수안에

킹제임스 vs 개역 비교 대조 신약성경

2026년 10월 1일 초판 발행

번 역 | 그리스도 예수안에

발 행 인 | 정 동 수

발 행 소 | 그리스도 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40
제2023-1748호

판권 소유 | 그리스도 예수안에

문 의 | (032) 872-1184(Tel)
(032) 232-0129(FAX)
웹사이트: http://www.KeepBible.com
E-mail: webmaster@KeepBible.com

ISBN 89-92485-77-7 03230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 성경 (ⓒ 대한성서공회, 2011년 판권 만료)

• 본 성경의 본문을 가감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본 성경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글에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진한 고딕체와 이탤릭체 등을 살려서 본 성경의 취지를 반영해야 함

• 본 성경의 일부를 책이나 전자물 형태로 출간/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함

서 문

지금부터 약 140년 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 이에 앞서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경의 필요성을 절감한 로스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1877년부터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뒤 여러 번역과 개정 작업을 거쳐 1911년에는 신구약성경인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1938년에는 그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1961년에는 다시 그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2011년 말로 판권이 만료되고 개역개정성경으로 대체되기까지, 권위있는 문체의 웅장함과 간결함 등으로 인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매김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주었고 복음 선포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개역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시한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 중심의 '소수 본문'과 이를 반영한 「미국표준역」(ASV) 등을 토대로, 샤머니즘의 영향권에 머물던 초기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었으므로 태생적으로 여러 한계를 지닌 성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 번역에 사용되는 본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대다수 성도들이 널리 사용해 왔고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의 압도적 다수, 곧 약 99%가 지지하는 '다수 본문'이 있고, 천주교회의 도서관과 동방정교회의 수도원 안에 갇혀 성도들에게 아무 빛도 주지 못한 나머지 약 1%의 소수 사본들에 근거한 '소수 본문'이 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비롯하여 성경대로 믿고자 힘썼던 성경 신자들은 한결같이 '다수 본문'에 근거한 성경들을 사용하였고, '소수 본문'은 도서관이나 수도원 등에 먼지와 함께 파묻혀 있었다. '다수 본문'에 근거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루터 성경과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회가 먼저 진출한 중국의 영향과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성경 본문 개정의 신학적 풍조로 인해 불행히도 천주교의 '소수 본문'에 근거한 성경을 전수받게 되었다. 본문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번역자들 역시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과 인도의 샤머니즘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아 이교도적 사상을 혼합하여 영 · 혼 · 육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성경을 내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문제를 안겨 준 본문과 많은 삭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훼손된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문법과 맞춤법 같은 기본적인 요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지내왔다.[1]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리 및 실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1) 이에 대해서는 장로교 신학대학원 나채운 교수의 「우리말 성경 연구」(기독교문사 1996년 2쇄, 714쪽)와 본서 7쪽의 '개역 및 개역개정의 차이'를 보기 바란다.

한편 1611년 영국에서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의 발흥(勃興) 및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영어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주요 성경으로 자리 잡아 수많은 신학 교재와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영어와 영미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국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 문장이 수려하고 영미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보수적 성경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 그것을 소장하여 직접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본문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바로 그 무렵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몇몇 성도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과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중대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대다수 한글 성경들도 내용 면에서 현대 영어 역본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는 이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 영미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논쟁이 널리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70년대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영어권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1611년 이후 수백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을 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고, 이들을 옹호하는 학자들과 출판계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번역을 비판하였다. 이에 맞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대 역본들의 심각한 오류들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성경학자들 사이의 본문 논쟁은 그보다 훨씬 앞서 시작되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바티칸 사본 같은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RV 혹은 RV)을 들고 나온 이후 성경 본문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문제가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의 논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10여 종의 성경이 있고 영미권에는 300여 종의 성경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역본의 이름이 수백 가지라 해도 성경 자체는 수백 종류가 아니라 결국 두 종류라는 점이다. 하나는 '다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적인 공인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이며, NIV, NASB, ESV, RSV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소수 본문 계열의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본서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성경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다수 본문'에서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소수 본문'에서 나온 개역성

경을 가감 없이 나란히 놓고 신약성경 전체를 구절별로 비교 · 대조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두 성경을 직접 비교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온 성경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십 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 왔다. 박사 과정에서는 실험과 이론 양쪽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 ·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 뒤 37년 이상 대학교수로 일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계속해 왔다.

개역성경은 젊은 시절에 나에게 심히 큰 유익을 준 성경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성경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자세히 대조하였다. 그 결과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비교 · 대조 성경」이다.

이 책은 결코 개역성경을 단순히 폄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영어에 익숙하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누구라도 여러 성경 역본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에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법에 맞고 번역상의 오류가 없는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원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신약 전체를 한 구절씩 대조하였다.

다음 세대가 중 ·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문법에도 맞고 샤머니즘 요소들이 제거된 성경을 읽을 때, 평범한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이 책에 담았다.

또한 이 「비교 · 대조 성경」 출간을 계기로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교단들이 이러한 작업을 이어받아 더 나은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서에서는 개역성경만을 직접 비교하였지만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ASB, ESV, RSV 등도 문체와 번역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문상의 주요 쟁점에서는 개역성경과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 역본들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본문 계통과 번역 원칙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번역이 더 읽기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종교이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이자 기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성경 본문과 번역은 개인과 교회는 물론 국가와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words)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반면에 마귀는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에 가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 왔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경 논쟁의 핵심은 결국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 단어들을 지금까지 모두 보존하셨는가? 그렇게 보존된 모든 단어들을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가?"

둘째, "아니면 그 단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부가 소실되었고 지금도 학자들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가?"

둘째가 사실이라면 성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성경을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그 안의 모든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신구약성경의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본서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부디 본서를 통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본문과 번역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오류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신자로 확고히 서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의 부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2026년 9월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공학박사, 성경강해학석사

개역 및 개역개정의 차이

본서에서는 신약성경을 비교하기 위해 개역성경을 사용하였다. 개역성경은 2011년 말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시대에 따른 언어와 한글 맞춤법의 변화, 성서학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역성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후 국내의 많은 교회들이 개역성경에서 개역개정성경으로 전환하였다.

본서가 개역성경을 비교 본문으로 사용했으므로 독자들 중에는 개역개정성경이 개역성경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의 관계에 대해 잠시 언급하려 한다.

점선 아래의 글은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경 번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사와 개역개정 공방 및 오류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각주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2)]

독자께서는 이 글을 통해 개역개정성경이 개역성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기존 개역성경의 번역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부 표현과 번역을 수정한 개정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서에서 다루는 성경 본문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두 역본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본문 계통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킹제임스 흠정역과 개역성경을 비교하였지만, 본문상의 주요 차이들에 관한 비교는 개역개정성경에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개역개정성경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 다른 현대 한글 역본들도 문체와 번역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본서에서 다루는 본문상의 주요 쟁점들에서는 개역성경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서의 비교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러한 현대 역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1998)

(1) 연혁(沿革)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1998)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표제지 연도 1956년/출판 연도 1961년)을 개정한 것이다.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성경젼셔 개역」(1938)을 개정한 것이었다. 「개역」의 전신인 옛 번역은 1900년에 출판된 「신약젼셔」와 1911년에 출판된 「구약젼셔」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이다. 이

---

2) 대한성서공회 번역사:
https://bskorea.or.kr/biblecom/bibcome05_08.php
개역개정 공방 및 논란:
https://blog.naver.com/greatimpact/100064951228

성경은 1911년에 완역된 이래 1938년에 한 번 개정되었고, 1961년에 두 번째로 개정된 바 있으나 「개역」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그대로 불려 왔다. 그러나 1998년에 개정되어 나온 개역은 그 개정의 범위가 이전의 것보다 정도가 훨씬 크고 넓으므로 이름을 바꾸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화기에 번역되고 그 후 몇 차례 고쳐진 「개역」이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아 온 자랑스러운 성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번역된 지 한 세기가 가까운 옛 번역이므로 오늘날 이 번역을 그대로 계속하여 쓰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학교 교과서와 일반 출판물에서 쓰는 우리 글 맞춤법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도 변화하고 있으며, 성서학 및 관련 학문들도 발전하여 기존의 번역 성경을 개정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바 있다.

그리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80년대에, 가능한 한 현재의 「개역」 성경의 분위기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983년 9월부터 약 10년간의 작업 끝에 개정 원고가 완성되었고, 1993년 8월, 각 교단에 의뢰하여 파송 받은 성서학자, 신학자, 목회자, 국어학자들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가 조직되어 4년 동안 157회의 독회(讀會)와 토론을 거쳐 개정 원고를 감수하였으며, 1997년 11월에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감수용)」을 출간한 바 있다. 이 감수용 성경을 1,600여명 이상의 한국교회 각 교단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와 신학자들에게 보내어서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1998년 5월에는 개정위원회와 감수위원회가 함께 모여 전국 교회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개정 작업에 반영하였다.

더 좋은 번역을 만들려는 열성을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작업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곳을 개정하게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언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번역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번역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현재의 「개역」 성경이 시대 시대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래도록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읽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개정(改正)의 성격

– 개정의 대원칙[3)]

- o 문법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o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o 개역 당시 어휘 선택이 현재 그 의미가 바뀌어 오해가 있을 경우 현대 어휘로 고친다. 과거에는 통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거나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꾼다.
- o 제3인칭 대명사 '저'와 '저희'는 각각 '그'와 '그들'로 고친다.
- o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로잡는다.
- o 준말은 그 원말로 바꾼다.
- o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치한다.

3) 개정의 대원칙 9가지는 13년 전에는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o 명사나 대명사에서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 소유격과 복수형을 밝힌다.

o 오역임이 확실한 것은 바른 번역으로 고친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의 개정 원칙과 특징을 함께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꼭 고쳐야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따라서 같은 번역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여 개정하는 일은 삼갔다. 예를 들면, "주기도"(마 6:9-13) 같은 것도 "나라이 임하옵시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오늘날 우리에게"를 "오늘 우리에게"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도로 개정하였다.

2) 다만, 「개역」 성경 본문의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시편 49편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와 같은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로 고쳐서 전혀 염려라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3) 「개역」 성경의 옛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다"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느니라"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인명과 지명 기타 외래어 음역(音譯)은 「개역」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역」에 문제가 있는 곳만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이름이 「개역」에서는 "바실래"와 "바르실래"로 나오는 경우,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르실래"로 통일하였다. 음역이 잘못된 "레센"은 "레셈"(수 19:47)으로, "리스위"는 "이스위"(삼상 14:49)로 고쳤다.…

5) 국어 맞춤법이 달라진 곳을 고쳤다. "일찌기"를 "일찍이"로, "-찌라도"를 "-지라도"로, "찌어다" 같은 것은 "지어다"로, "추솟군"을 "추수꾼"으로, "수염소"를 "숫염소"로 고친 것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

6) 문법에 맞지 아니하는 문장이나 어색한 문장을 다듬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7절의 "치마를 하였더라"는 "치마로 삼았더라"로, 마태 3장 2절의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고쳤다.

7) 오늘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쳤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22절의 "약대"는 "낙타"로, 창세기 15장 4절의 "후사(後嗣)"는 "상속자"로, 이사야 25장 5절의 "훤화(喧譁)"는 "소란" 등으로 고쳤다.

8)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고쳤다. 예를 들면, "문둥병"은 "나병"으로, "소경"은 "맹인"으로, "곱사등이"는 "등 굽은 자"로, "난쟁이"는 "키 못 자란 사람"으로,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로,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으로, "앉은뱅이"는 "못 걷는 사람"으로, "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병신"은 "몸 불편한 사람" 등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9) 「개역」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번역 내용의 일부를 고쳤다. 예를 들면, "주기도"(마 6:9 -13)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로 고쳐서 다음에 나오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와 문법적으로 일치되게 하였다.

(3) 「개역 개정판」의 편집상의 일반적 특징

「개역 개정판」의 완전한 이름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다. 「성경전서」라는 이름은 1911년에 우리말 번역이 완역되어 「셩경젼셔」(1911)가 나왔을 때부터 사용하였고, 관주가 붙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관주 성경전서」(1930/50)라는 이름을 썼고, 「셩경개역」(1938/48)이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2/61)이라는 이름을 써오다가 개정되면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장과 절 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였다. 신약의 경우, 본문에 따라 "-절 없음"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곳이 있다. 신약의 경우, 그리스어 본문에서의 절 구분은 1550년에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Estienne's Folio Greek Text)에서,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1560년의 제네바 성서(The Geneva Bible in English)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러한 절 구분은 후대 9-11세기 사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원후 2-4세기의 파피루스 사본들과 4-6세기의 대문자 사본이 발견되고, 신약 본문이 재구성되면서 고대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만 나타나는 첨가되는 본문은, 비록 16세기에 고유의 절 번호를 이미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원본에는 없고, 다만 후대에 첨가된 것이므로, 본문에는 넣지 않고 난외에다가 그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절 없음"이라는 표시는 원본에 가까운 고대 사본에는 그 절이 들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난외주를 볼 수 있다. (『개역 개정판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난외주가 해설 부분 안으로 들어가 있다.) 난외주는 성격상 1) 택일 번역, 2) 원문대조, 3) 음역된 낱말의 뜻풀이, 4) 이름의 뜻풀이, 5) 간단한 설명, 6) 고대역 및 사본 고증, 7) 인용의 출처 등을 밝히는 것 등 일곱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 택일(擇一) 본문의 경우는 "세례"로 번역된 말은 달리 "침례"라고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는 "세례"를 올리고, 난외주에는 "침례"라고도 번역될 수 있음을 밝혔다.

2) 원문 대조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출 6:3)의 히브리어 원문이 "엘샤다이"임을 난외주에 밝혔다. 3) 음역된 낱말의 뜻풀이로는 "벧엘"(창 28:19)의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난외주에 밝혔다.

4) 이름의 뜻을 밝힌 경우로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음역을 하기 때문에 난외주에 그 이름의 뜻을 밝혔다. "르우벤"(창 29:32)의 경우, "보라 아들이라".

5) 간단한 설명의 예로서는, "리트라"(요 19:39)에는 "1리트라는 약 327그램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6) 고대역 및 사본 고증의 예로서는 "[보아스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 가니라"(룻 3:15)에 "수리아와 라틴 번역에는, '이워주니 그가[룻이] 성읍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하여,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대로는 보아스가 성읍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리아어역과 라틴어역에는 룻이 성읍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러두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비교 · 대조 성경」의 편집 방식과 본문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본서는 각 페이지의 좌측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측에 개역성경을 나란히 배치하여 신약성경 전체를 한 절씩 대조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2. 킹제임스 성경 본문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역성경에서 삭제되었거나 오역 · 의역된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 개역성경 본문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과 대조했을 때 오역 · 의역 · 축약되었거나 삭제와 관련된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비해 문장이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면상 항상 더 짧게 조판되었다. 이로 인해 각 페이지 우측 하단에 남는 여백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특별히 짚어야 할 오역이나 삭제 부분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각주를 (*) 표시와 함께 수록하였다.

5. 각주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주로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며, 표시되지 않은 차이점이라도 본문 대조를 통해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개역성경에서 이와 같은 삭제, 오역, 의역, 축약 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본문의 차이, 번역 오류, 신학적 몰이해, 맞춤법, 존칭 사용, 샤머니즘 용어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근본적인 본문의 차이부터 신학 · 성경 개념의 문제, 번역 · 언어의 문제, 한국어 문법과 표현의 문제 순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20여 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문의 차이

다수 본문과 소수 본문의 차이로 인해 개역성경에는 총 열세 구절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마17:21; 18:11; 23:14; 막9:44; 9:46; 11:26; 15:28; 눅17:36; 23:17; 행8:37; 15:34; 28:29; 롬16:24). 또한 막7:15을 둘로 나누어 15, 16절로 만든 뒤 16절 전체를 삭제하였고, 요일5:6도 둘로 나누어 후반부를 7절로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요일5:7 전체가 삭제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2. 존칭 문제

개역성경은 예수님, 성령님 등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님'을 거의 붙이지 않고 '예수'라고 부르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가리키는 대명사 'he'를 번역할 때에도 '그분'이라 하지 않고 '그' 혹은 '저'로 표기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켰다.

3. 성경의 핵심 용어 문제

개역성경은 침례, 대언, 대언자, 사람의 아들, 왕과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영 등을 각각 세례, 예언, 선지자, 인자, 임금과 나라, 천국, 하나님의 성령 등으로 번역하였다.

4. 성경 용어에 대한 인식 부족

개역성경은 영, 혼, 천사 등을 영혼, 마음, 심령, 사자(使者) 등으로 혼용하여 번역하였다. 특히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살아 있는 혼'을 '산 영'으로 크게 오역하였다(고전 15:45).

5. 구약 본문과 신약 인용문의 불일치

개역성경은 신약에서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도 구약 본문과 신약의 인용문을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아 같은 말씀인데도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약과 구약의 번역자들이 달랐고 서로 대조하여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히8:8-12에서 인용한 렘31:31-34를 들 수 있다(히10:16-17 비교).

6. 번역 기술 부족

개역성경은 로마서 이후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등 교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한 구절 안에 여러 문장이나 문장 성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경우 전체 구조와 상호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각 문장 성분을 따로 번역해 이어 붙인 경우가 있다. 그 결과 하나로 연결되어야 할 논리가 단절되고 특히 서신서의 교리 설명 구절들에서 오역이 많이 나타난다(엡1:4-14; 골1:4-6; 계17:14-18 참조).

예를 들어 요일4:21에서 문장 순서를 바꾸어 '이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번역하였다.

개역: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킹제임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7. 중요 용어 삭제

개역성경은 감탄사 '보라', '아멘' 등을 많이 삭제하고,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므로', '그러나' 등의 접속 부사를 수많은 곳에서 삭제하였다.

8. 신학적 몰이해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았다.

9.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되는 번역

개역성경은 빌2:12, 벧전2:2 등을 마치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개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개역: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10. 샤머니즘 용어

개역성경은 마귀, 부정한 영, 사로잡히다(들리다), 지옥, 희생물을 각각 귀신, 더러운 귀신, 지피다, 음부, 제사 등 샤머니즘적 색채가 강한 용어로 번역하였다.

11. 영어 표현에 대한 몰이해

개역성경에는 영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역한 사례들이 있다. 그중 한 예로, 마13:34의 'without a parable'을 '비유가 없이는'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면'으로 오역하였고 신천지는 이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심지어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식으로 영해하는 데 이용하여 왔다.

개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없이는'이 맞음]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13:34; 막4:34 비교)

개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없이는'이 맞음]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11:40)

12.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관형어의 삭제

개역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여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약화시켰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말하는지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13. 소유 관형어의 부재

개역성경은 '그의', '자기의', '그들의', '자기들의', '그것의', '그것들의' 등을 거의 모두 '그'로 번역하여, '그'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14. 단수와 복수의 미구분

개역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아 원문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개역: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벧전3:18)
킹제임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15. 능동태와 수동태의 미구분

개역성경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번역한 경우가 많다. 특히 원문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서 주어를 생략하여 비문이 되게 하거나 행위의 주체를 알기 어렵게 하였고, 수동태를 부자연스럽게 옮겨 의미가 불분명해진 경우도 많다.

16. 일반 용어의 선택 문제

개역성경은 용광로, 왕관, 씨, 등잔대, 타 언어, 신성모독, 영, 걷다 등을 각각 풀무, 면류관, 후사, 촛대, 방언, 참람함이나 훼방, 신령, 행하다로 번역하였다.

특히 '걷다'를 '행하다'로 번역한 것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개역: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5:16)

킹제임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walk).

17. 외국어 및 외래 용어의 번역 문제

개역성경은 빵, 아마포(리넨),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를 각각 떡, 세마포(베), 감람산, 감람나무로 번역하였다. 또한 'wine'은 성경에서 대개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포도주'로 번역하여 마치 알코올이 들어 있는 술을 가리키는 것처럼 만들었다.

18. 문화 배경 문제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므로 '수확'으로 번역해야 하는데(눅10:2), 개역성경은 대개 '추수'로 번역하였다. 또한 포도즙 틀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 포도를 밟아 즙을 짜내는 큰 장치인데, 이를 마21:33과 막12:1에서 작은 그릇을 연상시키는 '즙 짜는 구유'로 번역하였다.

19. 국어 문법 및 어법 문제

개역성경은 '증언', '증언하다', '~으로 인해', '~에 힘입어'를 각각 '증거', '증거하다', '~을 인해', '~을 힘입어' 등으로 국어 문법과 어법에 어긋나게 번역하였다.

20. 존칭 및 조사 사용 문제

개역성경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등과 같이 출처나 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에 불필요한 존칭 조사 '께'를 붙이고, '~로부터'나 '~에서'를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로서'로 번역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로 번역하여 목적어인 하나님에게 주체 높임의 '-시-'를 적용하였다.

21.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표현

개역성경은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인 '손'(손님이라는 의미), '경문', '~함일러라', '~함이더라',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내가', '네가', '그가', '너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등을 '나로', '너로', '그로'로 번역하여 의미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22. 비속어 사용

개역성경은 '병신', '절뚝발이'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4)]

4) 본서에서 사용한 개역성경 본문은 널리 유통되는 성경 소프트웨어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개역성경은 30~40년 전의 인쇄본과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웹사이트에 공개한 본문 및 인쇄본,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유통되는 본문 사이에 일부 표기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찌어다/지어다', '~찐대/진대' 등의 표기가 서로 다르고, '나타내신 바', '기록된 바' 등의 띄어쓰기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철자와 띄어쓰기 등의 차이는 문제로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Matthew	----------	1
마가복음	Mark	----------	84
누가복음	Luke	----------	136
요한복음	John	----------	225
사도행전	Acts	----------	296
로마서	Romans	----------	377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	412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	447
갈라디아서	Galatians	----------	470
에베소서	Ephesians	----------	482
빌립보서	Philippians	----------	494
골로새서	Colossians	----------	503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	511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	519
디모데전서	1 Timothy	----------	524
디모데후서	2 Timothy	----------	533
디도서	Titus	----------	540
빌레몬서	Philemon	----------	544
히브리서	Hebrews	----------	546
야고보서	James	----------	572
베드로전서	1 Peter	----------	581
베드로후서	2 Peter	----------	590
요한일서	1 John	----------	596
요한이서	2 John	----------	606
요한삼서	3 John	----------	608
유다서	Jude	----------	610
요한계시록	Revelation	----------	613

마 태 복 음

제 1 장

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12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야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마 태 복 음

제 1 장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2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를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 개역성경은 마1:1부터 중요한 단어인 책을 삭제하여 오역함(창5:1 비교)

님이 태어나시니라.
17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열네 세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이니라.
18 ¶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나매
19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20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22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24 그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25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2 장

1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2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17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리라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2 장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쓰지 않음
(*) 개역성경은 마1:20 등 문맥상 천사가 명백한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여 교리의 혼동을 가져옴 (NIV, ESV도 천사로 번역함. 마25:41; 계12:7, 9 비교)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였고 또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이 *불안해하였더라.*
4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7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
12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13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14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5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chief priests)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NIV, ESV도 수제사장으로 번역함)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

(*) 개역성경은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하여 현시대의 그 지역을 알기 어렵게 함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16 ¶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17 이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이르시되,
18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해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느니라.
19 ¶ 그러나 헤롯이 죽으매,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20 이르되,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21 그가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23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에 가서 거하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제 3 장

1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20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제 3 장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 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baptism, John the Baptist 등은 세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침례자 요한이 맞음

(*) 마태복음에 32회 나오는 kingdom of heaven은 믿는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천국(heaven)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뜻함(마6:10 참조)

3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1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

3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 개역성경은 마3:10-12 등에서 보듯이 '또한', '그러므로', '철저히' 등 문장의 의미와 앞뒤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들을 많은 구절에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3:9처럼 원문의 의미를 바꾸어 의역한 곳이 많음

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에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 4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6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 4 장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오역이고 빵이 맞음
(*) 개역성경은 마4:6, 7, 10 등 많은 곳에서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삭제하여 성경 단어를 보존하지 못함

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12 ¶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14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17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3 ¶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므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12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 개역성경은 마4:23 등 여러 곳에서 왕국을 천국으로 오역하고 시리아를 수리아로 번역하여 현시대의 그 지역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마4:11, 19 등 여러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감탄사 등을 임의로 삭제함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25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제 5 장

1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3 ¶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 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제 5 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 개역성경은 마5:3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 마음 등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220회 이상 문법에 어긋나게 '~로 인하여(인해)'를 '~를 인하여(인해)'로 오역함

15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24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네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마5:17의 성취하다를 완전케 하다로 오역하여 의미를 바꾸었고 마5:21에서는 말한 주체와 대상을 뒤바꾸어 오역함

가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노라.
26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1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33 ¶ 또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35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 받침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36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7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38 ¶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없게 함(마2:2; 5:35; 계17:18; 19:19 비교)

(*) 개역성경 마5:37은 '예'를 '옳다'로 오역하여 의미를 바꿈

갚으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 대며
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도 가지게 하고
41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일 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이 마일을 가며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43 ¶ *그들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제 6 장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6 장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개역성경은 마5:41 등 수많은 곳에서 '너로', '그로', '나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대 국어 문법에 맞지 않음
(*) 개역성경은 마6:1에서 '구제하다'를 '의를 행하다'로 오역함(마6:2 비교)

3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5 ¶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6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7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10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15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 ¶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 개역성경은 마6:4-16에서 보듯이 여러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어 등을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6:10에서 두 번 나오는 '아버지의'를 모두 삭제하고 마6:11에서 '이날'을 '오늘날'로 오역함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17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19 ¶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21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22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나

23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銅綠)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개역성경은 마6:17-26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마6:16, 26 등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음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실을 잣지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33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 7 장

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2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3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4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5 너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제 7 장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 개역성경은 마6:33에서 핵심 단어인 하나님을 제거하고 마6:34의 문장 구조를 바꾸고 악을 괴로움으로 오역하여 의미를 크게 바꿈

6 ¶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7 ¶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10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11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13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15 ¶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21 ¶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 선지자는 대언자가 맞음(히브리 구약성경 타나크의 둘째 부분인 느비임 즉 대언서에 포함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등도 전기 대언서로 분류됨)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24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26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29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제 8 장

1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2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
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제 8 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마7:23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코(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5 ¶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 주리라, 하시므로

8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11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12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시고

13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대로 그렇게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14 ¶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15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16 ¶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 주시니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와하나이다

7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 개역성경은 100여 회나 증언하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오역함

17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18 ¶ 한편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19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21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23 ¶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24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는 주무시므로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2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27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28 ¶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29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좇았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29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마8:2, 7-9, 21, 25, 29 등 많은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감탄사를 임의로 삭제함

까? 하더라.
30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31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보라, 온 돼지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죽으니라.
33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들이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34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제 9 장

1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 도시로 들어가셨는데
2 보라,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3 보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 하는도다, 하매
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5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6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났으나
8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찐대 돼지 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32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 9 장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

(*)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10여 회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번역하여 신성모독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 개역성경은 아들(마9:2; 막2:5), 작은 자(마10:42; 18:6, 10, 14; 막9:42), 어린아이(요13:33) 등을 모두 소자로 함

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10 ¶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으나

12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13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14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16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17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18 ¶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래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 개역성경은 마9:13 등 여러 곳에서 바쳐지는 대상인 희생물을 제사 행위인 제사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마9:13에서 핵심 구인 '회개하게 하려고'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오역함

막 죽었으나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19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20 ¶ 보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21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22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23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24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25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보내신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26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27 ¶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28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 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29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30 그들의 눈이 열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주의하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그들이 떠나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32 ¶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 하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매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훤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24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31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32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 개역성경은 마9:19-32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접속어를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9:21-22에서 질병의 치유를 뜻하는 '온전하게 되다'를 '구원을 받다'로 오역함

33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 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하였으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35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36 ¶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37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2 이제 그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대오인 렙배오와
4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33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과 여름에 거두므로 개역성경에 16회 나오는 추수는 계절에 관계없는 수확으로 번역되어야 함(마9:37 등 참조)
(*) 개역성경은 마10:1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10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1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서 나갈 때까지 거기 머물라.
12 또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다다르게 하되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6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17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며
18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19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21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11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 개역성경은 마10:20 등 여러 곳에서 원문에 '거룩한(holy)'이 없는데도 '영'(Spirit)을 '성령'으로 오역함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24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25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불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 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 그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 그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일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31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

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6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 마10:22의 끝은 환난기의 끝이므로 나중으로 하면 오역임(마24:13 참조)
(*) 영과 혼은 엄연히 다른데 개역성경은 마10:28 등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영혼으로 합쳐서 오역하고 마10:31 등에서 접속 부사를 삭제함

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36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40 ¶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41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1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신 뒤에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2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
3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5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맞지 않고 대언이 맞으며(마11:13 참조)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6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9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12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13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14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 ¶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17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더니
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

6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찐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17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 개역성경은 마11:16-17에서 '이 세대는 ~하는 아이들과 같다'를 '아이들이 ~함과 같다'로 오역함(눅7:32 비교)
(*) 개역성경 마11:19 후반부는 원문을 크게 의역함(눅7:35 비교)

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니라.
20 ¶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21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베 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5 ¶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26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제 12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얻느니라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가 있을찐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찐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 12 장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

(*) 개역성경 마11:23 등에 나오는 음부는 불교·샤머니즘 용어로 성경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고 지옥이 맞으며 마11:26은 크게 오역하여 의미를 바꿈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2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5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잘못이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6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7 그러나,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8 이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9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0 ¶ 보라, *거기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12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13 그때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것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14 ¶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하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의논하였으나
15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

(*) 개역성경은 마12:4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주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여 빵을 떡으로 오역하고 마12:10 등에서 오그라든 손을 마른 손으로 오역함(마른 손은 물기가 없는 손을 뜻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희생물을 제사로 오역하고 마12:12에서 접속 부사 '그러하거든'을 삭제하여 앞뒤 문장의 연결을 약하게 만듦

서 물러가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16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17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18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19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친히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22 ¶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 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 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므로
23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였으나
24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니
25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29 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 개역성경은 마12:23 등에서 바알세붑을 바알세불로 오역하고 마12:28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역함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할 수 있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사람이*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30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헤치는 자니라.
3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32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33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34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3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37 이는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8 ¶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 개역성경은 마12:31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마12:35에서 선한 보고, 악한 보고를 쌓은 선과 쌓은 악으로 오역하고 마12:40에서 고래를 큰 물고기로 오역함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지나가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44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와서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45 그때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오므로 그 영들이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렇게 되리라, 하시니라.

46 ¶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니

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48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제 13 장

1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 개역성경은 마12:42에서 '이 세대와 함께', '보라'를 삭제하여 의미와 강조를 약화시키고 마12:43 등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3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4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7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8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9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2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14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성경 단어의 의미상 맞지 않고 대언이 맞음 (계19:10; 겔37:4-12 참조)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18 ¶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20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21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23 그러나 좋은 땅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24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느니라.
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26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27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2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29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음
(*) 개역성경은 마13:17-29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원문의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임의로 삭제함

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31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32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의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33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34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38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39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개역성경은 마13:34에서 'without a parable'을 '비유가 없이는'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오역하였고 신천지는 이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심지어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식의 영해에 이용함(막4:34; 히11:40 비교)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4 ¶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46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 ¶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48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뒤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렸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50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52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53 ¶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54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56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42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 개역성경 마13:50의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이므로 오역이고 불로 물질을 녹이는 용광로가 맞음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음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57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14 장

1 그때에 사분영주(四分領主)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2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3 ¶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어 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5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6 그러나 헤롯이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7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그녀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니
8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9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맹세로 인해 또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들로 인해 그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한 뒤
11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게 하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제 14 장

1 그 때에 분봉왕(分封王)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8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 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 개역성경은 마13:57의 첫 부분을 오역하고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13 ¶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곳으로 떠나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오매
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15 ¶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였으나
1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나이다, 하매
1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라.
19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아 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21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22 ¶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24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26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좇아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18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 개역성경은 마14:26의 영을 죽은 사람의 혼령을 뜻하는 유령으로 오역함

27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8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29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30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32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33 그때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34 ¶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매
35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의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36 병든 자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제 15 장

1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2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3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4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5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27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 15 장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오역하고 마15:4에서 저주하다를 훼방하다로 오역하며 여러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낮춤말인 아비와 어미로 번역함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7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8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9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12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시나이까? 하므로
1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
14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15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옵소서, 하니
1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7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뒷간으로 버려진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20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

(*) 개역성경은 마15:14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마15:19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21 ¶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
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니
22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기
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
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
리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23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
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를 지르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2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
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
시니라.
25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
며 이르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였
으나
26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
27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
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
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
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
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
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29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바
다에 가까이 가신 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말 못 하는 자들과 불구자들과
그 밖의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31 말 못 하는 자들이 말을 하며 불구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
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
안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
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
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
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
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대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
니라
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
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
시니
30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
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31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
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
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 마15:22에서처럼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33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같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므로
35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바닥에 앉게 하시고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집으신 뒤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37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일곱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38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사천 명의 남자들이더라.
39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 배를 타시고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제 16 장

1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3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 둔 채 떠나시니라.
5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제 16 장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 개역성경은 마15:37에서 보듯이 임의로 주어를 삭제하여 행동의 주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여러 곳에서 목적어, 부사어 등을 삭제함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7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므로
8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10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였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
13 ¶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4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매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18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7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3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 마16:18 등에 나오는 음부는 불교·샤머니즘 용어로서 맞지 않고 지옥이 맞음

19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20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21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22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23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24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음(마16:19 참조)

(*) 개역성경은 혼을 영혼, 목숨, 마음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함

제 17 장

1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2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4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6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7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므로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10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제 17 장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2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 개역성경은 마17:3, 5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하시매
13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으니라.
14 ¶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므로
16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나이다, 하매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18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아이에게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2 ¶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23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4 ¶ 그들이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25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

13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4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 음)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

(*) 마17:18에서처럼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하고 마17:18에서는 핵심어인 '아이에게서'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마17:21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26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느니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제 18 장

1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2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 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7 ¶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 18 장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7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음

(*) 개역성경은 마17:25-18:8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임의로 삭제함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10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12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 ¶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16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 음)
12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마18:11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18:15-16에서 보듯이 오역이 심하고 증참하다 등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사용함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2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23 ¶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24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25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26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 대해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매
27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라.
28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29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에 대해 참아 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30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31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매
32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33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같이 너도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관(同官)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으며 개역성경처럼 왕,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면 성경의 중요 주제인 왕국을 알 수 없음(계19:19 주석 참조)
(*) 개역성경은 마18:20-32에서 보듯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의역하여 성경 단어들의 보존을 약화시킴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34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35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제 19 장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3 ¶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4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6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하므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0 ¶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처지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 19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찐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 개역성경은 마19:4에서 '처음에'를 '본래'로 오역하여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결혼이 창조의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기 어렵게 함(마19:8의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임)

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 말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12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얼마쯤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고자들도 있나니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13 ¶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1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16 ¶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17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18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므로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좇으라

좋삽나이다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찌어다
13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찐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 개역성경은 천주교 소수사본과 오리겐을 따라 마19:17을 크게 오역하고 마19:20에서 '어려서부터'라는 중요한 구를 삭제함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2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27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 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30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제 20 장

1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2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 20 장

1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 개역성경은 마19:26을 부자연스럽게 번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 즉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왕국이 맞음(마6:10 참조)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5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8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9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10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12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짐과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13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일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주리라.
15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17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 개역성경은 마20:7의 핵심 부분인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여 비유의 뜻을 알기 어렵게 함(마20:4 참조)

(*) 개역성경은 마20:8 등 여러 곳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먼저와 나중으로 번역하였는데, 나중은 어떤 것보다 뒤에 오는 것을, 마지막은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없는 끝을 뜻하므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번역해야 하며 마20:15는 오역임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이기로 하고
19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20 ¶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21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24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였으나
25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26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29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9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 개역성경은 마20:20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마20:26의 금지 명령을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오역함

가 그분을 따르더라.
30 ¶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31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32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33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므로
34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제 21 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곁의*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4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5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느니라*, 하였느니라.
6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7 그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8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30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33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제 21 장

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 개역성경은 마20:34 등 여러 곳에서 '불쌍히 여기다'를 의미가 다른 '민망히 여기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되어,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말하므로
11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12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4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15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16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17 ¶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뒤 도시에서 나가 베다니로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18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
19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리니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無花果)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 개역성경은 마21:12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21:16-20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임의로 삭제함

버리는가!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매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27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28 ¶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30 그 *사람*이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 마21:28-32에서는 첫째 아들이 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어 KJV, NIV, ESV 등과 정반대임

31 그들 둘 가운데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3 ¶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34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35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36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므로

37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39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40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31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41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찌니이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 개역성경은 마21:31 등 여러 곳에서 왕, 왕국을 임금, 나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인 왕국 개념을 알 수 없게 만들고(계19:19 각주 참조) 마21:31-32에서 보듯이 단복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 마21:33의 '즙 짜는 구유'는 오역이고 여러 사람이 포도를 밟아 즙을 짜는 큰 장치인 포도즙 틀이 맞음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45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나
46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제 22 장

1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5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6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7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8 그때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 그러므로 너희는 큰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10 이에 그 종들이 큰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제 22 장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으며(15쪽 각주 참조) 마22:2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왕국을 뜻하고 마22장 비유의 문맥도 이를 지지함

11 ¶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므로
13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14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15 ¶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씀으로 올무에 얽어맬까 의논한 뒤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그러므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였으나
18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므로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23 ¶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24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

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18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 개역성경 마22:11의 손은 손님을 뜻하는 옛말로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마22:18 등에서 위선자를 뜻하는 외식하는 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25 한편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26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일곱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30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33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34 ¶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35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사람인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36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40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41 ¶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 두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찐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 개역성경은 마22:24 등 여러 곳에서 씨(seed)를 뜻이 다른 후사로 오역하고 마22:40의 '매달려 있다'를 강령으로 크게 오역함

42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44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45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46 아무도 그분께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 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제 23 장

1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4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5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6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7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 23 장

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 개역성경은 마22:44에서 원수들을 원수로 번역하여 모든 원수들이 굴복한다는 의미를 약화시킴
(*) 개역성경 마23:5의 '그 차는 경문'은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 개역성경은 마23:8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10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11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1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17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18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19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21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 (없 음)
1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17 우맹(愚氓)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으며 마23:13에서 보듯이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임하는 왕국이므로 종교인들이 닫을 수 있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마23:14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24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것들의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도다.

26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29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꾸미며

30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32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

33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34 ¶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2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24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예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 개역성경은 마23:29에서 의인들의 돌무덤을 의인들의 비석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 마23:29-30 등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은 마23:31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24 장

1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3 ¶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6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24 장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 개역성경은 마23:38을 미래형으로 오역하고 '너희에게'를 삭제하며 마24:6에서는 전쟁들을 난리로, 불안해하지 말라를 두려워 말라로 오역함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18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끝은 아직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 개역성경은 마24:14에서 왕국을 천국으로 오역하고 땅에서 전해질 왕국의 복음을 천국에 가는 복음으로 오역함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8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29 ¶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32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35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37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2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45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제 25 장

1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2 그들 중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제 25 장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 개역성경은 마24:45 등 26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맞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 맞으며 마25장은 마24:29의 환난기 이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를 다룸

리석더니
3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4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6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7 그때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잔을 손질하는데
8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였으나
9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11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였으나
12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14 ¶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15 그가 하나에게는 오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일 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16 그때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오 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17 이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 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8 일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 개역성경은 마25:9에서 '그리할 수 없노라'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마25:14에서 하늘의 왕국을 삭제하여 무엇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알 수 없게 만듦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19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20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오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오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오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2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4 그때에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6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27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28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31 ¶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개역성경은 마25:27 등 많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이나 '내가', '네가' 대신 '나로', '너로'를 써서 문법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듦

32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 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33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37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를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39 혹은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41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 개역성경은 마25:34 등에서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로 번역하여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만듦(계19:19 참조)
(*) 개역성경은 마25:41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

하리니
44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45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46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 26 장

1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3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4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5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 ¶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으나
8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9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10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44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 26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4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 개역성경은 마26:2 등 많은 곳에서 '너희가', '우리가' 등을 '너희의', '우리의' 등으로 번역하여 문법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이틀이'를 '이틀을'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12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 그때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1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으므로
16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7 ¶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8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니
19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20 한편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21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22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2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7 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19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23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 개역성경은 마26:15에서 언약을 맺음을 삭제하고 마26:16에서처럼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쓰지 않음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기 어렵게 함

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25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33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므로

35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1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 개역성경은 마26:28에서 신약을 뜻하는 새 상속 언약의 '새'(New)라는 핵심 단어를 제거함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38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39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40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42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44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45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46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47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8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 개역성경은 마26:40에서처럼 수많은 곳에서 '그들의', '그의', '그것의' 등을 다 '그'로 번역하여 문법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듦

(*) 개역성경은 마26:38, 41에서처럼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마음으로 오역하고 마26:43처럼 '피곤함일러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함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49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므로
51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53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54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55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57 ¶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로 간 뒤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60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61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
(*) 개역성경 마26:53의 열두 영은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63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므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시므로
65 그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67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 ¶ 한편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0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71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니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66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아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 개역성경은 마26:62에서처럼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마26:65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오역하며 마26:67에서처럼 다른 자들을 '혹'으로 번역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함

74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수탉이 울더라.
75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74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 27 장

1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협의한 뒤
2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3 ¶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5 그가 그 은들을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6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7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니
8 그런 이유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그 밭을 피 밭이라 하느니라.
9 그때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해
10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12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

제 27 장

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3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하시니라.
13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14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15 한편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곤 하였는데
16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으므로
17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19 ¶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20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21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이니이다, 하므로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라? 하니 그들이 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23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24 ¶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25 그때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5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猜忌)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19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가로되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 개역성경은 마27:13에서 증언의 주체와 대상 및 방향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마27:22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피동적 당위 표현으로 오역하며 또한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접속어 등을 임의로 삭제함

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26 ¶ 그때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 집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 모은 뒤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며
29 ¶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여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30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31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나가더니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33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서
34 ¶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36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37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38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39 ¶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 개역성경은 마27:35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구약성경의 성취를 부인하고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예수로, 그분을 그로 표현하여 신성을 모독함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41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45 한편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46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47 거기 서 있던 자들 중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48 즉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신 뒤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49 나머지 사람들은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50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51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53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54 한편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또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거기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

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46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

(*) 개역성경은 마27:42, 51-52에서처럼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는 많은 여자들 곧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57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가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더라.
58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그때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므로
59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싼 뒤
60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는데
6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 있으면서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62 ¶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63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 간 뒤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들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므로
66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 28 장

1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아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66 저희가 파숫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제 28 장

1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 개역성경은 마27:58에서 예수님의 몸(body)을 예수의 시체로 오역하고 마27:59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마27:64 등 신약성경에 40회 나오는 돌무덤(sepulchre)을 무덤(grave)으로 오역함

2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3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4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6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
8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라.
9 ¶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10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 갔다, 하라.
14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하니
15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 수직(守直)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제 파숫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

(*) 개역성경은 마28:7에서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그'라고 부르게 하여 우리말 높임법에 맞지 않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마28:2, 7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16 ¶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으로 들어가
17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개역성경은 마28:9의 앞부분을 삭제하고 경배의 대상인 '그분'을 삭제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마28:20 등 여러 곳에서 아멘을 삭제함

마 가 복 음

제 1 장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5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7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강력한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8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9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는데
11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
13 그분께서 거기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마 가 복 음

제 1 장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대언자가 맞고 막1:2-3은 말라기와 이사야 두 사람의 글이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대언자들이 맞음

14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한편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19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20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21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즉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23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24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니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그 부정한 영이 그를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므로
27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즉시 그분의 명성이 두루 갈릴리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좇으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삯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찜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 개역성경은 막1:14에서 왕국을 삭제하고 여러 곳에서 왕, 왕국을 임금, 나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막1:23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주변 온 지역에 널리 퍼지니라.
29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30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고하매
31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32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33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34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셨으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36 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37 그분을 만난 뒤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나이다, 하매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39 온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40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41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42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43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며
44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 가시니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40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42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4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

(*) 개역성경은 막1:34에서처럼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1:29-44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함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45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 일을 널리 퍼뜨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실 수 없었고 바깥의 외딴곳에 계셨는데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오더라.

제 2 장

1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2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매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3 그들이 한 마비 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으나

4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므로

5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으나

6 거기 앉아 있던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추론하며 *이르되*,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매

8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음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추론하느냐?

9 마비 병 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10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 2 장

1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 개역성경은 막1:44에서 '~을 인하여', '증거하라' 등의 오역을 범함

(*) 개역성경은 막2:7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가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매
12 즉시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같은 *것*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13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매 온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15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16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21 또한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 개역성경은 막2:17에서 '회개하게 하려고'를 삭제하고 막2:18 등 여러 곳에서 '그들이' 대신 이해하기 어려운 '혹이'라는 말을 사용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22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23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24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27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28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제 3 장

1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2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알려고* 그분을 지켜보니
3 그분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라, 하시고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므로
5 그들의 마음이 강퍅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 3 장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5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 개역성경은 막2:26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주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여 빵을 떡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3:1에서 손이 오그라든 것을 말랐다고 오역함(우리말에서 마른 손은 물기가 없는 손을 뜻함)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7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유대와
8 예루살렘과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따르며* 또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 곧 큰 무리가 그분께서 하신 큰일들을 듣고 그분께 오므로
9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해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10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악성 질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밀려들었기 때문이더라.
11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13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매 그들이 그분께 오므로
14 그분께서 열두 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며
15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16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17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18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19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20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 개역성경은 막3:5에서 핵심 구인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3:9, 10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함
(*) 개역성경은 막3:11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21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2 ¶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니
23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들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24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그 왕국이 설 수 없고
25 만일 어떤 집이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그 집이 설 수 없으며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열되면 그가 설 수 없고 종말을 맞느니라.
27 어떤 사람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할 수 없나니 *결박한* 뒤에야 그 *사람*이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모독 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29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31 ¶ 그때에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선 채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32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하매
3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34 자기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21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30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31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 개역성경은 막3:22에서 '지피다'라는 샤머니즘 용어를 씀
(*) 개역성경은 막3:28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3:31-32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존칭 접미사 '님'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대함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제 4 장

1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 바다에서 *배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2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3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고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냈지만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7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8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며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9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0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들로 행하여졌나니
12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3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

제 4 장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3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찐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막4:1, 11-13, 19 등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고 막4:14-20에서 보듯이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니라.
15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16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17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요,
18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되
19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21 ¶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통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22 숨겨 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2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평가를 받을 것이며 듣는 너희가 더 많이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26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같이 그러하니
27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28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
15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간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6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 개역성경은 막4:22에서 숨긴 것과 은밀히 간직한 것이 결국 드러나고 널리 퍼진다는 결과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4:19, 22 등 여러 곳을 크게 오역하고 막4:24에서처럼 중요 단어를 임의로 삭제함

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라.
29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0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31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32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33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을 써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34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35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37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38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므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39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매
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므로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 개역성경은 막4:34에서 'without a parable'을 '비유가 없이는'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오역하였고 신천지는 이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심지어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식의 영해에 이용함(마13:34; 히11:40 비교)

제 5 장

1 그들이 바다 저쪽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니라.
2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3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4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5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6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7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9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10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11 마침 거기의 산 근처에서 돼지들의 큰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12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13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이천 마리쯤인) 그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서 숨 막혀 죽으니라.
14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

제 5 장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 막5:9의 legion은 그리스말로 명확히 군대가 아니라 군단임

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나가
15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16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한 돼지들에 관하여 고하니
17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18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자가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나
19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20 그가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매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21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시더라.
22 보라, 회당 치리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23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24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25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26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27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17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귀신이라는 샤머니즘 용어로 오역하고 막 5:15에서는 '지피다'라는 샤머니즘 용어를 사용함
(*) 개역성경 막5:28의 '함일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며 개역성경에는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하였기 때문이더라.
29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악성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30 예수님께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으나
32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고하매
34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35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
36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뒤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
41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는 *말*이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35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훤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훤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 개역성경은 막5:34에서 병이 나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오역하여 영적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혼동하게 함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 관형어 등을 삭제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추측해야 하도록 만듦

42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므로

43 그분께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 6 장

제 6 장

1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이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심지어 이처럼 강력한 일들을 행하느냐?

3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4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들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5 거기서는 어떤 강력한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6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그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8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해 오직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의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9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10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 개역성경은 막5:42에서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인과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듦

(*) 개역성경은 막6:7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11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12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13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14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지매)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15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 하나와 같다, 하였으나

16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18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였으므로

19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20 이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21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에

22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15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16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21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으며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은 맞지 않고 마귀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막6:11, 16, 22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하고 막6:20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고'를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로 크게 오역함

라, 하고
23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
24 그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매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므로
26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의 맹세로 인해 또 자기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로 인해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27 즉시 왕이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 *사람*이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벤 뒤
28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29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 속에 두니라.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같이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3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자들이 많아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32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곳으로 떠나니
33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간 뒤 그들을 앞질러 그분께 같이 왔더라.
3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35 낮이 이제 거의 다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곳이요 이제 때도 많이 지났으니
36 그들을 보내사 그들이 주변 지역과
23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 개역성경은 막6:27에서 집행관을 시위병으로 오역하고 막6:29에서처럼 단어를 삭제하고 의역하며 막6:33에서 보듯이 '그분'과 '저희'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못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을 앞질러 그분께 왔다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번역함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37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매
38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니라.
39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40 그들이 떼를 지어 백 명씩 오십 명씩 앉으므로
41 그분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42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43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저들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44 빵을 먹은 자들은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45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시니라.
47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분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으나
49 그들은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50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떼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50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 개역성경은 막6:42-43에서 빵을 먹은 자들과 빵 조각들을 거둔 자들(제자들)이 다름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음
(*) 개역성경은 막6:48에서처럼 중요 단어들을 임의로 삭제함

51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극도로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52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53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 해안에 다다른 뒤
54 배에서 내리니 즉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55 그 주변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자기들이 듣기에 그분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56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병든 자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제 7 장

1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분께 같이 왔다가
2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
3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4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 등이라.
5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7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51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56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 7 장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 개역성경은 막6:52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기적을 삭제함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성경 단어의 의미상 맞지 않고 대언이 맞음 (계19:10; 겔37:4-12 참조)

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10 모세는 이르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는데
11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12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13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14 ¶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라.
15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7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9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20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 개역성경은 막7:8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막7:19의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막7:15를 둘로 나누어 15, 16절로 만들고 16절을 통째로 삭제함(신약성경에서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7:19의 문장 구조와 의미를 바꾸어 크게 오역함(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로 연결함)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24 ¶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경계로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나 숨으실 수 없더라.
25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에 대하여 듣고는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 보자면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내쫓아 주실 것을 구하였으나
2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
28 그녀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매
29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 길로 가라. 그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그녀가 자기 집에 와서 보니 그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31 ¶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오시니
32 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33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려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귀들에 넣고 침을 뱉은 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열리라, 는 *말*이라.
35 즉시 그의 귀들이 열리고 그의 혀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니
36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찌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6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

(*) 개역성경은 막7:22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7:24에서 시돈이라는 지명을 삭제하고 막7:25에서는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 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많이 전파하고
37 또 극도로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들도 듣게 하시고 말 못 하는 자들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제 8 장

1 그 당시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3 그들 중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4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하매
5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 있나이다, 하므로
6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바닥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개를 집으신 뒤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7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니
8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일곱 바구니에 거두었는데
9 먹은 자들은 사천 명쯤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10 ¶ 즉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므로
12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제 8 장

1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 개역성경은 막8:4 등 여러 곳에서 빵을 떡으로 오역하고 막8:8에서처럼 빵을 먹은 자들과 거둔 자들을 구분하지 않으며 막8:12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마음으로 오역함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떠나시니라.

14 ¶ 그런데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16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므로

17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열두 바구니이니이다, 하매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들을 가득 담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바구니이니이다, 하므로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 ¶ 그분께서 벳새다에 오시니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23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에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뒤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24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므로

25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매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므로

26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15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6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열둘이니이다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일곱이니이다

21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 벳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

(*) 개역성경은 막8:22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막8:24를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8:25에서 모든 사람(every man)을 만물로 오역함

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27 ¶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갔을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28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대언자들 중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31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32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33 그분께서 돌아서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34 ¶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32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 개역성경은 막8:26의 많은 부분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막8:33을 오역하고 막8:37 등 여러 곳에서 혼을 영혼, 목숨, 마음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함

38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제 9 장

1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 ¶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3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4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므로
5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6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7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8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10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 *속에* 간직하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묻더라.
11 ¶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 9 장

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7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 저희가 산에서 내려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막9:4-5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존칭 접미사 '님'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대함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12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함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왔지만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14 ¶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15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므로
16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17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 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 어디든지 그가 아이를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므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매
19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20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22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 개역성경은 막9:12, 14, 20에서 보듯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막9:21처럼 의역함
(*) 개역성경은 막9:17-26에서 말 못 하는 영을 벙어리 귀신으로 번역함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24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25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 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은 뒤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였으나
27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시매 그가 일어나니라.
28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 ¶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31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뒤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32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33 ¶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34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35 그분께서 앉으신 뒤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하시니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 개역성경은 막9:23에서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로 바꾸어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9:29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금식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9:30에서 '그들'과 '그분'이라는 주어가 구분되지 않음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36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38 ¶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였으나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 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없 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없 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 개역성경은 막9:39에서 '쉽사리'를 '즉시로'로 오역하고 여러 부분을 의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막9:44, 46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9:39, 41, 42 등에서 중요한 구를 삭제함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8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을 통해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2 ¶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3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어라고 명령하였느냐? 하시므로
4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퍅하므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으나
6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7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8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10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시 그분께 여쭈니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대적하여 간음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더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 개역성경은 막9:49에서 사람마다 불로 절여지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진다는 두 내용을 하나로 합쳐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10:6을 '창조시로부터'로 번역하여 그 뜻을 알 수 없게 만듦
(*) 개역성경은 막10:1에서 '요르단의 더 먼 쪽을 통해'를 오역하여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바꿈

하는 것이며
12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3 ¶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으므로
14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16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17 ¶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1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하시니
20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므로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23 ¶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

(*) 개역성경은 막10:14 등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하고 막10:15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공경하여 모시다)로 오역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25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매
27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28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29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누구든지
30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백 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31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하시니라.
32 ¶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면서 두려워하므로 그분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며
33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34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35 ¶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 개역성경은 막10:24에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을 삭제하여 핵심 의미를 훼손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한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3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3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39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40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41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나
42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43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46 ¶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6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 개역성경은 막10:38-39에서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나의 받는 세례'로 오역하여 침례가 잠기는 것임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막10:41에서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를 의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매오가 큰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47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48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49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므로
50 그가 자기 옷을 내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오매
5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 11 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곁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곧바로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어린 수나귀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말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을 이리 보내리라, 하시므로
4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어린 수나귀가 두 길이 만나는 곳의 바깥에 있는 문 곁에 매여 있더라. 그들이 그것을 푸니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린 수나귀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제 11 장

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

(*) 개역성경은 막10:51에서 핵심어인 '주여'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10:52에서 시력을 받아 온전하게 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오역하여 영적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혼동하게 함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삭제함

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므로
6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저들에게 말하니 저들이 그들을 가게 하니라.
7 그들이 그 어린 수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매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 앞에서 가는 자들과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10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12 ¶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고* 가셨으나 그 나무로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14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15 ¶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16 아무도 *성*전을 통해 용기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 의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18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6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8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12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19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20 ¶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27 ¶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28 그분께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30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밖으로 나가더라
20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 (없 음)
27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28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 개역성경 막11:18의 '함일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 개역성경은 막11:23에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마지막 부분을 의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막11:26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하시니
31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32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또 어찌 되겠느냐*,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며
33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제 12 장

1 그분께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2 포도 철이 되매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 중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3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4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므로
5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며 그 밖의 많은 종들도 몇 사람은 때리고 몇 사람은 죽이니라.
6 이런 까닭에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7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는
8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느니라.
9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
31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2 장

1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6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7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 개역성경은 막12:1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 포도를 발로 밟아 즙을 내는 큰 포도즙 틀을 '즙 짜는 구유'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12:4 등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임의로 삭제함

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고 말하는* 이 성경기록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12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알았으므로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13 ¶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의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14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18 ¶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20 한편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13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 개역성경은 막12:14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다'를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다'로 오역하여 뜻을 불분명하게 만듦
(*) 개역성경은 막12:19 등 여러 곳에서 씨(seed)를 후사로 오역함

21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와 같이 하여
22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25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7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도다, 하시니라.
28 ¶ 서기관들 중의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추론하는 것을 듣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셨음을 알고는 그분께 여쭙되, 모든 것 중의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들 중의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30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31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32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찐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 개역성경은 막12:24, 27에서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도다'를 '크게 오해하였도다'로 오역하여 의미를 축소함
(*) 개역성경은 막12:32 등 여러 곳에서 '한 하나님'(one God)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오역하고 29절에서도 '한 주'(one Lord)를 '유일한 주'로 오역함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35 ¶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그런 까닭으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38 ¶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39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40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41 ¶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42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 렙돈 곧 일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43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4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 개역성경은 막12:33에서 '혼을 다하고'를 삭제하고 막12:37에서 접속 부사 '그런 까닭으로'를 삭제하여 연결 관계를 흐리게 하며 막12:40에서 정죄를 판결로 오역하여 의미를 약화시킴

느니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매
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3 그분께서 *성*전을 마주 보며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4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7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과 재난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 ¶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회당들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10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 한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

제 13 장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7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 개역성경은 막13:6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막13:7에서 전쟁들을 난리로 오역하며 막13:9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막13:11에서 궁리하다를 염려하다로 오역함

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
라.
14 ¶ 그러나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
어다.
15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16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
아가지 말지어다.
17 더욱이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
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19 그 날들에 고난이 있을 터인데 하나
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
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
에도 없으리라.
20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
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
이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
들을 위해 그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21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
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
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
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
라.
23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 ¶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
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26 그때에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할찌어다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도 말며
16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17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
라
19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
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
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
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
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
리라

(*) 막13:13의 끝은 환난기의 끝이므로 나중으로 하면 오역임(마24:13 참조)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오는 것을 보리라.
27 또 그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28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29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31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4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나니
35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수탉이 울 때일지, 아침 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 14 장

1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2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3 ¶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시면서 나

27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 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14 장

1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2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 개역성경은 막13:29에서 '그때'를 '인자'로 오역하고 막13:33에서 핵심인 '기도하라'를 삭제하며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4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5 그것을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에 대해 불평하니

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때에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8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0 ¶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11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12 ¶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집주인에게 말하되,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15 그러면 그가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니 거기서

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0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2 무교절의 첫 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5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

(*) 개역성경은 막14:7처럼 임의로 축약하고 의역함

(*) Passover라는 말은 유월절도 되고 유월절 어린양도 되므로 막14:12, 14 등에서 구분해서 번역해야 함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16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7 저녁때에 그분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는데
18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19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께, 그게 나니이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며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이까? 하고 말하매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열두 명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니라.
21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2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여 예비하라 하신대
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7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와서
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20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 개역성경은 막14:24에서 신약을 뜻하는 새 상속 언약의 '새'(New)라는 핵심 단어를 제거함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삭제함

29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깨어 있으라, 하신 뒤

35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36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37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38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39 다시 그분께서 떠나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40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어라고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41 그분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2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1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 개역성경은 막14:33에서 예수님의 심한 놀람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비로소'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14:34, 38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마음으로 오역함

42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43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즉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오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4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45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46 ¶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으므로
47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4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니
50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51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매
52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53 ¶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간 뒤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55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거를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56 이는 많은 자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42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 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3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 개역성경은 막14:51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막14:56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증거와 증언을 혼동함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며 이르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였으나
59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60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61 그분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62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므로
63 그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64 너희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65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66 ¶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 하나가 와서
67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68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69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70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67 베드로의 불 쬠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69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黨)이라 하되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 개역성경은 막14:64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오역하고 막14:66에서 비자라는 말을 사용함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매
71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제 15 장

1 아침에 즉시 수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3 수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4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였으나
5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6 한편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는데
7 *마침*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어 있었으므로
8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에게 그가 자기들에게 해 주던 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였으니
10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11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

71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 15 장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6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

(*) 개역성경은 막14:70에서 베드로의 갈릴리 말투에 관한 핵심 내용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15:3, 8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을 삭제하여 짧게 만듦
(*) 개역성경은 막15:7을 의역하여 바라바와 폭도들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
(*) 개역성경은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하니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14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15 ¶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16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래토리움이라 하는 관저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소집한 뒤
17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18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19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20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나가더니
21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시골에서 와서 *그곳을* 지나가므로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22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
23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24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각 사람이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기 위해*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세 시가 되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6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이 명시된

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13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가로되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16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18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고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오역함
(*)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수식 부사를 삭제함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27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되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못 박으니*
28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30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모욕하더라.
33 여섯 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아홉 시까지 이어졌는데
34 아홉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35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신 뒤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37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38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39 ¶ 그분을 마주 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라 썼고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없 음)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찌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막15:28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막15:39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삭제함

41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또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긴 자들이었고)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밖의 많은 여자들이 있더라.
42 ¶ 한편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녁이 되었을 때에
43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으며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44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며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묻고
45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그 몸을 요셉에게 주매
46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았는데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이 놓인 곳을 지켜보더라.

제 16 장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료를 사 두었더라.
2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3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고
4 바라볼 때에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5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42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47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 16 장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 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 개역성경은 막15:46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에 40회 나오는 돌무덤(sepulchre)을 무덤(grave)으로 오역함

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므로
8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 ¶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10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1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2 ¶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고하였으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14 ¶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18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20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8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 [예수께서 안식후 첫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 개역성경 막16:9-20에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이라는 각주를 붙여 이 12구절이 원래 본문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함

누가복음

제 1 장

1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2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 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3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4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5 ¶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6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7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8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9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10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매
12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누가복음

제 1 장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9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

(*) 개역성경은 눅1:1처럼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않고 너무 쉽게 의역을 함
(*) 개역성경은 눅1:6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은 눅1:11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6 이스라엘 자손 중의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17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 하니
19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20 보라,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21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22 또 그가 나왔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계시를 보았음을 그들이 직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23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24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25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27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

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21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22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23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 이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25 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 개역성경은 눅1:17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 마음 등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angel을 눅1:11에서는 사자로, 눅1:18에서는 천사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고 눅1:9, 21 등에서 성전(temple)을 성소로 오역함

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28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29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30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32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34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35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36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니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39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네 태의 열매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9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복이 있도다.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곧바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45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7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48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49 강력하신 분께서 큰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50 그분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51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 강력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53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55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56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7 한편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58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59 여덟째 날에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60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말고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느니라.

있도다
43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 개역성경은 눅1:47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영혼이나 마음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1:54, 56에서처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임의로 삭제하여 성경 단어들을 보존하지 못함

리라, 하므로
61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62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아이를 부를지 물으니
63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하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64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65 그들 주변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닥쳤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 지방 전역에 널리 퍼지매
66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하시더라.
67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며 이르되,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69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72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74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사
75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76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77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는 지식을 주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

61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62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63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 중에 두루 퍼지매
66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74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성경 단어의 의미상 맞지 않고 대언이 맞으며 (계19:10; 겔37:4-12 참조) 눅 1:76 등에서도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은 눅1:70-72에서처럼 축약하고 의역하여 원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로 인한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79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제 2 장

1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2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3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5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
6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차매
7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8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9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11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12 싸매는 천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13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 2 장

1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 개역성경은 눅2:2 등에서 시리아를 수리아로 번역하여 현시대의 그 지역을 알 수 없게 만듦
(*) 개역성경은 눅2:9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16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17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18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 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21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 준 이름이더라.
22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23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25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27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20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22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 개역성경은 눅2:14에서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오역하고 또 많은 구절을 축약하고 의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만들고 눅2:24에서 희생물을 제사로 바꿈

28 그때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31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33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35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36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칠 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팔십사 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38 그때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39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40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 한편 그분의 양친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42 그분께서 열두 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43 그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과부 된 지 팔십사 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9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 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 개역성경은 눅2:35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영혼이나 마음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2:33, 43 등에서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를 부모로 오역함

44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45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46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47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48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4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50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니라.
52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제 3 장

1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십오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영주(四分領主)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분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영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3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4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 3 장

1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붙이지 않음

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7 그때에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9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
10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1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12 그때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14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15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매
16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0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14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5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

(*) 개역성경 눅3:8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father를 아버지로 번역해야 의미가 맞음
(*) 개역성경 눅3:13, 14 등 많은 곳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심히 어려움

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7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18 또 권면하면서 그 밖의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19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20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21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서른 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24 헬리는 맛닷의 아들이요,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25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낙게의 아들이요,
26 낙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27 유다는 요안나의 아들이요, 요안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요,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28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요,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29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

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 또 기타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24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25 그 이상은 맛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개요
26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맛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섹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27 그 이상은 요아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28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29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

(*) 개역성경 눅3:17의 쭉정이는 알곡에서 분리되는 껍질과 다름
(*) 개역성경은 눅3:22에서 몸의 형태를 형체로 오역함
(*) 개역성경 눅3:23-38의 '그 이상'은 말이 안 되는 번역이고 여러 이름이 오역됨

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맛닷의 아들이요,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30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아김의 아들이요,
31 엘리아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맛다다의 아들이요, 맛다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32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33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34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35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요,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36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37 라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요,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레엘의 아들이요, 마할랄레엘은 게난의 아들이요,
38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제 4 장

1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2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나매 그 뒤

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30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31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32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33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35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36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37 그 이상은 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제 4 장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 개역성경 눅3:33, 35, 36 등의 인명은 구약성경과 다름
(*) 개역성경 눅4:1-2는 문장 순서를 잘못 배열하여 성령의 인도와 마귀의 시험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듦

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
3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11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1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14 ¶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15 그분께서는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16 ¶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10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오역이고 빵이 맞음
(*) 개역성경은 눅4:4, 8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4:10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17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 성경기록이 이르되,
18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므로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22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24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代言者)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26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27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28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28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 개역성경은 눅4:18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4:22 등 100여 곳에서 증언하다를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눅4:27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오역함

든고 진노로 가득 차서
29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30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31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32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33 ¶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34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니이다,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36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37 그분의 명성이 그 주변 지역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38 ¶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39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40 ¶ 한편 해 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에 걸려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41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다 분이 가득하여
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31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32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 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37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40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 개역성경은 눅4:33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하고 마귀를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4:29, 35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 접속 부사 등을 삭제함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42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떠나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매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44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제 5 장

1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2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3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4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5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7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9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 5 장

1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

(*) 개역성경은 눅4:41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4:43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오역함

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10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12 ¶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13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
14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15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지므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16 ¶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17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시더라.
18 ¶ 보라, 사람들이 마비 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19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므로
20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
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19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0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개역성경은 눅5:12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5:15, 18 등 여러 곳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였으나
22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23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24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니
26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27 ¶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29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30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32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33 ¶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어

하시니
2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23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27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30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3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

(*) 개역성경은 눅5:21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오역하고 눅5:22에서 보듯이 축약하고 의역하며 눅5:26에서처럼 오늘 혹은 이날을 오늘날로 오역함

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3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36 ¶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것이 찢어지게 하며 새 옷에서 떼어 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37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39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제 6 장

1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2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 이 일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은 먹고 마시나이다
3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35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 6 장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 개역성경은 막2:26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주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여 빵을 떡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6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았으나
8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매
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고
10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11 그들이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라.
12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열두 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14 *이들은 곧*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17 ¶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가 *함께하더라.*
18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8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9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16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7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 개역성경은 눅6:6에서 손이 오그라든 것을 말랐다고 오역함(우리말에서 마른 손은 물기가 없는 손을 뜻함)
(*) 개역성경은 눅6:10에서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라는 핵심 구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6:18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19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고쳤기 때문이더라.
20 ¶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3 그 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25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주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라.
26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27 ¶ 그러나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29 또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31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0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개역성경은 눅6:20 등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 눅6:21의 '것임이요'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34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35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37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41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가 스스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37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 개역성경은 눅6:34-35 등에서 빌려주다를 빌리다로 오역하고 눅6:39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임의로 삭제함

있는 티를 빼내리라.
43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44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46 ¶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리니
48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쳐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49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매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제 7 장

1 한편 그분께서는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그에게 사랑받는 자더라.
3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4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티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49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 7 장

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 하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

(*) 개역성경은 눅6:45에서 선한 보고, 악한 보고를 쌓은 선과 쌓은 악으로 오역하고 눅7:3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등 문장의 기본 요소들을 임의로 삭제함

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7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8 나도 권위 아래 놓인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9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하시니라.
10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11 ¶ 그다음 날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12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더라.
13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14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16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닥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

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 개역성경은 눅7:7에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를 '말씀만 하사'로 축약 · 의역하고 의미를 살려주는 접속 부사 '그러면'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7:9 등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접속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완성하지 못함

오셨다, 하더라.
17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두루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지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 ¶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 하라, 하매
20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 하더이다, 하니라.
21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악성 질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으므로
2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고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26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27 이 *사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 개역성경은 눅7:22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30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더라.
31 ¶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33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렸다, 하더니
34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도다.
35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니라.
36 ¶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37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39 이때에,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1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32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 개역성경은 눅7:32에서 '그들은 ~하는 아이들과 같다'를 '아이들이 ~함과 같다'로 오역함(마11:16-17 비교)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은 눅7:35와 동일한 구절인 마11:19를 다르게 번역함

4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41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42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 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44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45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48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49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죄들도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더라.

50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 8 장

1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49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 8 장

1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 개역성경은 눅7:42에서 '너그러이', '그러므로 내게 말해 보라' 같은 중요 부분을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7:47-48에서 보듯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함을 받은 일' '죄 사함' 같은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함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열두 *제자* 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2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일곱 마귀 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4 ¶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버렸으며

6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바로 시들어 버렸고

7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 막히게 하였으며

8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이까? 하매

10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3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14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 개역성경은 눅8:1을 크게 오역하고 '보이셨다'를 '전하셨다'로 번역함

(*) 개역성경은 눅8:9처럼 완전히 의역한 데도 많고 눅8:7-14에서 보듯이 단복수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데가 심히 많음

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5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16 ¶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9 ¶ 그때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갈 수 없으므로
20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22 ¶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23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24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9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20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22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 개역성경은 눅8:15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8:17에서 보듯이 많은 구절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지 않았고 눅8:25처럼 주어, 목적어 등을 생략하여 비문을 만든 곳이 많음

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6 ¶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27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28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으므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31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32 거기의 산 위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33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호수로 들어가 숨 막혀 죽으니라.
34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고하니
35 그때에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36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이 들렸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니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26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35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 귀신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 개역성경은 눅8:29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 눅8:30의 legion은 군대가 아니라 군단이어야 함
(*) 개역성경은 눅8:36처럼 많은 곳에서 의역을 하고 비문을 만듦

37 ¶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38 이때에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두루 온 도시에 전파하니라.

40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41 ¶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42 이는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녀가 누운 채 죽어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43 ¶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44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4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47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매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 귀신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41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 개역성경은 눅8:38에서 보듯이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 눅8:42, 46의 '감이러라', '앎이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 개역성경은 눅8:41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쓰지 않음

48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49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50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신 뒤
51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그녀로 인해 통곡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53 그들이 그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54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가 즉시 일어나므로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56 그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 9 장

1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2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3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 벌 취하지 말라.
4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56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 9 장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3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 개역성경은 눅9:2 등 여러 곳에서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잃고 왕국이라는 성경의 중요 주제를 알기 어렵게 만듦
(*) 개역성경은 눅8:49, 55 등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삭제하여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바로 그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6 그들이 떠나 고을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7 ¶ 한편 사분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황하였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8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기 원하더라.
10 ¶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새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곳으로 가시니라.
11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12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에 열두 *제자*가 와서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곳에 있나이다, 하였으나
13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외에 더 없으므로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14 이는 그들이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 하시니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16 그때에 그분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8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11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2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다 하였으니
14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15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 개역성경은 눅9:6 등에서 '지나가다'(go through), '걷다'(walk)를 '행하다'로 오역하고 눅9:14처럼 심하게 의역하며 많은 단어를 축약하여 비문을 만들고 빵을 떡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9:8 등 여러 곳에서 '어떤 이들'을 '혹'으로 축약하여 의역함

17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 남아 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18 ¶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9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언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22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23 ¶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4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2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8 ¶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17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 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29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30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31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32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33 그들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34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두려워하였는데
35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며
36 그 음성이 사라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37 ¶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38 보라, 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이니이다.
39 보소서, 한 영이 아이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아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40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매
41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37 이튿날 산에서 내려 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38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 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

(*) 개역성경은 눅9:38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9:39 등에서 영을 귀신으로 오역함

오라, 하시니
42 그가 올 때에도 그 마귀가 그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으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43 ¶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랐는데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45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46 ¶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매
47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바로 그자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49 ¶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1 ¶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52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53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54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43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45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6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49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 개역성경은 눅9:49에서처럼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함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 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55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57 ¶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5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6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61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6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칠십 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
2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3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좇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7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3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 개역성경은 눅9:55-56에서 많은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였는데 이런 일로 인해 개역성경은 매우 짧음
(*) 개역성경은 눅9:57, 59 등에서처럼 주(Lord)를 많이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10:2에서 이유를 보여주는 접속 부사어, 주어, 부사어 등을 삭제하여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고 뜻을 바르게 알 수 없게 하였는데 이런 일은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음
(*)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므로 수확으로 번역해야 함(눅10:2)

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4 돈주머니나 짐 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라.
6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7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8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들을 먹고
9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10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11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바로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3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베 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 화 있을찐저 고라신아 화 있을찐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 눅10:15 등에 나오는 음부는 맞지 않고 지옥이 맞음
(*) 개역성경은 눅10:13에서 중요한 부분인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를 삭제함

17 ¶ 그 칠십 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23 ¶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5 ¶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26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27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

(*) 개역성경 눅10:21의 후반부는 완전한 의역이고 오역임
(*) 개역성경은 눅10:27 등 여러 곳에서 혼을 영혼이나 목숨으로 오역함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28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니
30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32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36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37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8 ¶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39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40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8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

(*) 개역성경은 눅10:40에서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로 의역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여 문장의 명백한 뜻을 알기 어렵게 함

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니
4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1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시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4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5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세 개를 빌려 다오,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이 닫혔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9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

를 도와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6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눅11:2, 4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눅11:8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번역함

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12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13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14 ¶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 *마귀*는 말을 못 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 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15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며
16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였으나
17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집이 집을 대적하여 분열되면 무너지느니라.
18 내가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너희가 말하니 만일 사탄도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19 또 내가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22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4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15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17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 개역성경은 눅11:14-20에서 말 못하는 마귀를 벙어리 귀신으로 번역하고 바알세붑을 바알세불로 오역하며 우두머리를 왕으로 오역하고 여러 곳에서 '~에 힘입다'를 '~을 힘입다'로 오역함

23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24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지나가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25 와서 그 집이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26 그때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오므로 그 영들이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27 ¶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였으나
2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30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31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은밀한 곳이나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23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24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26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 개역성경은 눅11:24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11:26에서 사악한 영을 귀신으로 오역하고 눅11:28에서 '그러하다'를 삭제하며 눅11:31-32에서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삭제함

눈이 단일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36 그러므로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네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37 ¶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그분께서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38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39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 부분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40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42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 채소들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과하는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43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윗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4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45 ¶ 그때에 율법사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46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지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2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43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 있을찐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 가라사대 화 있을찐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 개역성경은 눅11:36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하고 눅11:42에서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오역하며 눅11:44에서 저주의 대상을 삭제하고 '평토장하다'로 의역하며 눅11:45에서는 '하심이니이다' 같이 알기 어렵게 번역함

기에 힘든 짐들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고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48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50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라.
52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54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제 12 장

1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그때에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2 덮어 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 있을찐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 붙어 여러가지 일로 힐문하고
54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제 12 장

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 눅11:53-54는 축약을 많이 하여 뜻을 알 수 없고 눅12:2에서 보듯이 능동태와 수동태 구분이 안 됨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4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7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8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11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행정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만 할지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3 ¶ 무리 중의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6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

전파되리라
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이 앗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 개역성경은 눅12:8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17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19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22 ¶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24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실을 잣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28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 개역성경은 눅12:19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영혼이나 마음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12:27에서 핵심 부분을 삭제하고 여러 곳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31 ¶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34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5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36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뒤 나아와 그들을 섬기리라.
38 그가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39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4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42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42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왕과 왕국을 임금과 나라로 번역하고 눅12:31에서는 하나님을 삭제함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43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46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 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47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48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49 ¶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50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51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52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다섯 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되리라, 하시니라.
54 ¶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55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붊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 개역성경은 눅12:46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하고 중요 부분을 삭제하며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을 생략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56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57 참으로 그러하도다.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 ¶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네가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직무 수행자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59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떠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3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4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6 ¶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7 그때에 그가 자기 포도원지기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 삼 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8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 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 네게 이르노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 개역성경은 눅13:6에서 보듯이 주어 관형어, 부사어 등을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13:7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8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9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11 ¶ 보라, 열여덟 해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신 뒤
13 그녀에게 안수하시매 즉시 그녀가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14 회당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일해야만 할 여섯 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매
15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야,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17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니라.
18 ¶ 그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19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20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
8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0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 개역성경은 눅13:11에서 병약하게 하는 영을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13:15에서 '너 위선자'와 '너희'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눅13:18 등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국을 무엇에 비할까?
21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데
23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25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27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29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인데
30 보라, 마지막인 자들로서 처음이 될 자들도 있고 처음인 자들로서 마지막이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31 ¶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무엇으로 비할꼬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22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29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성경 단어의 의미상 맞지 않고 대언이 맞음 (계19:10; 겔37:4-12 참조)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34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가 오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1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2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므로

3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셨으나

4 그들이 침묵하매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시고

5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6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다시 그분께 대답할 수 없었더라.

7 ¶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8 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은 경우

9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네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기 시작할까 염려하노라.

10 오히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2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고 눅14:5는 아들이 아니라 나귀가 맞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2 ¶ 그때에 그분께서 또한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게 보답할까 염려하노라.
13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14 그러면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15 ¶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16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
17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18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19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며
20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하므로
21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에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13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 개역성경은 눅14:13 등 여러 곳에서 병신이라는 말을 사용함
(*) 개역성경은 눅14:12 등 많은 구절에서 단복수를 바르게 표기하지 않고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여 비문을 만듦

22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5 ¶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6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30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31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34 ¶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35 그것이 땅에도 거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찐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

(*) 개역성경은 눅14:29에서 보듯이 축약과 의역이 심함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로 던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 15 장

1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3 ¶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8 ¶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1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 그들 중 작은*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13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아들이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 다 하시니라

제 15 장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1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 개역성경 눅15:7은 어순과 비교 관계를 불분명하게 번역하여 뜻을 알기 어려움

(*) 개역성경은 눅15:10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14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15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16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17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19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20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22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25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26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 개역성경은 눅15:17-21 등 많은 구절에서 임의로 축약을 하고 의역을 하여 성경 단어들의 보존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함

27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29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30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31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 16 장

1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므로*
2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무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3 그때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5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16 장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 개역성경은 눅16:2 등 여러 곳에서 '너에 대해'를 '네게 대하여'로 이상하게 번역하고 16:3-4에서는 '청지기 직분'에서 '청지기'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눅16:5 등에서 빚지다를 지다로 오역함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6 그가 이르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하매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오십 *말*이라고 적으라, 하고
7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하매 청지기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 *석*이라고 적으라, 하였더라.
8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맘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리라.
10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11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맘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4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으매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16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17 또 율법의 일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얼마나 졌느뇨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 개역성경은 눅16:1-12에서 보듯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쉬우니라.
18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19 ¶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20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22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6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27 그때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28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29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30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
18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

(*) 개역성경 눅16:18은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다'라고 오역하고 눅16:24는 고통을 고민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 눅16:23 등에 나오는 음부는 맞지 않고 지옥이 맞음

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 17 장

1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2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3 ¶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4 그가 만일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5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8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9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10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 17 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찐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 눅16:31의 '권함을 받다', 눅17:4의 '죄를 얻다' 등은 오역임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11 ¶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13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매
14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매
15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7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18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0 ¶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21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원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할찌니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

(*) 개역성경은 눅17:19 등에서 '온전하게 하다'를 '구원하다'로 오역하여 몸의 치유를 영적 구원으로 오해하게 만듦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26 노아의 날들에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28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29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33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37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제 18 장

1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찌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 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 롯의 처를 생각하라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 (없 음)
37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 18 장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 눅17:34-37은 휴거를 말하는 구절이 아님
(*) 개역성경은 눅17:34, 36에서 나쁜 의미의 '붙잡혀 가다'와 좋은 의미의 '남겨지다'를 바르게 번역하지 못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눅17:36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말아야 할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였으나
4 그가 한동안 *그 청을* 들어주려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9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2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 개역성경 눅18:7은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를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로 오역하여 문장의 뜻과 앞뒤 관계를 알기 어렵게 함

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16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하시니

21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므로

22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3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24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25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27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 개역성경은 눅18:20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니라, 하시니라.
28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서
30 이 현시대에서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시니라.
31 ¶ 그 뒤에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32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며
33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으나
34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35 ¶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37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매
38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39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히 있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40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41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33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5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37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38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41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눅18:41에서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를 '보기를 원하나이다'로 번역하여 대답의 형식을 완전히 의역함

4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43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므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제 19 장

1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저기를* 지나가시더라.
2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3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으므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4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5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6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7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11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12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

42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9 장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 눅19:4의 'sycomore tree'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나무임
(*) 개역성경은 눅19:12에서 주어와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등 중요 단어를 임의로 삭제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편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자기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14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16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17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18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19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20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21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2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23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24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므나를 빼앗아 십 므나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25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 므나가 있나이다, 하더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 개역성경은 눅19:16, 18에서 '벌다'를 '남기다'와 '만들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눅19:17 등 26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함
(*) 달란트, 므나 등은 달러처럼 외국 화폐 단위이므로 고유어 수사가 아니라 한자어 수사로 세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일 므나, 이 므나 식으로 써야 함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8 ¶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9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 곁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어린 수나귀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므로
32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모든 일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33 그들이 그 어린 수나귀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어린 수나귀를 푸느냐? 하매
34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는
35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수나귀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36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37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되 이제 올리브 산의 내리막까지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강력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38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39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의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므로
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26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

(*) 개역성경은 눅19:30에서 어린 수나귀를 나귀 새끼로 부정확하게 번역함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41 ¶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42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네 날에 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들이 네게 오리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45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였으나
48 온 백성이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을 수 없었더라.

제 20 장

1 그 무렵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2 그분께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네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4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5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46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제 20 장

1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5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 개역성경은 눅19:42-45 등 여러 곳에서 임의로 축약하고 의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대언자로 확신하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7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9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 *포도* 철이 되매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 중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11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매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므로
12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13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나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는
15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16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르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므로
17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13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16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17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뇨
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 개역성경은 눅20:9에서 '그 뒤에 그분께서'를 삭제하여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와 주어를 불분명하게 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 개역성경 눅20:16의 '말아지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19 ¶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므로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20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였으나
23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새겨진 글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을 수 없었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침묵하니라.
27 ¶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28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둔 채 죽되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것과 관련하여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30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27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현시대에는 'Caesar'를 카이사르라고 배우므로 가이사를 고쳐야 하는데 개역을 개정한 개역개정도 여전히 가이사라고 씀(바로, 애굽 등도 파라오, 이집트로 번역해야 함)

아이 없이 죽었으며
31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그 일곱 사람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않은 채 죽었으며
32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36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37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 주었나니
38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아 있느니라, 하시매
39 ¶ 그때에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질문을 더 하지 못하더라.
4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42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44 그런 까닭으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는데 그러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라.
45 ¶ 그때에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37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40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41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45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 개역성경 눅20:38은 큰 오역임
(*) 개역성경 눅20:40의 '음이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자리와 잔치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47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 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 21 장

1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 ¶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6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7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8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9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10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광경들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12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손을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제 21 장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7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8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9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

(*) 개역성경은 눅21:8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개역성경의 '그'는 누구인가?)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13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14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15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6 또 부모와 형제들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주겠고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할 것이며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20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곳의 황폐함이 가까이 온 줄 알라.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 이날들은 원수 갚는 날들이니 이로써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23 더욱이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2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25 ¶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26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27 그때에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31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33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35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36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37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38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 안에 계시는 그분께 아침에 일찍 가더라.

제 22 장

1 한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3 ¶ 그때에 열두 명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매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7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제 22 장

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책을 의논하매

(*) 눅21:33은 말씀 보존 약속인데 여기의 말씀은 단어를 말하므로 반드시 '말씀들'(단어들)이 되어야 함

(*) 개역성경은 눅22:2에서 보듯 '함이더라', '함일러라' 등 전혀 쓰이지 않고 뜻을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함

5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므로
6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7 ¶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오매
8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예비하라, 하시니
9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11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12 그러면 그가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13 그들이 가서 보니 *모든 것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므로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 시간이 되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 ¶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5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2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13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Passover라는 말은 유월절도 되고 유월절 어린양도 되므로 눅22:11, 15 등에서 구분해서 번역해야 함
(*) 개역성경은 눅22:19에서 보듯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자주 삭제함

20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21 ¶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자기들 중에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24 ¶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까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또한 다툼이 있으므로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 은인이라 불리지만
26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자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27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28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30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31 ¶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32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33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34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4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 개역성경은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단복수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데 눅22:32에서 '네 형제들'을 '네 형제'로 번역하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함

하시고
3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 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36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짐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또한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시매
38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39 ¶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40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45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되 열두 *제자* 중 하나로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5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38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1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 개역성경은 눅22:43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마 25:41 참조)

(*) 개역성경은 눅22:47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다가오더라.
48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49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는
50 ¶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51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52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니라, 하시더라.
54 ¶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55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므로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으나
56 그가 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57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자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하매
60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61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의 앞에 서서 와서
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50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눅22:49-60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축약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62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63 ¶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64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65 그 밖의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더라.
66 ¶ 날이 밝자 곧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67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69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으리라, 하시니
70 그때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므로
71 그들이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 23 장

1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바른길에서* 떠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3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4 그때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

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71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 23 장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

(*) 개역성경은 눅22:65처럼 많은 구절을 축약하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함
(*) 눅22:66의 세 그룹은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장로들과'를 '장로들 곧'으로 오역함

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5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기를,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 전역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니
6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7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하였음을 알고는 곧바로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8 ¶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9 그때에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11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13 ¶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1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백성을 *바른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15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8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였는데

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6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없 음)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 개역성경은 눅23:8, 15 등 여러 곳에서 임의로 의역을 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눅23:17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19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20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21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24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25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었으나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로써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27 ¶ 백성 및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이 여자들은 또한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더라.
28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29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로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21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23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4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눅23:27에서 문장 구조를 바꾸고 애통하다를 의역함
(*) 개역성경은 눅23:30-31에서 보듯이 축약, 의역, 오역이 심함

그분과 함께 끌려갔는데
33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34 ¶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
35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36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와서 그분께 식초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38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39 ¶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40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42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가 여섯 시쯤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아홉 시까지 이어졌고
45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46 ¶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찌어다 하고
36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

(*) 개역성경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눅23:33의 갈보리를 해골로 번역함
(*) 개역성경은 눅23:46 등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영혼으로 오역함

47 한편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48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49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50 ¶ 보라, 공회원으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더라.
51 (바로 그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몸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더라.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53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싼 뒤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54 그 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55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이 어떻게 놓였는지 지켜본 뒤
56 돌아가서 향료와 기름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제 24 장

1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료를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2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3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4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
5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

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9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52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54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제 24 장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뵈지 아니하더라
4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 개역성경은 눅23:52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쓰지 않고 눅23:53 등 여러 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8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9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하니라.
10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는데
11 저들은 그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13 ¶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16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18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대언자이셨는데
20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그분이* 정죄받아 죽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 가서 구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3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19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 개역성경은 눅24:12, 18 등 여러 곳을 의역하고 축약하여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눅24:19에서 보듯이 주어, 부사어 등을 삭제함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요,
22 참으로 우리 일행 중의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23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또한 보았다고 하였으며
24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참으로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25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26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27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28 그들이 자기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분께서는 더 가려는 것같이 하시므로
29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날이 저물어 가고 낮이 거의 다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31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33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같이 모여,
34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29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 개역성경은 눅24:28 등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him을 예수로 의역하고 존칭 접미사 '님'을 붙이지 않아 그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35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고하더라.
36 ¶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37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4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41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43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45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사 그들이 성경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47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48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49 ¶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37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 개역성경은 눅24:44를 순서대로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눅24:47에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의역하여 오역함

50 ¶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신 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51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52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50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51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52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 개역성경은 눅24:51의 각주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니'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승천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동일한 저자 누가는 행1:2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자신이 기록하였다고 분명히 말함
(*) 개역성경은 눅24:53 등 여러 곳에서 아멘을 삭제함

요한복음

제 1 장

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 ¶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

요한복음

제 1 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 개역성경은 요1:2 등에서 예수님을 '그'라고 하여 그분의 신성을 약화시킴

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9 ¶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21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그들이 묻되*,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므로
2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니
23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24 보내어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더라.
25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즉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27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28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이루어졌더라.
29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25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찐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 개역성경 요1:18의 '독생하신 하나님'(only begotten God)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애용하는 심각한 오역이며 사본들의 99%는 요3:16, 18처럼 '독생자'(only begotten Son)가 맞음을 확증함

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30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31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33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5 ¶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매
37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38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므로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열 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42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십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으며 증거하다는 동사는 우리말에 없고 증언하다가 맞음
(*) 개역성경은 요1:38에서 보듯이 주어, 부사어, 관형어 등을 임의로 삭제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43 ¶ 그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44 한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새다 출신이더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48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므로

49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매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며

51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 2 장

1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 2 장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 마16:17의 '바요나'에서 보듯이 요1:42에서 베드로는 요한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이며 게바는 번역하면 돌임

(*) 개역성경은 요1:51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3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5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으므로
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주매
9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12 ¶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13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15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

3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

(*) 영어 wine은 문맥에 따라 포도즙이나 포도주로 번역되는 이형동의어이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신다는 것을 볼 때 가나 혼인 잔치와 주의 만찬에 사용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임

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18 ¶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 한편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25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제 3 장

1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2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제 3 장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개역성경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개역성경은 요2:23, 3:2 등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4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8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9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4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獨生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 개역성경은 요3:7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단복수 구분을 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우리말에 '증거하다'라는 동사는 없으며 '증언하다'가 맞음(요3:11)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9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20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 ¶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23 ¶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24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5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하매

27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

(*) 개역성경은 Jordan을 많은 곳에서 요르단이 아니라 요단으로 번역하여 독자들이 현시대의 그 지역을 알기 어렵게 함(애굽, 바로도 이집트, 파라오로 바르게 번역되어야 함)

(*) 개역성경은 100여 회나 증언하다를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로 오역함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32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 장

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2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3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4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5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깝고
6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이더라.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 장

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육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개역성경은 요3:36처럼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요4:1-2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여 본문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8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9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11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이까? 하매
1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14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 네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19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시니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

(*) 개역성경은 요4:9에서 보듯이 단복수 구분을 거의 하지 않고 요4:11에서처럼 중요 단어를 삭제하고 축약함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2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27 ¶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28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때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31 ¶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였으나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 개역성경은 요4:23-24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오역을 하고 진리를 진정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요4:31-33에서처럼 주어, 관형어, 접속 부사 등을 삭제함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35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37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38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39 ¶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40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하므로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시매
41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42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43 ¶ 한편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44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45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46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예하였느니라
39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43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 개역성경은 요4:42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 개역성경 요4:45의 '음이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47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4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49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므로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51 이제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니
52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므로
53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제 5 장

1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 한편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는데
3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제 5 장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 개역성경은 요4:51-54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며 문장을 축약하고 의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요5:3 등 여러 곳에서 절뚝발이, 병신 등의 비속어를 사용함

이더라.
5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7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10 ¶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11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니
1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나
13 병 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15 그 사람이 떠나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17 ¶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

5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12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

(*) 개역성경은 요5:5-6 등 많은 곳에서 문장을 축약하고 의역하며 요5:13에서처럼 '음이라', '임이라' 등 오늘날 뜻을 알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요5:18에서처럼 '~를 인하여'로 오역함

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26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28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29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32 ¶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34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35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36 ¶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9 ¶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42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44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

(*) 개역성경은 요5:30 등에서 아버지를 삭제하고 요5:36 등 여러 곳에서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라는 동사를 너무 많이 사용함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제 6 장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3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4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5 ¶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7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8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9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10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한편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

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제 6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

(*) 개역성경에는 요5:44에서 보듯이 '께로부터', '께로서' 등 현시대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옴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 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하나도 잃지 않게 하라, 하시므로
13 제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어서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14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15 ¶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16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
17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며
18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19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므로
21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즉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22 ¶ 그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23 (그러나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일이 있은 뒤에 디베랴에서 떠난 다른 배들이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께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요6:11-24를 보면 개역성경의 의역과 축약이 얼마나 심한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음

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28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31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3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느니라.

33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4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개역성경은 요6:26에서 보듯이 표적, 기적, 이적을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요6:30 등 여러 곳에서 '나로', '너로', '우리로' 등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개역성경은 요6:33에서 '주는 자'를 '주는 것'으로 오역함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41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42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4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45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46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48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 개역성경은 요6:39에서 아버지를 삭제하고 요6:47에서 핵심 단어인 목적어 '나를'을 삭제함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5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5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59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더라.
60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매
61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마24:35 말씀이 증언하듯이 개역성경 요6:63의 '말들'은 반드시 복수로 번역해야 함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65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67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8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 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71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열두 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제 7 장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2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3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4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제 7 장

1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 개역성경은 요6:64 등 여러 곳에서 '이러라', '함일러라', '하심이라', '음이더라' 등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씀
(*) 개역성경은 요6:69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8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 ¶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그때에 올라가시되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11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였고
12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14 ¶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17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20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 개역성경은 요7:17 등에서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개역성경은 요7:20 등 여러 곳에서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번역함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규례*를 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24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자가 아니냐?
26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에 대해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9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30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1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랴? 하니라.
32 ¶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3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찌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리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
35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는가?
36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37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40 ¶ 그러므로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다, 하니
41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42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43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44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45 ¶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

(*) 개역성경은 요7:39에서 중요 부분 삭제하고 오역함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대언이 맞음(계19:10; 겔37:4 참조)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이다, 하니
47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48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었느냐?
49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느니라, 하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제 8 장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2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4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5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6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7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8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

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 8 장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 개역성경은 요7:53-8:11에 '어떤 사본에는 7:53부터 8:11까지 없음'이라는 각주를 붙여 이 본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12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
13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하매
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그러나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
19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20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 개역성경은 요8:16 등에서 아버지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요8:17 등에서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를 수십 번이나 사용하여 '증언하다'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함

기 때문이더라.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22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26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므로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27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0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였음이러라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개역성경은 요8:21 등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으며 요8:29에서 중요 단어인 아버지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33 ¶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39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40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므로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43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

(*) 개역성경은 요8:33에서 보듯이 씨를 자손으로 의역하고 '자유롭게 되다'를 문법에 맞지 않게 '자유케 되다', '자유하다'로 씀

(*) 개역성경은 요8:41에서 '한 아버지'를 '아버지는 한 분'으로 오역함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5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48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4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2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55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 개역성경은 110회 이상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를 앞날을 내다보는 선지자로 오역함

(*) 개역성경 요8:56은 전체 문맥상 조상이 아니라 아버지로 번역되어야 함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 하였느니라, 하시니
57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제 9 장

1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2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3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4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6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7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8 ¶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9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제 9 장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 요8:58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는 어떤 시점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로 번역해야 함
(*) 개역성경은 요9:8 등에서 앞뒤 문장을 연결하여 의미를 밝혀 주는 접속 부사 '그런 이유로'를 임의로 삭제함

기를, 내가 그라, 하니라.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11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1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14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 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15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보나이다, 하니
16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17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20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21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10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저희가 전에 소경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17 이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18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

(*) 개역성경은 요9:16 등에서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며 문장을 축약하고 의역함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24 그때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하니
25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26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27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매
28 그때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지만 이자에 관하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 개역성경은 요9:22 등 여러 곳에서 '함이러라',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 전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요9:31 등에서 여러 부분을 축약하고 오역함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33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34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35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36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38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39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40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 10 장

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2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4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내어 보내니라
35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제 10 장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 개역성경은 요9:35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성을 나타내는 인자(사람의 아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다를 절하다로 오역함
(*) 요10:2-15에는 반드시 양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되어야 함

5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리라.
6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12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양들을 흩어 버리느니라.
13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 개역성경은 요10:16을 오역하고 축약하며 요10:18에서 특정한 명령을 도덕적 규범인 계명으로 오역함

19 ¶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20 그들 중의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들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 수 있느냐? 하더라.
22 ¶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23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24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31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33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 개역성경은 요10:29-32에서 보듯이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많이 삭제함

(*) 개역성경은 요10:33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참람함으로 오역함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릴 수 없거든
36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하였다 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에 대해 너희가 말하기를, 네가 신성모독 한다, 하느냐?
37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38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39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시고
40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도다, 하더라.
42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제 11 장

1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2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3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4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 11 장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지 않고 요11:4 등 여러 곳에서 '~로'처럼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많이 씀

리라, 하시더라.
5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6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7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니
8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나이까? 하매
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낮에 걸으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10 밤에 걸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11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12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13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1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16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18 한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십오 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19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20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 개역성경은 요11:11에서처럼 '그를 잠에서' 같은 중요 단어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요11:13, 20 등에서 보듯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 '님'이라는 존칭 접미사를 쓰지 않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존경을 약화시킴

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더라.
21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므로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28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그녀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30 한편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는데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때에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기 위해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32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 개역성경은 요11:21, 32 등 여러 곳에서 주(Lord)를 삭제함
(*) 개역성경 요11:26의 '무릇'은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며 '누구든지'로 번역해야 뜻이 명확함
(*) 개역성경은 요11:33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 마음 등으로 오역함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36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37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더라.
3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4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43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때에 그분을 믿었으나
46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47 ¶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 개역성경은 요11:42 등 많은 곳에서 '~이' 혹은 '~가'를 '~로'로 문법에 어긋나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48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49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50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51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52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53 이에 그들이 그 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
5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셔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55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56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 전 안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57 한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측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제 12 장

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제 12 장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

(*) 개역성경은 요11:51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대신 말하다'를 뜻하는 '대언하다'를 '미리 말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요11:56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여 그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2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10 ¶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11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12 ¶ 그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13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14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오되 나귀의 어린 수나귀 위에 앉아서 *오느니라*, 함과 같더라.
16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 개역성경은 요12:9-10 등 여러 곳에서 '함이러라', '음이더라', '것임이라' 같이 사전에 없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었더라.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18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또한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19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서 가는도다, 하니라.
20 ¶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21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매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23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26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에 하늘로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찌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요12:27 등 여러 곳에서 혼을 마음으로 오역함

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33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
34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3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37 ¶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38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니 이것

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뢰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 개역성경은 요12:38의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에게 들은 바'로 오역하여 말씀의 전달 방향을 바꿈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41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말들이더라*.
4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43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44 ¶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7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2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제 13 장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 개역성경 요12:40 등 여러 곳에서 '음이더라', '함일러라', '것임이라'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함
(*) 개역성경은 요13:2에서 중요 부분인 시간적 배경을 삭제함

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5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6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8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9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2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 개역성경은 요13:3에서 보듯이 '께로부터', '께로서' 등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함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18 ¶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1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22 그때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23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25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27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28 그런데 상에 앉아 있던 *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 개역성경은 요13:18에서 보듯이 본문을 의역하고 축약하여 원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듦
(*) 개역성경은 요13:21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 마음 등으로 오역함

29 이는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30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31 ¶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33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것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34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36 ¶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므로

37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3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 14 장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임의로 삭제함

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5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

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 개역성경은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오역하고 요 14:11-13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고 축약함

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15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17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8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21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2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 개역성경은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위로자(Comforter)를 보혜사로 오역하고 요14:24에서 보듯이 말과 말들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하시리라.
27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2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니라.
31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렇게 나도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제 15 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제 15 장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

(*) 개역성경은 요15:2 앞부분의 중요 내용을 오역함
(*) 개역성경은 요15:4-5에서 '거하다'가 아니라 '붙어 있다', '있다'로 달리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13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14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17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

(*) 개역성경은 요15:7 등 여러 곳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요15:10 등 여러 곳에서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오역함

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21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24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둘 다를 미워하였느니라.
25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즉,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 16 장

1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3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

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제 16 장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 개역성경은 요15:26 등에서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같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 개역성경은 요15:26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역함

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5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6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도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12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15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 개역성경은 요16:11에서 통치자를 임금으로 오역하고 요16:14를 크게 오역하며 요16:16에서는 핵심 내용을 삭제함

17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니

19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묻느냐?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21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는 즉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25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오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었으므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

(*) 개역성경은 요16:21 등 여러 곳에서 '~으로 인하여'를 문법에 어긋나게 '~을 인하여'로 오역하고 요16:23에서 번역 순서를 바꾸어 크게 오역함

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28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30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33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제 17 장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5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 17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 개역성경은 요16:30의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를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로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요17:1 등 많은 구절에서 '아버지의' 같은 관형어와 주어 및 목적어 등을 삭제하고 의역하며 축약함

6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 무엇이든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 개역성경은 요17:11을 크게 오역하고 요17:17에서 '아버지의'를 삭제함

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21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4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제 18 장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 18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

(*) 개역성경은 요17:21 등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아버지를 삭제하고 요17:22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삭제하여 문장을 축약함

나가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2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넘겨*받은 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므로
4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5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셨는데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6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지므로
7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8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9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벴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11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그때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뒤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14 한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직무 수행자(officer)를 하속 등으로 오역함

15 ¶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16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매
17 그때에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18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19 ¶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21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하시더라.
24 그런데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었더라.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었는데 *그가*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16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 개역성경은 요18:19 등 여러 곳에서 교리를 교훈으로 바꾸고 요18:23에서 보듯이 임의로 크게 의역함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7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28 ¶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취해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29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30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31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
32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33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37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8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 개역성경은 요18:36-37 등 여러 곳에서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오역하여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게 함(마6:10; 눅1:31-35 참조)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38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39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는 관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40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제 19 장

1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으며
2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
3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4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6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므로
7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제 19 장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 개역성경 요19:2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8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9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주께서* 위로부터 네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네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12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13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 바닥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14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 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니
15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그때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17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느니라.
18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19 ¶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 개역성경은 요19:15에서 보듯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못 박으소서'를 '못 박게 하소서'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위에 붙였는데 *그것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더라.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에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21 그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22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23 ¶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그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24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25 ¶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으므로
26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27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 개역성경은 요19:28에서 '성경기록이 성취되다'를 '성경으로 응하게 하다'와 같이 이상하게 번역하고 구절 전체를 크게 축약하고 의역하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꿈

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31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32 그때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33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37 또 다른 성경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38 ¶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39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져왔으므로
40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41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으므로
42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沈香)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 개역성경은 요19:38 등에서 예수님께 존칭 접미사 '님'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 대신 '예수의 시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지 못함
(*) 개역성경은 요19:40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제 20 장

1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그때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3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4 이렇게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무덤에 다다른 뒤
5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6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7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8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9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10 이에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 그러나 마리아는 슬피 울며 돌무덤 밖에 서 있다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12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13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갔으나 그들이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14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제 20 장

1 안식 후 첫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8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 개역성경은 요20:2, 13 등에서 복수인 '그들'을 단수인 '사람'으로 오역하고 요20:12에서도 '예수의 시체'라고 하여 그분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음

1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랍보니여,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1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하니라.
19 ¶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매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 이날 곧 안식 후 첫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 개역성경은 요20:17 등 여러 곳에서 '아니하다'를 '못하다'로 오역하고 요20:23 등에서 '죄들'같이 중요한 단어의 복수를 살리지 않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6 ¶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30 ¶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21 장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4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21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 개역성경은 요20:30에서 앞으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확증하는 '진실로'를 삭제하고 또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를 삭제하며 요21:1에서처럼 심하게 의역을 함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8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이백 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고 왔는데

9 그때에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바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므로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큰 물고기들이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백 쉰세 마리가 있더라. 모든 것이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이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15 ¶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 개역성경은 fish를 요21:5-6에서는 고기로, 그 뒤에서는 생선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함

(*) 요21:15-17은 어린양들, 양들처럼 복수로 표현해야 함

(*) 마16:17에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요21:15-17에서 베드로는 요한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임

먹이라, 하시고
16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7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18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19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0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16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 개역성경은 요21:20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번역하여 주어를 빼고 시제를 오역하였으며 요21:23도 축약하고 의역하여 뜻이 명확하지 않음

24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25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24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개역성경은 요21:24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 대신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를 사용하여 오역하고 요21:25에서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의역하며 아멘을 삭제함

사 도 행 전

제 1 장

1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2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3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5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6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사 도 행 전

제 1 장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행1:4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행1:6을 완전히 오역하며 행1:10 등 여러 곳에서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11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12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13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14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15 ¶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백이십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16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17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18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19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20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

21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22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5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指路)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數) 가운데 참예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행1:12)

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23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 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맛디아더라.
24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사
25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26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맛디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제 2 장

1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곳에 있었는데
2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으매
4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5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6 이때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7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
9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

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저희가 두 사람을 천(薦)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24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 2 장

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 개역성경에 40여 회 나오는 방언은 사투리를 뜻하는 오역이고 다른 나라 언어 즉 타 언어가 맞음
(*) 개역성경은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하여 현시대의 그 지역을 알기 어렵게 함

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11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12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13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14 ¶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15 지금은 겨우 낮 세 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17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20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23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시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 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14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 개역성경에 160여 회 나오는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성경 단어의 용례상 맞지 않고 대언이 맞음(계19:10; 겔37:4-12 참조)

24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25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27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29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 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30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31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33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 개역성경 행2:31의 음부는 맞지 않고 지옥이 맞으며 행2:31은 '저'가 아니라 '그의 혼'이 되어야 함
(*) 개역성경 행2:27의 '것임이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37 ¶ 이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38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40 또 그 밖의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41 ¶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42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43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44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46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제 3 장

1 한편 아홉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2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 3 장

1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 개역성경은 행2:41, 43 등에서 혼을 빼거나 사람으로 의역함(여기의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킴)
(*) 개역성경은 행3:2 등 많은 구절을 크게 의역하고 축약함

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4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6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8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9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10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11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12 ¶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16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 개역성경은 행3:3에서 '구제물을 요청하는 것'을 '구걸하는 것'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3:10-11, 16 등 많은 곳에서 본문을 의역하고 축약함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 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19 ¶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20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21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22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3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4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26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4 장

1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 4 장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 개역성경의 행3:19는 심각한 오역임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여 문장의 앞뒤 연결을 알기 어렵게 만듦

이 그들에게 와서는
2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3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오천쯤 되더라.
5 ¶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7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8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9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심문을 받는다면
10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11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3 ¶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14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15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2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道) 전함을 싫어하여
3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예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9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3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 개역성경은 행4:5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의 행4:9는 심각한 의역임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16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17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20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21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 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22 병 고침의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23 ¶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24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25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26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27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28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

의논하여 가로되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24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

(*) 개역성경은 행4:16에서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지 않으며 행4:24에서 주를 대주재로, 행4:25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족속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오역함

려 하였나이다.
29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30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31 ¶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32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34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36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37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 장

1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나이다
29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 장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 개역성경은 행4:30 등에서 거룩한 아이 [즉 아들]을 종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4:32 등 여러 곳에서 혼을 마음, 영혼, 뜻으로 번역함
(*) 개역성경은 행4:36을 권위자로 번역하여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함

감추었느냐?
4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5 아나니야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7 세 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8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9 그때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10 그때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11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12 ¶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13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14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주께 더해졌더라.)
15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였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16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 개역성경은 행5:5 등에서 숨(ghost)과 혼(soul)을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행5:16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17 ¶ 그때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서
18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 두었으나
19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20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22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전적으로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보매 안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니라.
24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과 수제사장들은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사도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25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어 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므로
26 그때에 경비 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28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29 ¶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23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27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

(*) 개역성경은 행5:19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5:22 등에서 직무 수행자를 관속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5:24 등에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을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행5:28 등에서 교리를 교훈이나 '교'로 오역함

하느니라.
30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31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33 ¶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34 그때에 한 사람 곧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35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 하는지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같이 자랑하니 사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37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39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러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40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41 ¶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간 밖에 나가게 하고
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좇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

(*) 개역성경은 행5:31 등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통치자를 임금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삭제하고 문장을 축약하여 의역하며 행5:41에서처럼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하지 않음

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42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제 6 장

1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2 그때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床)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3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5 ¶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8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9 ¶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10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11 그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매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제 6 장

1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1 사람들을 가르쳐 말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 개역성경은 행6:3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하거나 삭제함

12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14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15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제 7 장

1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2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4 그때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6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사백 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7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8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 7 장

1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

(*) 개역성경은 행6:13 등에서 신성모독을 거스르다, 참람하다, 훼방하다 등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7:2에서 보듯이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히브리식 호격인 '사람들아'를 삭제함

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덟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족장을 낳았느니라.
9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10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시매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11 한편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으나
12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13 또 두 번째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14 그때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일흔다섯 혼을 부르므로
15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16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였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18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19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20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21 버려진 뒤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22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23 그가 정확히 사십 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9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11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15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21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3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 개역성경은 행7:8 등 여러 곳에서 족장을 조상으로 오역하고 king을 행 7:10에서는 왕으로, 행7:18에서는 임금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함
(*) 개역성경은 애굽과 바로를 이집트와 파라오로 번역해야 함

24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25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27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28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 그때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31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32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그때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33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34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35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시매
36 그가 사십 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27 그 동무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 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 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 개역성경은 행7:30 등 여러 곳에서 주(Lord)를 삭제하고 또 여러 구절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삭제하고 의역하여 축약함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37 ¶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며
38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39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40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매
42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43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47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40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 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 몰록의 장막과 신(神)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 개역성경은 행7:37 등 여러 곳에서 주(Lord)를 삭제함
(*) 개역성경 행7:42의 선지자는 대언자들이 되어야 함
(*) 개역성경 행7:45는 의역과 축약이 심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음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49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50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51 ¶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52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53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55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57 그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59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60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49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90여 회 나오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대조를 알기 어렵게 함(계14:14 비교)

(*) 개역성경은 행7:59 등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영혼으로 번역함

(*) 행7:59에서 '하나님을 부르며'가 있어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

제 8 장

1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2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3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4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5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6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7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 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8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10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11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12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13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14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제 8 장

1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래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 개역성경은 행8:7 등 여러 곳에서 부정한 영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행8:13처럼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지 않고 또 표적을 큰 능력 등으로 오역함

보내매
15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16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17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므로
18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20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21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23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24 그때에 시몬이 응답하며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26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27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

15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17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25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아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마25:41 참조)
(*) 개역성경은 Gaza를 가사로 번역하여 현시대의 가자 지구를 알기 어렵게 함

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므로
30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31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32 그가 읽은 성경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으므로*
34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35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6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38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40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니라.

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 (없 음)
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欣然)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 개역성경은 행8:33 등에서 '그의'를 삭제함으로써 마1:1 등과 연계하여 '그의 세대'의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행8:37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행8:38-39에 사용된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침례가 맞음을 보여 줌

제 9 장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3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4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5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6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7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서 있었으며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9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 ¶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야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야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12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야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13 그때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제 9 장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 개역성경은 현시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행9:2 등 여러 곳에서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번역해야 함
(*) 개역성경은 행9:5-6 등 여러 곳에서 주(Lord)를 삭제하고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삭제함
(*) 개역성경은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14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15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하매
18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19 음식을 받으매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20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21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23 ¶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24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25 그때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

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행9:24의 '그 계교'는 심한 의역임

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27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28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29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30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31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32 ¶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33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 병을 앓아 팔 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34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즉시 일어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36 ¶ 한편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37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매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 줄 것을 청하니
39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팔 년이라
34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38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39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 개역성경은 행9:31에서 보듯이 여러 단어들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행9:32 등 여러 구절에서 '걷다'(walk)와 '지나다니다'(pass throughout)를 '행하다'로 오역함

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 주었으나

40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41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 있는 그녀를 보여 주니

42 그 일이 온 욥바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그 뒤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제 10 장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2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3 하루는 낮 아홉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4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5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6 그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7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두 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8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제 10 장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 개역성경은 행10:3-4에서 angel을 일관성 없이 사자와 천사로 번역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마25:41 참조)

9 ¶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 지붕에 올라가니라.
10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11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13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으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15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 일이 세 번 이루어진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라.
17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18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묻더라.
19 ¶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20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21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22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

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육시더라
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15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 개역성경은 행10:19에서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10:21 등 여러 곳에서 감탄사 '보라'(behold)를 삭제함

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23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24 그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 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25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26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27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28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29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매
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33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34 ¶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4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30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 개역성경은 행10:28 등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고 의역함
(*) 개역성경은 행10:30 등 여러 곳에서 금식을 삭제함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35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36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7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38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
39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시되
41 온 백성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 주셨느니라.*
42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43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44 ¶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매
45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46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 개역성경의 증거하다는 사전에 없고 증언하다가 맞음(행10:42)
(*) 개역성경 행10:43에서 '힘입다'는 앞에 '을'이 아니라 '에'가 와야 함(이런 사례가 성경 전체에 심히 많음)
(*) 개역성경에 40여 회 나오는 방언은 사투리를 뜻하는 오역이고 다른 나라 언어 즉 타 언어가 맞음

47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48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매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제 11 장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2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3 이르되,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4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5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네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르므로
6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7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8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9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 이 일이 세 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11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12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제 11 장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3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 개역성경은 행11:11 등 여러 곳에서 독자의 시선을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 집중시키는 수사적 장치인 감탄사 '보라'를 삭제함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14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같이 하셨으므로
16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17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18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9 ¶ 한편 스데반과 관련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20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22 ¶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24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25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9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 개역성경은 행11:14에서처럼 많은 단어들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으며 행11:19에서 보듯이 '~을 인하여'로 오역하고 행11:24에서처럼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26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27 ¶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28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29 그때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30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 장

1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3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4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5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7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체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8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네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음을 받게 되었더라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 장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일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숫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 행12:4의 시기는 유월절 이후의 무교절 기간이므로 이스터가 맞음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함(이상하게 행12:7은 사자, 12:8은 천사로 번역함)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9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10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11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12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 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15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리므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17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19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매 간수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20 ¶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숫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 개역성경은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고 의역함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으로 먹고살았기 때문이더라.
21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22 군중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매
23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24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 13 장

1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四分領主)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2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3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4 ¶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5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6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7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8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 13 장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마25:41 참조)
(*) 행12:25의 ministry는 일관성 있게 사역으로 번역되어야 함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9 그때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계시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12 그때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13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14 ¶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16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20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사백오십 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21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주셨다가
22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사백오십 년간)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 개역성경은 행13:15 등에서 히브리식 호격인 '사람들아'(men)를 삭제함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23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24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25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26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27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28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29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31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32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6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29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 개역성경은 행13:22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를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13:22, 33 등에서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사역형 동사를 사용함

(*) 개역성경은 행13:24, 33 등에서 중요 부분을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함

바와 같도다.
34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35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36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37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38 ¶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39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40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41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42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43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44 ¶ 그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 하면서 말하므로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찌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2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 개역성경은 행13:34, 42 등에서 중요 부분을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많은 구절을 오역하고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삭제하여 축약하고 뜻을 알 수 없게 번역함
(*) '힘입다'는 부사격 조사 '에'를 취하는 동사이며, '나로', '너로', '그로', '거룩한 자로' 등의 표현도 문법에 맞지 않음

46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50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51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52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제 14 장

1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3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4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므로

5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습격하매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1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 14 장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4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 개역성경 행13:47은 심각한 오역이며 행14:5는 축약과 의역이 심함

(*) 개역성경은 행14:2 등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6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7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8 ¶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9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으므로
11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12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13 그때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14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15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6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8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9 ¶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

6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메라 하더라
13 성 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 개역성경은 행14:12에서 쓰스, 헤메 등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함
(*) 개역성경 행14:13에서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맞음
(*) 개역성경은 행14:17을 크게 오역함

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20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21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22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23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24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
26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27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28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제 15 장

1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2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3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

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20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 15 장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 개역성경은 행15:2, 4, 6에서 보듯이 많은 단어들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자기들'을 '그'로 번역하여 큰 혼동을 가져옴

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4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5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6 ¶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7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멜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11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12 ¶ 그때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15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16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 개역성경은 행15:7 등에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호격 표현인 '사람들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행15:9를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행15:12 등 여러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관성 없이 번역함

을 세우리니
17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18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19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21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22 그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25 한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26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27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28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29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26 (25절에 포함)
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 개역성경은 행15:23에서 '사도와 장로인 형제들'로 번역하여 이 일의 주체 중 하나인 형제들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행15:24에서 핵심을 빼서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하며 또 행15:24 등에서 혼을 마음으로 오역함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0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헤어진 뒤 안디옥으로 가서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넘겨주니

31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 위안*의 말*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32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33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35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36 ¶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39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40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매 그는 실라를 택한 뒤 떠나서

41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제 16 장

1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찌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 (없 음)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제 16 장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행15:34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행15:36을 의역하고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15:40에서 번역 순서를 완전히 바꿈

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2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4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5 이에 교회들이 믿음 면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6 한편 그들이 두루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7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8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10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13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14 ¶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15 그녀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인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4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1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

(*) 개역성경은 마게도냐, 애굽, 바로, 다메섹, 요단 등을 마케도니아, 이집트, 파라오, 다마스쿠스, 요르단 등 현대식 명칭으로 바꾸어야 함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16 ¶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더라.

17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18 여러 날을 이같이 하므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19 ¶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20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22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23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 넣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24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 넣고 그들의 발을 차꼬에 단단히 채우니라.

25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26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27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28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17 바울과 우리를 좇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와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 개역성경은 행16:16 등에서 부정한 영, 점치는 영 등을 귀신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역함

있노라, 하니
29 그때에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32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33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34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35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36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 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고하였으나
37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38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39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40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제 17 장

1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8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 17 장

1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 개역성경은 행16:31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 행16:31 원문은 너와 네 집을 두 대상으로 구분하므로 '당사자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어 그의 전도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2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세 안식일에 성경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3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4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5 ¶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군중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6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7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8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9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10 ¶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므로
12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13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므로
14 그때에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

(*) 개역성경 행17:5에서 '믿지 아니하는'이 삭제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짐
(*) 개역성경 행17:11의 '신사적이다'는 맞지 않고 '고귀하다'가 맞으며 행17:12는 큰 오역임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15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6 ¶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17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18 그때에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19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2 ¶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23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

24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25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

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16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19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 개역성경은 행17:16 등 여러 곳에서 영을 마음으로 오역하고 행17:22에서도 크게 오역함(행25:19 참조)

(*) 개역성경 행17:21의 '음이더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26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28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29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30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31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32 ¶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3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제 18 장

1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2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 장

1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

(*) 개역성경은 행17:24, 29의 신은 맞지 않고 하나님이어야 함
(*) 개역성경의 행17:26, 30은 오역임
(*) 아덴, 애굽, 바로, 마게도냐는 아테네, 이집트, 파라오, 마케도니아처럼 현대식 명칭으로 바뀌어야 함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3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4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6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하므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7 ¶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8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9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11 그가 거기서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가서

13 이르되, 이자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므로

14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6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년 육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

(*) 개역성경은 행18:6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18:7 등 여러 곳에서 worship을 경배하다가 아니라 공경하다로 오역하고 또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역함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15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17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니라.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들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18 ¶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 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20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21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22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23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24 ¶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기록들에 능통하더라.
25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우므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

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18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치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 개역성경은 행18:21에서 많은 부분을 임의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수리아, 아덴, 마게도냐, 애굽, 바로, 요단 등을 시리아, 아테네, 마케도니아, 이집트, 파라오, 요르단처럼 현대식 이름으로 바꾸어야 함

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27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28 이는 그가 성경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19 장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4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7 그 남자들은 모두 열두 명쯤 되더라.
8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9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 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제 19 장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

(*) 개역성경은 행19:10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삭제하고 침례를 세례로, 타 언어를 방언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19:9 등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12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13 ¶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의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의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15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17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18 *이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19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의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화로 오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20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21 ¶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이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23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24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세공업

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 개역성경은 행19:12에서 악한 영을 악귀로 오역함
(*) 사도행전의 the way는 요14:6에 있듯이 도가 아니라 길로 번역해야 함
(*) 개역성경은 행19:21에서 중요 부분인 '영 안에서'를 삭제함

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 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25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26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27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도다, 하매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니
29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더라. 그들이 바울의 동료들로 *그와 함께* 여행 중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뒤 한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므로
30 바울이 그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31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요청하니라.
32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집회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므로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군중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34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두 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더라.
35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3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34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 동안이나 하더니
35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

(*) 개역성경 행19:27은 순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번역하여 심한 오역임
(*) 개역성경은 행19:32 등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을 '혹은'으로 오역함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36 그런즉 이 일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37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38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요,
39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40 이날의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불려 가서 심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근거가 없도다, 하고
41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 군중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 20 장

1 소동이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2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3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4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5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6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 동안 거기 머무니라.
7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훼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 왔으니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찌라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41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 20 장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 개역성경은 행19:35를 크게 오역하고 주피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쓰스로 번역함

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8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매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삼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11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날이 샐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12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3 ¶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14 그가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간 뒤
15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16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 가능하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17 ¶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18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19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20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 개역성경은 행20:18-19 등 여러 곳에서 원문 순서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하고 축약하여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

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21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22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23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25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26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27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28 ¶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30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31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33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 개역성경은 행20:21 등 많은 곳에서 '~을 향한'을 '~께 대한'으로 이상하게 번역하고 여러 차례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며 행20:28, 32도 크게 오역함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34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35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 주었노라*, 하니라.
36 ¶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37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38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제 21 장

1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2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매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4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5 그 날들을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7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8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

탐하지 아니하였고
34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 21 장

1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

(*) 개역성경은 행21에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등을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 등 현대 지명으로 바꾸어야 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임의로 삭제하여 축약하고 의역함

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일곱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9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 딸 네 명이 있더라.
10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12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13 그때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14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15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16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으며
18 그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거기* 있더라.
19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리매
20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라.
21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20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맞지 않고 단어의 의미상 대언이 맞으며(계 19:10; 겔37:4 참조) 선지자는 맞지 않고 대언자가 맞음(15쪽 각주 참조)

(*) 개역성경은 행21:13, 16, 21에서 순서대로 바르게 번역하지 않음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들었도다.

22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23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어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알게 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질서 있게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알리라.

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26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30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23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 된 것을 고하니라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29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

(*) 개역성경은 행21:24 등 여러 곳에서 walk를 걷다가 아니라 행하다로 오역하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읽게 만듦

(*) 개역성경 행21:29의 '함일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대의 총대장에게 다다르매
32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33 그때에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은 뒤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는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34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므로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성채 안으로 옮겨 가라고 명령하니라.
35 그가 계단 위에 왔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군사들에게 들려 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 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37 바울이 성채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38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사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므로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40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므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제 22 장

1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2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조용히 하므로 그가 이르되,)
3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장에게 들리매
32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37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제 22 장

1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

(*) 개역성경은 행21:39를 순서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행21:40 등에서 히브리 말을 히브리 방언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22:1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아'(men)를 삭제함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있었노라.
4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5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6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추므로
7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10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 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11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12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야라 하는 사람이
13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네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4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6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7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 개역성경은 행22:5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축약함
(*) 개역성경은 행22:6에서 보듯이 문법에 맞지 않게 '하늘로서', '저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함

15 이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16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17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18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19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알며
20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21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2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 버리라. 그를 살려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23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24 총대장이 그를 성채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기 위해 채찍질로 그를 심문하라고 명하니라.
25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26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하니
27 그때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시민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므로
28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25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행22:18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행22:20에서 순교자를 증인으로 오역함

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니라, 하니라.
29 이에 그를 심문하려던 자들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30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 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 23 장

1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2 대제사장 아나니야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3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4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5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 와 심문을 받노라, 하니라.
7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8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9 큰 아우성이 생기매 바리새인 편에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29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30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제 23 장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훤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

(*) 개역성경은 행23:1 등 여러 곳에서 문법에 맞지 않게 '오늘날'이라고 번역하고 행23:6에서 '~로 인하여'가 아니라 '~을 인하여'로 오역하고 단복수를 거의 구분하지 않음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10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를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채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11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12 날이 밝으매 유대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13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마흔 명이 넘더라.

14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15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채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17 그때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18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19 그때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

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 하여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 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 개역성경은 행23:12, 14, 15 등에서 크게 의역을 하고 본문을 축약함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행23:14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게 묻되, 네가 내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매
20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21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마흔 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22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네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세 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24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25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26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28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29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30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각하께 그를 보내며 또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31 그때에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가
32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 두어 그와 종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마병 칠십 명과 창군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 개역성경은 행23:21에서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민30장에 규정된 서약을 보여 주는 부분을 삭제함

함께 가게 한 뒤 성채로 돌아가니라.
33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35 이르되, 너의 고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제 24 장

1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야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리므로
2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3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께 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5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6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7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8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9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33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領地)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 장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2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6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7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8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 개역성경은 행24:2를 오역하여 의미를 알기 어렵게 만들고, 행24:3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역시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행24:7-8을 크게 오역하고 7절을 삭제하며 8절을 축약함

러하다고 말하니라.
10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에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11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12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13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14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15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16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17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18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19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20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21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심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22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옳다 주장하니라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밖에 못되었고
12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 개역성경은 행24:15에서 핵심 구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행24:18을 축약하고 순서대로 번역하지 않음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 뒤
23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가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24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25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27 그러나 이 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제 25 장

1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3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4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5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 25 장

1 베스도가 도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5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 개역성경은 행24:24에서 믿음을 도로 오역하고 행25:3을 크게 축약함
(*) 개역성경은 행25:2에서 단수인 대제사장을 복수인 대제사장들로 오역함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7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
8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으나
9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10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11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12 그때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니라, 하니라.
13 며칠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더라.
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16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 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8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死罪)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 60여 회 나오는 수제사장을 행25:15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역하고 많은 경우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행25:16을 크게 축약함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18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 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20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21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22 그때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매 바울이 끌려 나오니
24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25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26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심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27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죄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20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 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26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27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 개역성경은 행25:19에서 미신을 종교로 오역함(행17:22 참조)

(*) 개역성경은 행25:26 등 여러 곳에서 문법에 전혀 맞지 않게 '그에게 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행25:27을 크게 축약하여 의역함

제 26 장

1 이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3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4 내가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5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6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8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9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10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

제 26 장

1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

(*) 개역성경은 행26:2-3에서 보듯이 문장을 오역하고 축약하며 행26:8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개역성경처럼 '죽은 사람'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으로 이해할 사람들이 많음)

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12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13 오 왕이여, 정오에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또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14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15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17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18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19 그러므로, 오 아그립바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20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21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23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서 핍박하였고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 개역성경은 행26:20을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행26:22도 크게 축약하고 사전에도 없는 '증거하다'라는 말을 사용함

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24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시므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8 그때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29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30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31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32 그때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제 27 장

1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2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제 27 장

1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야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 개역성경은 행26:23을 크게 오역하고 행26:28, 29에서 '거의', '전적으로' 등을 빼서 의미를 퇴색시킴

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였더라.
3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4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에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하여 건넌 뒤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6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7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8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9 한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10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12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그들의* 태반이 거기서도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에 도달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였는데 베니게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14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15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우리가 *내버려두니라.*
16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도 함께 하니라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음을 허락하더니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성에서 가깝더라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 개역성경은 구브로, 이달리야, 아덴, 마게도냐, 요단 등을 키프로스, 이탈리아, 아테네, 마케도니아, 요르단 등의 현대 지명으로 바꾸어야 함

바람막이로 삼고 달리다가 애를 써서 거룻배를 붙잡으매
17 그들이 그것을 끌어 올리고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는 혹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18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으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19 셋째 날 우리가 배의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21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22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23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24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27 그러나 열넷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28 *물 깊이를* 재서 스무 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열다섯 길인 줄 알았더라.
29 그때에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와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이십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 개역성경은 행27:23 등 여러 곳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오역하고 사탄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기 어렵게 함(마 25:41 참조)

30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들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므로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32 그때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나흘째니
34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5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36 그때에 그들이 다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37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이백칠십육 혼이더라.
38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39 날이 밝으매 그들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40 그들이 닻들을 끌어 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 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41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42 군사들은 죄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44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의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륙 인이러라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

(*) 개역성경은 행27:40-41 등 여러 곳에서 임의로 의역하고 축약함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제 28 장

1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2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더라.
3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4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5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 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6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7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로서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8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
9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서 질병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10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니라.
11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記號)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12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13 거기서부터 돌아서 항해하여 레기

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제 28 장

1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7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11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 개역성경은 수라구사, 아덴, 수리아, 요단, 이달리야 등을 시러큐스, 아테네, 시리아, 요르단, 이탈리아 등의 현대 지명으로 바꾸어야 함

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15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이 광장과 세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18 그들은 나를 심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20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2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2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20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앎이라 하더라
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 개역성경은 행28:17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아'(men)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삭제하고 행28:30에서처럼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뜻을 알기 어렵게 함

24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25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26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27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30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이 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31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9 (없 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행28:29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행28:31 등에서 왕과 왕국을 임금, 나라 등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 마 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5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7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9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

로 마 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 개역성경은 롬1:3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이상하게 4절 끝으로 옮김

로를 받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 개역성경은 롬1:13을 오역하고 롬1:16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며 롬1:17에서 '오직'을 첨가하고 롬1:20을 의역하고 오역함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26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8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31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2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背約)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 개역성경은 롬1:29-32에서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롬1:32에서 심판 대신 정하심으로, 롬2:2-3에서는 판단으로 오역함

생각하느냐?
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오히려 네가 네 강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17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 개역성경은 롬2:9 등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오역하고 '자기' 혹은 '자기들'을 '그'로 축약하여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함(롬2:15)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19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20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21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26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제 3 장

1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3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 3 장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

(*) 개역성경은 롬2:29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을 오역함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8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확언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9 그러면 무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10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심을 폐하겠느뇨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9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

(*) 개역성경은 롬3:7, 9 등에서 보듯이 본문을 많이 축약하고 의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듦
(*) 개역성경은 롬3:12-18에서처럼 '그들의'를 '그'로 적고 주어, 관형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의역함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22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26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27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29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30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 개역성경은 롬3:21에서 '율법 외에'로 크게 오역하고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롬3:30 등 여러 곳에서 '한 하나님'(one God)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오역함

제 4 장

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4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8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10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

제 4 장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 개역성경은 롬4:3-8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주어를 삭제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롬4:9에서 '오느냐?'를 삭제하여 비문을 만듦

(*) 개역성경은 롬4:11을 오역하여 전가의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함

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17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 그는 백 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23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개역성경은 롬4:16, 18 등에서 씨(seed)를 후사나 후손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롬4:22-24에서 주어를 쓰지 않고 능동태로 번역하여 비문을 만듦

제 5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4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1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13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제 5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

(*) 개역성경은 롬5:1에서 '이미 누리는 것'을 '누리자'로 오역하고 롬5:10도 수동태를 쓰지 않아 크게 오역함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5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16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19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0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 6 장

1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 6 장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 개역성경은 롬5:15-16에서 gift를 은사와 선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하고 롬5:18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통치하다', '군림하다'를 '왕 노릇 하다'로 번역함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8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10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 개역성경은 롬6:4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롬6:4-5도 심각하게 오역함

15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 7 장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7 장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 개역성경은 롬6:15에서 율법을 법으로 번역하고 롬7:3-4에서 결혼하다를 '~에게 가다'로 오역함

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11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12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

에게 갈찌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 개역성경은 롬7:14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인 것을 오역함

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17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8 장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8 장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 개역성경은 롬7:16을 크게 축약하고 롬8:1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하며 롬 8:2에서는 '나를'을 '너를'로 오역함

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 개역성경은 롬8:4-15의 영어 단어 'the Spirit'을 성령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영으로 본 것 같으며 롬8:4, 15 등을 오역하고 롬8:12를 축약하고 삭제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 개역성경은 롬8:23, 26에서 신음하다를 탄식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롬8:26-27에서 중보하다를 간구하다로 바꾸어 성령님의 중보(intercession) 사역을 퇴색시킴

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34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6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제 9 장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 9 장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 개역성경은 롬8:37을 완전히 오역하여 원래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롬8:38처럼 많은 단어들의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8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0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12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2 (1절에 포함)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4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 개역성경은 롬9:7을 축약하고 의역함
(*) 개역성경은 롬9:8처럼 수동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롬9:17처럼 갑자기 주어를 삭제하여 비문을 만듦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18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퍅하게 할 자를 *강퍅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20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4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25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26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27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찌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찌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 개역성경은 롬9:19에서 사전에도 없는 허물하다를 씀
(*) 개역성경은 롬9:21에서 '같은'을 삭제하고 롬9:24에서 단복수 구분을 하지 않음

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30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31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32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33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10 장

1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 오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10 장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 개역성경은 롬9:28, 31-32에서 중요 단어들을 빼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롬10:5를 오역함

(*) 개역성경 롬10:7의 음부는 불교·샤머니즘 용어로 성경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음

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 가려는 것이라.)
8 그러나 그것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며
20 더욱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

(*) 개역성경은 롬10:17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오역함

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21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느니라.

제 11 장

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4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7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

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제 11 장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10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 개역성경은 롬11:2에서 중보를 송사로 바꾸어 엘리야의 중보 사역을 보지 못하게 하고 롬11:6에서는 핵심 구 전체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롬11:8에서 '잠들게 하는 영'을 '혼미한 심령'으로 오역함

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11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나니
14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이인 그들을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18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 개역성경에 23회 나오는 감람산, 감람나무는 오역이고 올리브 산, 올리브나무가 맞음(롬11:17-24)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 네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26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31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23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 개역성경 롬11:29는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분으로 적고 롬11:30-32에서는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아멘.

제 12 장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6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1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제 12 장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 개역성경은 롬12:1을 크게 오역하여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받을 만하다'(acceptable)를 '기뻐하다'로 오역하며 롬12:6에서 대언을 예언으로 오역함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13 장

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네가 칭찬을 받으리니
4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13 장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

(*) 개역성경은 롬12:17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하거나 삭제하고 롬13:1에서 보듯이 혼을 사람으로 오역함

하느니라.
6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9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제 14 장

1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느니라.
4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정죄하느냐? 그 종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서게 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음이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다고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하느니라.
6 날을 지키는 자는 주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요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요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나니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니라.
10 그런데 너는 왜 네 형제를 정죄하느냐? 또 너는 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결심하라. 곧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을 놓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또 알기는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으나 다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만일 네 형제가 네 음식 때문에 근심하면 너는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네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람을 멸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악하다 말을 듣게 하지 말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18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에 속한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따르자.
20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라.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것을 먹음으로 걸림돌을 주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를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네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약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22 네가 가진 믿음을 너 자신과 하나님 앞에 간직하라.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3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으면 정죄를 받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 14 장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섬기는 자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나니 그는 서게 되리라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음이니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같다 하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실히 알 것이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요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나니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함이니라
10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11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라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직 이것을 판단하라 곧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이나 실족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또 알기는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으나 다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만일 네 형제가 네 음식 때문에 근심하면 너는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네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람을 멸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악하다 말을 듣게 하지 말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18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속한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따르자
20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라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것을 먹음으로 걸림돌을 주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를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나 네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약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22 네가 가진 믿음을 너 자신과 하나님 앞에 간직하라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3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으면 정죄를 받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 14 장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 개역성경은 롬13:13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롬13:11, 롬14:1을 크게 오역함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7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의 주(主)가 되려 하심이라.
10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1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14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

(*) 개역성경은 롬14:10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역하고 롬14:11의 구약 인용문을 오역하며 롬14:12에서 회계 보고의 정산 과정을 '직고하다'로 오역함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네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20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23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제 15 장

1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2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

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제 15 장

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
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 개역성경은 롬14:15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음식물을 식물로 번역하여 혼동을 가져옴

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6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11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며
12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16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9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 개역성경은 롬15:8, 16에서 심각한 오역을 범하고 사역, 사역자를 수종, 수종자로 오역하며 롬15:12 등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을 열방으로 오역함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18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19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20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2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27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희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 개역성경은 롬15:9-18에서 일관성 없이 열방과 이방인으로 번역하고 24절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롬15:27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함

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3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33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16 장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뵈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4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5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7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

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찌어다 아멘

제 16 장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2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3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 개역성경은 롬15:31 등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게 인사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1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대서(代書)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 식주인(食主人) 가이

(*) 개역성경은 롬16:18, 20 등 여러 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삭제함

가 너희에게 문안하며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뵈베 편에 보내다.

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 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롬16:24 등 총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함

(*) 개역성경은 롬16:25-26의 어순과 수식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뜻을 알기 어렵게 번역함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고린도전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
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
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
를 원하노라.
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
라.
5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6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7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
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8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
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9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 신실하시도다.
1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
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
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
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
다림이라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
님은 미쁘시도다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 개역성경은 고전1:4-5 등에서 명백
한 것들을 오역하고 고전1:10을 크게
축약하여 의역함

12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13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14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5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8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20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12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14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고전1에서 '지혜롭지 못함'을 뜻하는 '어리석음'을 '고집스럽고 둔함'의 의미를 갖는 '미련한 것'으로 크게 오역함

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25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28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9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31 이것은 *그 일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제 2 장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2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3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4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5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제 2 장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 개역성경은 고전1:30 등 여러 곳에서 '~께로서', '~께로부터' 등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많은 곳에서 증언, 증언하다를 증거, 증거하다로 오역함(고전2:1)

6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7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8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10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시느니라.
11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3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개역성경은 고전2:13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하고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음

제 3 장

1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하였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4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5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8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10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13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제 3 장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 개역성경은 고전3:3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고전3:13 이하에서 일을 공력으로 오역함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15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간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20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21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 4 장

1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2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 4 장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 개역성경은 고전3:16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고전4:2를 너무 축약하여 본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함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5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들을 비유로 바꾸어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8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도록 정해진 자들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나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10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11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12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13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
8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3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 같이 되었도다

(*) 개역성경은 고전4:6을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고전4:8 등 여러 곳에서 '통치하다', '군림하다'를 '왕 노릇 하다'로 번역함

14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17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도다.
19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20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또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랴?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7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노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제 5 장

1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2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3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4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제 5 장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 개역성경은 고전5:5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9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11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12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13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제 6 장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3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13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제 6 장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 개역성경은 고전5:7에서 '어린양'을 그냥 '양'으로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고전 5:11 등 여러 곳에서 이해하기 심히 어려운 말들을 사용함

겠느냐?
4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6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소송하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도다.
7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8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며 속여 빼앗되 그 일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9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10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12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14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13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 개역성경 고전6:4는 완전한 오역으로 정반대를 적음
(*) 개역성경은 고전6:9에서 탐색하는 자라고 오역하고 고전6:11-13도 크게 축약하고 의역함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17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19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7 장

1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3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4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5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노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7 장

1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
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 개역성경은 고전6:20에서 '하나님의 것', '너희 영으로'를 삭제하고 고전 7:5 등 여러 곳에서 금식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고전7:5에서 보듯 '너로', '나로', '그로', '사탄으로' 등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수없이 사용함

8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9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11 그러나 그녀가 떠난다 해도 그녀는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13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15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16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17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은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규정하노라.
18 어떤 사람이 할례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니라*.
20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8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11 (만일 갈릴찌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 개역성경은 고전7:17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때에 *머물던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25 한편 처녀들에 관하여는 주께 받은 명령이 내게 없으나 내가 주의 긍휼을 얻어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26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서 벗어나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네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짧으므로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들같이 되고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들같이 되고 구매하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들같이 되며
31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32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나
33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 개역성경은 고전7:28에서 보듯이 너무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의역함
(*) 개역성경은 고전7:31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번역함

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4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않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 자기의 처녀 *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였어도 그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느니라.
38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결혼시키는 자도 *그 일을* 잘하고 있지만 결혼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고 있느니라.
39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하지만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제 8 장

1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2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34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紛擾)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 8 장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 개역성경은 고전7:33에서 보듯이 원문에 없는 말을 임의로 추가하여 의역하고 고전7:39 등 여러 곳에서 사전에도 없는 자유하다를 씀
(*) 개역성경은 고전7:36을 이해할 수 없게 번역함

3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6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7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으므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8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9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제 9 장

1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7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제 9 장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 개역성경은 고전8:4 등 여러 곳에서 '한 하나님'(one God)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오역하고 고전9:1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니라.
3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5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6 또는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7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 떼를 먹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8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10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12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13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찌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7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개역성경은 고전9:11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하고 고전9:13 등을 크게 축약하고 오역함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이같이 해 달라고 이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16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17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직무가 내게 맡겨졌느니라.

18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19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21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23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24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25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찌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17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찌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예하고자 함이라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 개역성경은 고전9:18 등에서 복음, 그리스도 등 중요한 단어를 삭제함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26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27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10 장

1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2 모두가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3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4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6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7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8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10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 10 장

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

(*)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함

11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12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13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14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15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18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느냐*?
20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22 우리가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23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 주지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예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 개역성경은 고전10:13을 크게 오역하고 고전10:20을 샤머니즘 구도에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식으로 심각하게 오역함

는 아니하나니
24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25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26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27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30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느냐?
31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33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제 11 장

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2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 준 대로 그것들을 지키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예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제 11 장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 개역성경 고전10:26의 '것임이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 개역성경은 고전10:32를 심하게 의역함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4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지만
5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10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만 하느니라.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그렇게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털은 덮는 것으로 여자에게 주어졌느니라.
16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1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18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찌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찌니라
11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찌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맞지 않고 대언이 맞음(계19:10 참조)
(*) 개역성경은 고전11장에서 덮다를 쓰다로 오역함(고전11:15는 여자의 긴 머리가 덮는 것임을 보여 줌)

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19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20 그러므로 너희가 한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22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23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 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26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28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29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30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31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19 너희 중에 편당(遍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 개역성경은 고전11:24에서 '받아서 먹으라'를 삭제함

(*) 개역성경에 80여 회 나오는 떡은 빵이 맞음

32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3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찌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제 12 장

제 12 장

1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 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4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5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를 *섬기며*
6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7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10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11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 개역성경은 고전9:11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함
(*) 방언, 예언은 타 언어, 대언이 맞음

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16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17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9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20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21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22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23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24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25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 개역성경에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 개역성경은 고전12:19-23에서 보듯이 여러 구절에서 많은 단어들을 삭제하여 축약하고 의역하여 바른 뜻을 알기 어렵게 함

26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27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29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31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제 13 장

1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2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5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 13 장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

(*) 개역성경 고전13-14의 예언과 방언은 맞지 않고 대언과 타 언어가 맞음

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10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11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같이 나도 알리라.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제 14 장

1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2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3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4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5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6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7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에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

도 폐하리라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 14 장

1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 개역성경은 고전14에서 많은 단어를 삭제하여 축약하고 7절처럼 의역함

하면 피리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9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10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12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13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14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15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16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17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18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20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12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찌니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 개역성경 고린도전서 13, 14장의 예언과 방언은 대언과 타 언어가 맞으며 고전14:19는 오역임
(*) 개역성경 고전14:12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임

21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22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25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26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27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29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있을지니
31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 씩 대언할 수 있느니라.
32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33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찌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찌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

(*) 개역성경 고전14:21의 구약 인용(사 28:11-12)은 바르게 번역되지 않음 (신구약 말씀을 일치시키지 않음)

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34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35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36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다다랐느냐?
37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38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둘지니라.
39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40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제 15 장

1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3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4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5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

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제 15 장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 개역성경 고전14:35의 '것임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 개역성경은 고전14:37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함

들은 잠들었느니라.
7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8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9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1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11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12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14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15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16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17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18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19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 개역성경은 고전15:15 등 여러 곳에서 100여 회나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많은 구절에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단수 처리함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3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24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에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시리라.
25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26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28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29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느냐?
30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31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33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

(*) 개역성경 고전15:29 등 여러 곳에서 100여 회 나오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맞음

을 부패시키느니라.
34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35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37 또 네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38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39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40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41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42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43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44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45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6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47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8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 개역성경은 고전15:37-38 등에서 몸을 형체로 오역하고 고전15:45에서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을 '산 영'으로 심각하게 오역함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49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55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제 16 장

1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 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3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제 16 장

1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

(*) 고전15:47-49는 땅과 하늘을 비교하므로 개역성경처럼 흙이 되면 안 됨
(*) 개역성경은 고전16:2를 크게 오역함

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5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이제 너희에게 가서
6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수도 있으리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8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9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10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12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13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14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15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16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17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18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 이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17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 개역성경은 고전16:18 등 여러 곳에서 영을 마음, 영혼 등으로 오역함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20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21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22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 주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찌어다

(*) 개역성경은 고전16:19에서 복수인 '자기들'을 '그'로 번역하여 누구의 집인지 애매하게 만듦(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 개역성경은 고전16:22, 24 등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을 삭제함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고린도후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
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
를 원하노라.
3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
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
니라.
4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
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
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
는 것같이 그렇게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
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
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
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7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
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
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8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
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
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
념하고
9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
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노라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
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
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
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같은 고난
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예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
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
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 개역성경은 고후1:9 등 여러 곳에서 '나로', '너로', '그로', '우리로' 등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함

10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 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13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같이 너희가 심지어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14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15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 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17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8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느니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21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17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 개역성경은 고후1:14 등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기쁨을 자랑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고후1:12, 17, 19 등을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22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23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하노니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24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제 2 장

1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3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기쁨을 얻어야만 할 자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4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5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6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7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 2 장

1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 개역성경은 고후1:23 등 여러 곳에서 혼과 영을 영혼으로 오역하고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9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썼노라.
10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11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12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나
13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15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16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 내겠느냐?
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 3 장

1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2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3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 3 장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

(*) 개역성경은 고후2:13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 마음 등으로 오역하고 고후2:16-17처럼 많이 삭제하고 의역하여 본래 뜻을 알기 어렵게 함

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5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6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7 그러나 돌들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10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더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11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거든 남아 있는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느니라.

12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13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15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 개역성경은 고후3:6에서 사역자를 삭제하기도 하고 글씨 대신 의문이라는 이상한 말로 번역함

(*) 개역성경 고후3:6의 '것임이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임

17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18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제 4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2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6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7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9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10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 4 장

1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 개역성경은 고후4:2에서 걷다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고후4:10에서처럼 주를 삭제함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13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으므로 말하노라.

14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15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16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17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18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제 5 장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2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3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4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5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3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5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 5 장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 개역성경은 고후4:13에서 영을 마음으로 오역하고 고후4:18을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8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9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10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6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 개역성경은 고후5:8 등 여러 곳에서 확신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고후5:12를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 수 없게 만들며 고후5:17에서는 핵심 단어인 '모든 것'을 삭제함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 6 장

1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3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4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5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6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8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6 장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 개역성경은 고후6:2를 오역하고 고후6:4에서 사역자를 바르게 번역하지 않으며 고후6:7을 크게 오역함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11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12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13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15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제 7 장

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3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 7 장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 개역성경은 고후6:14에서 핵심 구인 '공평하지 않게'를 삭제하고 고후 6:16에서 거닐다를 행하다로 오역함

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4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7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8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9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11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 개역성경은 마게도냐, 아덴, 요단, 구브로 등을 마케도니아, 아테네, 요르단, 키프로스 등 현대 지명으로 바꾸어야 함(고후7:5)

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14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도다.

15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깊은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16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 8 장

1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2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4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5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 은혜로운 일을 너희 안에서 끝낼 것도 구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과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떪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제 8 장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6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

(*) 개역성경은 고후7:12, 16, 8:4-6에서 크게 오역을 하여 뜻을 왜곡하고 고후8:3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8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11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12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13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14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15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17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느니라.

18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두루 모든 교회들에서 복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 자요,

19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찌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10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찌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14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15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 개역성경은 고후8:14를 크게 오역하고 의역하여 본문의 뜻을 왜곡하고 고후8:16-19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을 오역함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20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비난이 생기는* 것을 피하며
21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22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는데 많은 일에 그가 열심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입증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하므로 그가 지금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느니라.
23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너희와 관련해서 나의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제 9 장

1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일 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3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4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5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2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제 9 장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 개역성경은 고후8:21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하고 고후8:19, 22, 고후 9:4를 크게 오역함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6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7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10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11 *너희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12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13 그러는 동안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제 10 장

1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 10 장

1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 개역성경은 고후9:5, 10, 10:1을 크게 오역하고 고후9:6은 '인색하게와 풍성하게'를 비교하는데 개역성경은 '적게와 많게'로 오역함

를 향해 담대하지만
2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걷는다고 우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하려고 생각하노라.
3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6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7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들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거든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8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9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11 그런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동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12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므로 지혜가 없도다.

2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찐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10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줄 알라
1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 개역성경은 고후10:3 등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고후10:7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고후10:12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오역함

1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는데 *그것은*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14 우리는 마치 우리가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 나가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멀리 너희에게도 갔기 때문이라.
15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해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16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7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18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니라.

제 11 장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3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5 나는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찌니라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 11 장

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 개역성경은 고후10:14-15, 11:2를 크게 오역하고 고후10:4 등 여러 곳에서 '너희가'를 '너희의'로, '우리가'를 '우리의'로, '내가'를 '나의'로 오역함

6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삯을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9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11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12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내가 기회를 끊어 버림으로써 그들 역시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13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15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17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18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

6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9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18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 개역성경은 고후11:15 등 여러 곳에서 사역자(minister)를 일군으로 오역함(ministry, minister 등을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함)

므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우므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20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것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에든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지만) 나도 담대하니라.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고
25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고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26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27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28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30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31 영원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찌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 우리가 약한 것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2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찐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 개역성경은 고후11:20처럼 구절의 단어들을 삭제하고 축약하며 의역하고 고후11:27 등 여러 곳에서 금식을 삭제함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33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 12 장

1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5 이러한 자에 관하여는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7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9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33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 12 장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

(*) 개역성경은 고후11:32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고후12:2, 4, 6은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 고후12:5의 '~를 위하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번역임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11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2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13 나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14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 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15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16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19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우리 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

(*) 개역성경은 고후12:11에서 중요 단어를 삭제하고 고후12:18에서는 걷다를 행하다로 오역하며 고후12:19에서는 '너희를 세우는 것'을 '너희 덕을 세우는 것'으로 오역함

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20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색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 13 장

1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2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4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리라.

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6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7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제 13 장

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 개역성경은 고후13:3-4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존칭인 '그분' 대신 '그', '저' 등으로 번역하여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1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13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찌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찌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고후13:7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하고 고후13:10의 '그러므로'를 '이를 인하여'처럼 이상하게 번역하며 고후13:14 등 여러 곳에서 아멘을 삭제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갈 라 디 아서

제 1 장

1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8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갈 라 디 아서

제 1 장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

(*) 개역성경은 갈1:5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he'를 존칭인 '그분' 대신 '그', '저' 등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13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14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15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17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18 그러고 나서 삼 년 뒤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십오 일을 지냈으나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20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21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으므로
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23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24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제 2 장

1 그러고 나서 십사 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 그 후 삼 년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오 일을 유할새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제 2 장

1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 개역성경은 다메섹, 수리아, 아덴, 구브로, 요단, 애굽 등을 다마스쿠스, 시리아, 아테네, 키프로스, 요르단, 이집트 등 현대 지명으로 번역해야 함

로 올라갔노라.
2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5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은 회의에서 아무것도 내게 더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7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8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셨느니라.)
9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10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11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12 이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

2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

(*) 개역성경 갈2:6-9에는 축약, 의역, 오역이 많음

(*) 개역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접속 부사어 등을 삭제하여 비문을 만듦으로써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13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식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14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16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17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19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 3 장

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 3 장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 개역성경은 갈2:14-15 등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을 이방으로 오역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3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4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5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6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7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8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11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찌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 개역성경은 갈3:1에서 핵심 부분을 삭제하고 갈3:2, 5에서 오역을 함
(*) 개역성경은 갈3:10을 크게 의역하고 갈3:13도 오역함(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음)

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14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16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 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18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19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20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22 그러나 성경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23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중보(中保)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 개역성경은 갈3:16 등에서 씨(seed)를 자손이나 후사 등으로 오역하고 갈3:17에서는 핵심 구인 '그리스도 안에서'를 삭제함

려 함이라.
25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7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제 4 장

1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에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2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3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4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5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9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 4 장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 개역성경 갈3:26은 오역이고 갈4:7은 핵심인 그리스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갈4:4, 6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그분의', '그들의' 등을 '그'로 표기하여 오역함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조금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14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15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18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19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20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라.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23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

(*) 개역성경은 갈4:19에서 '어린'을 삭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역함

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그것들은 풍유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28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29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3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이니라.

제 5 장

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 5 장

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갈5:1의 liberty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임
(*) 개역성경 갈5:4는 심각한 오역임

5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7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10 나는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11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내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12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14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5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6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8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 개역성경 갈5:12는 거세를 요구하는 심각한 오역이며 개역성경은 갈5:16 등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 갈5:18은 이상하게 수동태로 번역하여 글이 꼬임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1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26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제 6 장

1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2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4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리니
5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6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7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8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뿌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제 6 장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 개역성경은 갈5:25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은 갈6:1 등 여러 곳에서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뜻의 신령하다를 써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함

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11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12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13 할례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14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16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찌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아멘

(*) 개역성경은 갈6:14 등 여러 곳에서 '~에 대하여'를 '~를 대하여'로 오역하고 갈6:15에서는 핵심 구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을 삭제하고 갈6:17에서 주를 삭제하며 갈6:18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으로 오역함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 베 소 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8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10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에 베 소 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개역성경은 엡1:4-10을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엡1:11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삭제함

얻었으니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15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16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21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22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제 2 장

1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 2 장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 개역성경은 엡1:12에서 심각한 오역을 범하고 엡1:13-21의 많은 절을 문장의 앞뒤 순서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하고 축약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7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13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 개역성경은 엡2:7, 10 등에서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엡2:10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15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16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17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18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20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시니라.
21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뻐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 가고
22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제 3 장

1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경륜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으리라.
3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4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5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3 장

1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

(*) 엡2:21은 한 건물을 묘사하므로 개역성경처럼 '건물마다'가 되면 오역임
(*) 개역성경은 엡2:22에서 성도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지어져 간다고 오역하고 엡3:1도 오역하며 또 이방인들을 이방으로 씀(엡3:6 참조)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7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8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9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11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12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13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14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15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17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 개역성경은 엡3:7 등 여러 곳에서 사역자를 일군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엡3:9를 크게 오역하고 엡3:14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엡3:5-21을 축약하고 오역하여 제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듦

19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20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21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4 장

1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2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3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5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6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7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9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

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4 장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

(*) 개역성경은 엡4:4-6 등 여러 곳에서 한(one)을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다' 식으로 잘못 번역함
(*) 개역성경은 엡4:11 등에서 예수님을 '그분'이 아닌 '그'로 번역하여 그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14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6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같이 걷지 말라.
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색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20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22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받았으니*
23 너희의 생각의 영 면에서 새롭게 되라.
24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찐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 개역성경은 엡4:16을 크게 오역하고 엡4:17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오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은 엡4:23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으로 오역함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받았으니*
25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26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29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제 5 장

1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3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4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5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6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 5 장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 개역성경은 엡5:1 등에서 follow를 따르다가 아니라 본받다로 번역함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8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9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10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11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15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16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19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20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2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22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 개역성경은 엡5:2, 8 등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 엡5:13은 완전한 오역임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26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9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31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제 6 장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 이것은 네 일이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4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

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제 6 장

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

(*) 개역성경은 엡5:30, 33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엡6:3에서 '장수하리라'는 문법적으로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역임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9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것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11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15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19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20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스도께 하듯 하여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9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 개역성경은 엡6:8에서 사전에 없는 자유하다를 쓰고 엡6:11에서 서다를 삭제하고(엡6:13 참조) 엡6:12를 크게 오역함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21 그러나 내 사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 역시 알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군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찌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엡6:21 등 여러 곳에서 사역자를 일군으로, 신실하다를 진실하다로 오역하고 엡6:24 등 여러 곳에서 아멘을 삭제함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 립 보 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5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10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12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13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

빌 립 보 서

제 1 장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예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

(*) 개역성경 빌1:7, 10, 12는 오역임

박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14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의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15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16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17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치레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19 이는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21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22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23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25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26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찐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 개역성경 빌1:13-14는 오역이고 빌 1:21-26도 의역, 축약, 오역이 심해 뜻을 알기 어려움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28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29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30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2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3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4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5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6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 빌2:6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므로 그 동등함은 강탈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 그분의 것이었지만 '취할 것'이라는 번역은 동등함이 아직 붙잡아서 쟁취할 대상인 것처럼 오해하게 함

11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13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4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15 이것은 너희가 흠 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16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17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니
18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20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21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22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23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즉시 그를 곧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24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 개역성경은 빌2:12를 오역하여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처럼 만들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미 받은 구원을 행위로써 드러내라고 정확히 전달함
(*) 개역성경 빌2:13, 15는 오역임

25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26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27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려 함이었느니라.
29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30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제 3 장

1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3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4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 나는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 3 장

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개역성경은 빌3:3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등을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등으로 오역함

6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0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11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12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15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18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 개역성경은 빌3:9-17을 문장의 순서대로 번역하지 않고 크게 오역함(성경 전체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됨)
(*) 개역성경은 빌3:17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오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19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20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1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제 4 장

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게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3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네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

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제 4 장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 개역성경은 빌3:18-4:3의 많은 부분을 오역하고 빌4:7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으로 크게 오역하여 전혀 뜻을 알 수 없게 만들며 빌4:8도 오역함

을 곰곰이 생각하라.
9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10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12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17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18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19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20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예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찌어다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 개역성경은 빌4:12, 17, 19 등을 오역하고 빌4:13에서는 핵심 구인 '그리스도를 통해'를 삭제함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 빌4:1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 개역성경은 빌4:23에서 의역을 하고 아멘을 삭제함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4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5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7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8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 준 자니라.
9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10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11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골로새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 개역성경은 골1:2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함

12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5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17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18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21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22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 개역성경은 골1:14에서 핵심 구인 '그분의 피를 통해'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골1:16, 20, 22 등 심히 중요한 구절들을 크게 오역함

사역자가 되었노라.
24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26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27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28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29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제 2 장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2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3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 2 장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 개역성경은 골1:23, 25 등에서 사역자를 일군으로 번역하고 골2:2를 크게 오역하며 골2:5 등 여러 곳에서 영을 심령으로 오역함

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7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8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9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10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12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13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17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貶論)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

(*) 개역성경은 골2:9에서 하나님의 신격을 오역하고 골2:11-14를 크게 오역하며 골2:18을 반대로 번역함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20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21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22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23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제 3 장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3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7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8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9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제 3 장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 개역성경은 골2:23을 오역하고 골3:6에서는 중요 부분을 삭제함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11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13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18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19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2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23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1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찌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 개역성경은 골3:15-16을 크게 오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하고 골3:22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단일하다를 성실하다로 바꿈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제 4 장

1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2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3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
4 이것은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방식대로 *말하여* 그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5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6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7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 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8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며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 4 장

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배풀찌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찌어다
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8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 개역성경은 골4:5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오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12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13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되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14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16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18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골4:13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골4:15에서 남자인 눔바를 그 여자로 오역하며 골4:18에서 아멘을 삭제함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2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3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4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5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9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전서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2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 개역성경은 살전1:1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를 삭제하고 살전1:6에서 follow를 따르다가 아니라 본받다로 번역함

10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제 2 장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4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7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10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 2 장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7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

(*) 개역성경은 살전1:10에서 '이미 구출하신'을 '건지시는'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살전2:8 등 여러 곳에서 혼을 영혼, 목숨, 마음 등으로 오역함

러하시도다.
11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노니
12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13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라.
15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16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17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18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 3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하시도다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 3 장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 개역성경은 살전2:12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오고 살전2:19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며 뒷부분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음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3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5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6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8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 기뻐할 때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10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1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군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 개역성경 살전3:5의 '함일러니'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음이더라', '것임이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 개역성경은 살전3:11, 13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13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1 그런즉 형제들아,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넘치게 하라.
2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4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6 아무도 어떤 일에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8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9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10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11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4 장

1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 개역성경은 살전4:8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 등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성령 등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살전4:6-11을 크게 오역하고 축약하여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듦

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3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4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 5 장

1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5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힘쓰라
12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찐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 5 장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 개역성경은 살전4:12에서 정직을 단정으로 바꾸고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8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13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14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15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20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22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23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개역성경은 살전5:19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표현은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음
(*) 개역성경 살전5:21-22는 오역임

24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27 내가 주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살전5:24에서 목적어를 삭제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살전5:27에서 거룩하다를 삭제하고 '~에 힘입다'를 '~을 힘입다'로 오역하며 '읽어 들리라'처럼 이상하게 번역하고 살전5:28에서 아멘을 삭제함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데살로니가후서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4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5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6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9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10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찌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

(*) 개역성경은 살후1:7-10을 오역하고 살후1:10 등 여러 곳에서 증언을 증거로 오역함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11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12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 2 장

1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2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4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6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7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8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2 장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 개역성경은 살후1:11, 2:3-4를 오역하고 살후2:4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등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살후2:8에서 영을 기운으로 오역하고 광채 등을 삭제함

9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1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12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14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16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제 3 장

1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2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3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4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9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3 장

1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2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 개역성경은 살후2:11, 3:1을 오역함
(*) 개역성경은 살후2:15, 17, 3:3-4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부사어, 관형어 등을 삭제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듦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만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8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9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11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12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13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14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15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16 이제 화평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17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찌어다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 개역성경은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살후3:6, 11)
(*) 개역성경은 살후3:11, 16에서 크게 의역을 함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살후3:18에서 '너희 모두'(you all)를 '너희 무리'로 의역하고 아멘을 삭제함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디모데전서

제 1 장

1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
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
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
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
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네게 간
청하여 *네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
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
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
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5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6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
된 말다툼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
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하는도다.
8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
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9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
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
는 자와
10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
의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디모데전서

제 1 장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
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
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
을 내는 것이라
5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늘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
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
지 못하는도다
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
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
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

(*) 개역성경은 딤전1:1 등 여러 곳에서 주(Lord)를 삭제하고 구원자를 구주 혹은 구세주로 번역하며 딤전1:10에서 건전한 교리를 바른 교훈으로 번역함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11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12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13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 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16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8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20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신성모독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는 자를 위함이니
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

(*) 개역성경은 딤전1:12 등 26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딤전1:17에서 '있어지이다'로 이상하게 번역함
(*) 개역성경은 딤전1:20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2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3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6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7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8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10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11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12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14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12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찌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 개역성경은 딤전2:5 등 여러 곳에서 '한 하나님'(one God)을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딤전2:10에서 '여자들'을 '자들'로 오역함

제 3 장

1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3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6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7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9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10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11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13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제 3 장

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찌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 개역성경은 딤전3:11을 '여자들도'로 번역하여 여자 집사가 가능한 것으로 만듦(딤전3에서 지역 교회 목사를 뜻하는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므로 남자만 가능함)

14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는 것은
15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제 4 장

1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3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4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5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6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7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8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9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10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

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제 4 장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火印)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

(*) 개역성경은 딤전3:16을 크게 오역하고 핵심 단어인 하나님을 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거함
(*) 개역성경은 딤전4:1 등에서 마귀들을 귀신으로 오역함

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11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12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13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14 네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네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15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16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제 5 장

1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2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6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어도 죽었느니라.
7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9 육십 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 5 장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2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

(*) 개역성경은 딤전4:12, 5:4에서 중요 단어인 '영'과 '선하다'를 삭제하고 딤전 5:7 등에서 '너로', '나로', '그로', '그들로'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함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10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11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에 빠지기 시작할 때에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
12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14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기 때문이라.
16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18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20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21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22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3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군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 개역성경은 딤전5:12 등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비문을 만들어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듦

23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25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제 6 장

1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3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5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6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7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8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9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10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 6 장

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찌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4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

(*) 개역성경은 딤전6:5를 바르게 번역하지 못해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딤전6:7의 끝부분에서 확실하다를 삭제함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11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13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14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16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7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19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20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21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브루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써서 보내다.

기를 찔렀도다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
17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21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딤전6:15-21에서 중요 단어들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딤전6:21에서는 '너'를 '너희'로 오역하며 아멘을 삭제함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디모데후서

제 1 장

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3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노니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 함이라.

5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6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7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8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10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

디모데후서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3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 개역성경은 딤후1:7-8 등 여러 곳에서 영을 마음이나 영혼으로, 증언을 증거로 오역함

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11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12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네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6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17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
18 그 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매우 잘 아느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2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4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6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17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8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제 2 장

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4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

(*) 개역성경은 딤후2:2 등 26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딤후2:2 등 여러 구절에서 '바로 그것들' 같은 중요 단어들을 삭제하고 딤후2:4-5에서처럼 의역하고 축약함

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6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7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8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9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11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12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13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14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6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17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

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8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4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 개역성경 딤후2:5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 개역성경은 딤후2:15를 오역함

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20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21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4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26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제 3 장

1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4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제 3 장

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개역성경은 딤후2:19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바꾸고 딤후2:26을 오역하며 딤후3:2 등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6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8 한편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10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 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13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14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16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1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

6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9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 4 장

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

(*) 개역성경은 딤후3:16처럼 신약성경에 50여 회 나오는 교리(doctrine)를 가르침이나 교훈 등으로 번역하고 딤후4:1을 크게 오역함

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2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4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6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8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9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0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15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

(*) 개역성경은 딤후4:6을 의역하고 딤후4:16에서 '서다'를 삭제함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오네시보로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21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불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네게 인사하느니라.
2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에베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22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딤후4:18을 크게 오역하고 딤후4:22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을 삭제하고 영을 심령으로 오역함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디 도 서

제 1 장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2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3 자신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4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5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 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네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6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7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8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고

9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10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디 도 서

제 1 장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 개역성경은 딛1:4에서 주와 긍휼을 삭제하고 딛1:9를 크게 오역함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11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도다.
12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14 유대인들의 꾸며 낸 이야기와 진리를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5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16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제 2 장

1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2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3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4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5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6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1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 2 장

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

(*) 개역성경은 딛1:10 등 여러 곳에서 할례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딛1:13에서 증언을 증거로 오역하며 딛1:16을 크게 오역함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7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8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9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게 하며
10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제 3 장

1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3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4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하여 근신하게 하되
7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10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 3 장

1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2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

(*) 개역성경은 딛2:8-15의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오역하며 딛3:4에서 '사람을 향한'을 삭제함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6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네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10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11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가 여행하는 것을 부지런히 도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14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 주기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크레타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

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13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딛3:8, 11을 오역하고 딛3:15에서 아멘을 삭제함
(*) 개역성경은 딛3:13에서처럼 '너로', '나로', '그로', '그들로', '저희로' 등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 레 몬 서

1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
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2 우리가 사랑하는 압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
를 원하노라.
4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
해 네가 품고 있는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
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6 *또 내가 그리함은* 네 믿음을 나누는
일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
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7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네 사랑으
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
라.
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
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네게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네게 간청하
노라. 이런 자 곧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
어
10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청하노라.
11 그가 지나간 때에는 네게 무익하였
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므로
12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
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13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
음으로 인해 결박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14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빌 레 몬 서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
을찌어다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
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
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
도록 역사하느니라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
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
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
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
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
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13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 개역성경은 몬3 등 여러 곳에서 '~로부터'를 '~로 좇아'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몬6, 12-13을 심하게 오역하고 의역함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15 그러므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16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한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18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19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네가 바로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으며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도 네가 행할 줄을 아노라.
22 한편 이 외에도 나를 위해 또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2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에바브라가 네게 문안하며
24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15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찐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찌어다

(*) 개역성경은 몬16을 오역하고 몬25에서 영을 심령으로 오역하며 아멘을 삭제함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 브 리 서

제 1 장

1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4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5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6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8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10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

히 브 리 서

제 1 장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6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찌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숭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 개역성경은 히1:7에서 천사를 바람으로 심각하게 오역하고 히1:8의 첫 부분을 오역함

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이 낡듯 낡아지리니
12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13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14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제 2 장

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3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4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5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6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7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제 2 장

1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5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7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 개역성경은 히2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으며 구약성경 인용문을 구약 본문과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음
(*) 개역성경은 히2:7, 9를 크게 오역함

위에 세우시고
8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9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11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13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14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16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

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찌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 개역성경은 히2:8-11, 16-17을 크게 오역하고 히2:17 등 여러 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번역함(특별히 히2:16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 주는 중요 구절인데 전혀 말이 안 되게 번역함)

이라.
18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제 3 장

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2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같이 하셨느니라.
3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4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5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니라.
7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격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9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11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12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제 3 장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 개역성경은 히3:1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히3:6처럼 기쁨을 자랑으로 대체하고 히3:12를 오역함

13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15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16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17 그러나 그분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18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19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제 4 장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2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3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4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 4 장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 개역성경은 히3:14, 16, 4:2-3을 크게 오역하고 히3:18, 4:6 등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하며 히4:4에서 보듯이 구약성경을 일관성 있게 인용하지 않음(창2:2 참조)
(*) 개역성경은 애굽, 바로를 이집트, 파라오 등 현시대 이름으로 바꾸어야 함

5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6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8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10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13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14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5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말라 하였나니
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개역성경은 히4:6-7에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히4:11에서는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며 히4:14에서는 복수의 하늘들을 삭제하고 의역함

제 5 장

1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2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싸여 있기 때문이라.
3 이런 이유로 그는 백성을 위해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려야만 하느니라.
4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나니*
6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7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8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9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10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12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제 5 장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 개역성경은 히5:2를 크게 오역하고 히5:3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을 의역하여 속죄제라고 함
(*) 개역성경은 히5:9에서 창시자를 근원으로 오역하고 히5:12를 크게 오역함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 6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2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6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7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8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9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 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11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제 6 장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찌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

(*) 개역성경은 히6:6에서 가정법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구원 상실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히6:9를 크게 오역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후에 구원을 상실할 수 없음을 보여 주지 못함

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12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16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17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써 확증하셨나니
18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20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제 7 장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2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

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제 7 장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

(*) 개역성경은 히6:13-19의 많은 부분을 오역함

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십일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6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8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 있다는 증언을 얻은 자가 받느니라.
9 또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십일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11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있었겠느냐?
12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3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14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15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16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17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빎을 받느니라
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17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 개역성경은 히7:5-7, 13-16의 여러 부분을 오역하고 히7:17 등 여러 곳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함

18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하여졌으니
19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21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22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24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25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26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27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28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나 율법 이후에 있게 된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제 8 장

1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

18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찌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 8 장

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 개역성경은 히7:18-19, 23-28에서 중요 단어들을 삭제하고 의역하여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렵게 함
(*)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림(용어를 바로 써야 함. 히7:27 참조)

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2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4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5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6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7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8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10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1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찌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6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7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찌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 개역성경은 히8:5-6을 크게 오역함
(*) 히8:8-12는 렘31:31-34를 인용한 것인데 개역성경의 히브리서 인용문은 구약과 심히 많이 다름(번역자들이 전혀 일관성에 신경을 쓰지 않음)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13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제 9 장

1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으니
2 이는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 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3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4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5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이같이 제정하시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으나
7 둘째 것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들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8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느니라.
9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12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 9 장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 개역성경은 히9:2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주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여 빵을 떡으로 오역함(막2:26 참조)
(*) 개역성경은 히9:8-9에서 중요 부분을 크게 오역하고 특히 희생물을 제사로 오역함

10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느니라.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3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14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15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17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18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19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21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 개역성경은 히9:10, 16-17의 대부분을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히9:12에서 '속죄를 이루신 후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순서를 바꾸어 오역하는데 이런 식의 오역이 서신서 전체에 상당히 많음

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24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25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26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제 10 장

1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3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5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6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찌니라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찌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 10 장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 개역성경은 히9:24에서 히9:12처럼 번역의 순서를 바꾸어 오역함
(*) 개역성경은 히10:5-6에서 보듯이 문장에서 늘 주어를 삭제하고 여러 곳에서 희생물을 제사, 속죄제로 오역함

7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8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9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려도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12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13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15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16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17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8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개역성경은 히10:7-9에서 보듯이 늘 주어를 삭제하고 또 희생물을 제사로 오역함(히10:11 참조)
(*) 개역성경은 히10:16-17에서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음(신구약의 동일 구절을 대조도 안 함)
(*) 개역성경은 히10:9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히10:19에서 지성소를 성소로 오역함

20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23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26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27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28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30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32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33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 개역성경은 히10:29 등에서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을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역하고 히10:30에서는 매우 중요 부분을 삭제하고 구약과의 대조를 하지 않음

34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35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36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37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제 11 장

1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 11 장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 개역성경은 히10:34, 38 등을 오역하고 히11:6에서 하나님을 삭제함
(*) 히10:34의 하늘에 있는 영구한 실체가 히11:1의 바라는 것들의 실체임

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1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12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13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14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15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16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8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 개역성경은 히10:36, 11:13, 33, 39 등에서 promise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히11:10에서 기초를 터로 번역함(foundation)

(*) 개역성경은 히11:7, 11, 14에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함

라, 하셨느니라.
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20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23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24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25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26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27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28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30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31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하셨으니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를 삭제하고 히11:31 등 여러 곳에서 믿다를 순종하다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애굽, 바로, 요단 등을 이집트, 파라오, 요르단 등 현대식 이름으로 바꾸어야 함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33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35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36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 및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37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9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40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12 장

1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3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12 장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 개역성경은 히11:40에서 'without us'를 '우리가 없이는'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으로 오역함(마13:34; 막4:34의 '비유가 아니면'도 이와 동일한 오역임)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5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7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 모두가 징계받는 데 참여하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9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 개역성경은 히12:7, 9, 10을 오역하고 히12:15-16에서는 '두려워하다'를 세 번이나 넣는 등 크게 오역함

16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에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18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20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21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22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23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25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26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27 다시 한 번 더, 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 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느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16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8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 개역성경은 히12:17을 크게 오역하고 여러 곳에서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여 중요 주제인 왕국을 알기 어렵게 만들며 히12:22에서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를 '천만 천사'로 의역함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니라.

제 13 장

1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2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3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4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 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11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제 13 장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 개역성경은 히13:3-6의 많은 부분을 오역하고 히13:9 등 여러 곳에서 교리를 교훈으로 번역함

1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14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15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16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17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계 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18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9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려 함이라.
20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2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23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24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20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

(*) 개역성경은 히13:15를 오역하고 히13:16에서 희생을 제사로 오역하며 히13:18 등 여러 곳에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혹은 착하다로 오역함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5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야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히13:25에서 아멘을 삭제함

야고보서

제 1 장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3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4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6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7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8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9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10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11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12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3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

야고보서

제 1 장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

(*) 개역성경은 약1:12 등 여러 곳에서 '것임이니라',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이 현시대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

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15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17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18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 하라.
20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24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25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27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

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 개역성경은 약1:18의 중요 부분을 오역하고 약1:24를 축약하여 의역하며 23절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약1:25 등 여러 곳에서 사전에도 없는 자유하다를 자주 사용함

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제 2 장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4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성경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9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하므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13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제 2 장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 개역성경은 약2:13 등 여러 곳에서 기뻐하다를 자랑하다로 오역함

14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8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19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22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24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25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使者)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제 3 장

1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 3 장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 개역성경은 약2:19 등 여러 곳에서 '한 하나님(one God)이 계시다'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로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약2:23 등에서 성경기록이 성취된 것을 응하였다고 오역함

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2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3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4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6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7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8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9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10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11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12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 없느니라.
13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禦拒)하며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

(*) 개역성경은 약3:2-4, 7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을 축약하여 의역함
(*) 개역성경은 약3:12-13에서 중요 부분을 완전히 오역함

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18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제 4 장

1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2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5 너희는 성경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6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8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9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 4 장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찌어다 너희

(*) 개역성경은 약4:4에서 '간음하는 남자들'을 삭제함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12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13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14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15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16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제 5 장

1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찌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제 5 장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 개역성경은 약4:10, 15, 5:1에서처럼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역하며 약4:12에서는 재판자를 첨가함

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9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10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12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14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16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6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개역성경은 약5:16의 잘못들을 죄로 오역하여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오해하게 함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19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18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 개역성경은 약5:20에서 보듯이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을 영혼으로 오역함

베드로전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4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5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6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7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8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9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10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

베드로전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대언이 맞음(계19:10; 겔37:4-12 참조)
(*) 벧전1:9는 8절의 이유를 말하는데 개역성경은 이를 보여 주지 못함

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14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15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16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17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18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21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2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찌어다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 개역성경은 벧전1:11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벧전1:12처럼 축약하여 의역하고 벧전1:22에서는 '성령을 통해'를 삭제함

23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24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25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와서
5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6 그러므로 성경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 있느니라.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8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 2 장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6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개역성경은 벧전2:2를 오역하여 구원을 평생을 통해 이루는 과정으로 만듦

1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11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12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14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16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17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18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20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21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 개역성경은 벧전2:12-15, 20을 크게 오역하고 벧전2:21에서는 '우리'를 '너희'로 바꿈

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제 3 장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2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3 너희는 머리를 땋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4 오히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5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8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9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 3 장

1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 개역성경은 벧전3:2, 4, 6을 오역함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11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13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14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15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19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20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21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찐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 개역성경은 벧전3:15, 18을 크게 오역하고 벧전3:21에서 '그 일과 같은 모형'을 삭제함

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22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제 4 장

1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2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3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4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달음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5 그들은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6 이런 까닭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8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9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10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11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제 4 장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4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

(*) 개역성경은 벧전4:1에서 핵심인 '우리를 위해'를 삭제하고 벧전4:5-6을 의역하고 오역함

하는 것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15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16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18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제 5 장

1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

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

제 5 장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 개역성경은 벧전4:12-14를 크게 오역하고 중요 부분을 삭제함

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4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5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11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2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13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11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벧전5:3을 오역하고 벧전5:4에서 왕관을 면류관으로 오역하며 벧전5:10, 14에서 예수님을 삭제하고 벧전5:14에서 아멘을 삭제함

베 드 로 후 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4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5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7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8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9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11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12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베 드 로 후 서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 개역성경은 벧후1:3 등 여러 곳에서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반대로 번역함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13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15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16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 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17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20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제 2 장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제 2 장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

(*) 개역성경에 47회 나오는 예언은 대언이 맞고(계19:10; 겔37:4-12 참조) 벧후1:20-21은 오역임
(*) 개역성경은 '것임이니라',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낯선 표현을 많은 곳에서 사용함(벧후1:21 참조)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2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3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5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7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8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9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10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11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13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기므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3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

(*) 개역성경은 벧후2:10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적 혼동을 가져옴

(*) 개역성경은 벧후2:13 등 여러 곳에서 원문의 문장 순서를 바꾸고 뒤섞어 크게 오역함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14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15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였으나
16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 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17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18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꾀어내기 때문이라.
19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20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21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22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제 3 장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18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19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0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제 3 장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 개역성경은 벧후2:13에서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을 함
(*) 개역성경은 벧후2:18-21의 많은 부분을 크게 오역함

일깨움은
2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5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6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7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8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2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4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 개역성경은 벧후3:4-9에서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크게 오역함
(*) 개역성경은 벧후3:10, 12에서 물질의 원소들(elements)을 체질로 번역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8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 개역성경은 벧후3:17의 중요 부분에서 오역을 범하고 벧후3:18에서 아멘을 삭제함

요 한 일 서

제 1 장

1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4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6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 한 일 서

제 1 장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 개역성경은 요일1:4에서 우리와 너희를 바꿔 쓰고 요일1:7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하며 걷다를 행하다로 오역함

제 2 장

1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4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5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6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7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9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11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12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제 2 장

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 개역성경은 요일2:1에서 변호자를 대언자로 오역하고 요일2:6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바꾸어 교리의 혼동을 가져옴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14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18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2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 개역성경은 요일2:13-14에서 그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고 요일2:16에서 '~께로 좇아 오다' 같은 이상한 말을 사용함

로 그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26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28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 3 장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4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5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 3 장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개역성경은 요일2:28 등 여러 곳에서 확신을 담대함으로 오역하고 요일3:4를 크게 오역함

6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義)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의로우며
8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1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12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13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15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17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 개역성경은 요일3:8-9 등에서 '음이라', '것임이라', '함일러라' 등 사전에 없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요일3:16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오역함

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18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20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2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23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24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 4 장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2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4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0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 4 장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 개역성경은 요일4:3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삭제하여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려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약화시킴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하므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9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1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12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13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14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1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 개역성경은 요일4:9-10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렵게 만듦
(*) 개역성경은 요일4:13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영, 진리의 영을 그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역함

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18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20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제 5 장

1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4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

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제 5 장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 개역성경은 요일4:20을 오역하고 요일4:21에서 문장 순서를 바꾸어 '이 계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게 번역하였는데 이런 식의 번역이 수많은 구절에서 발견됨

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16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찐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 개역성경은 요일5:7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삼위일체 구절을 제거하고 요일5:6을 둘로 나누어 후반부를 요일5:7로 기재함
(*)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하여 뜻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은 요일5:6-11에서 증언을 증거로 바꾸어 오역함

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18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므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19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20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21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개역성경은 요일5:18-19를 오역하고 요일5:21에서 아멘을 삭제함

요 한 이 서

1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2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4 네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5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네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네게 간청하노라.
6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7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8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9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10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너희에

요 한 이 서

1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예하는 자임이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 개역성경은 요이6 등 여러 곳에서 걷다(walk)를 행하다로 번역하여 교리의 혼동을 가져옴

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3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 개역성경은 요이12에서 우리를 너희로 오역하고 요이13에서 아멘을 삭제함

요 한 삼 서

1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같이 네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4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7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9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요 한 삼 서

1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6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7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10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 개역성경은 요삼4-5를 크게 오역함

13 내가 쓸 것이 많았지만 네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14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네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친구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 가며 인사하라.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 개역성경은 요삼14를 오역하고 신약에서 비슷한 구절을 처음으로 요삼15에서 '찌어다'가 아니라 '지어다'로 씀

유 다 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4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5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7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8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유 다 서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 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 개역성경은 유4-5를 오역하고 유7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낯선 육체'를 '다른 색'으로 오역함

10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11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12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니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14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5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그들은*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17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19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20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12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 개역성경은 유12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첨가하고 유16, 18에서 걷다를 행하다로 오역함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23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24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25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찌어다 아멘

(*) 개역성경은 유22-23을 오역하고 유25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첨가함

요한계시록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

2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9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요한계시록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 개역성경은 왕, 왕국을 임금, 나라로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증언을 증거로 오역하며 계1:9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함

있었노라.
10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2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13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17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19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 2 장

1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자 곧 일곱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 2 장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개역성경의 계시록에 7회 나오는 촛대는 등잔대가 맞음
(*) 개역성경 계1:15의 풀무는 오역이고 용광로가 맞음
(*) 개역성경은 계1:18에서 지옥을 불교·샤머니즘 용어인 음부로 번역하고 아멘을 삭제함

것들을 말하노라.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3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9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10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3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

(*) 개역성경 계2:10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름
(*) 개역성경은 계2:9 등 여러 곳에서 신성모독을 훼방으로 오역함

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16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18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21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2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찌라 내가 너희

(*) 개역성경은 계2:15에서 중요 부분을 삭제하고 계2:19에서 행위를 사업으로 오역하며 행위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계2:22 등 여러 곳에서 '그의'와 '자기'를 구분하지 않아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듦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25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26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27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28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제 3 장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2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5 이기는 자, 바로 그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鐵杖)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제 3 장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

(*) 개역성경은 계2:26 등 여러 곳에서 민족들을 만국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계3:5 등 여러 곳에서 '그의'를 '그'로 번역하여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듦

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8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11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14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 개역성경은 계3:14 등 26곳에서 신실함을 충성됨으로 오역하고 beginning을 근원으로 오역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 4 장

1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3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4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왕관을 썼더라.
5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7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제 4 장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 개역성경은 계3:21에서 중요 단어들을 삭제하고 계4:4에서 왕좌와 자리들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4:6-9에서 짐승을 생물로 오역함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8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9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10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11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제 5 장

1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2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3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4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5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6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이 사람 같고 그 네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 5 장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 개역성경은 계4:10에서 왕관을 면류관으로 오역하고 계4:11, 5:6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음

일곱 영이라.
7 그분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8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제 6 장

1 어린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2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매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3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4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7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 6 장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 개역성경은 계5:10에서 왕을 나라로 오역하고 계6:2에서는 왕관을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면류관으로 오역함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5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7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8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9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 하더라.

11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12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고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 개역성경은 계6:8 등 여러 곳에서 지옥을 불교・샤머니즘 용어인 음부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계6의 여러 구절에서 보듯이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 관형어를 임의로 삭제함

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제 7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내가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8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더라.
9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 7 장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개역성경은 계7에서 '봉인하다'를 '인을 치다'로 번역함
(*) 개역성경은 계7:9에서 tongue을 언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오역함

10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11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13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14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17 이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 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제 8 장

1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2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4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5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제 8 장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 개역성경 계7:17의 '것임이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개역성경에는 '함일러라', '음이더라' 등과 같은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

단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지므로 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으며
9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지더라.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11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13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제 9 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2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3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췸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禍),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제 9 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 개역성경은 계8:13에서 천사를 독수리로 오역하고 계9:2에서 용광로를 풀무로 오역함

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4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印)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5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9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갯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12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 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15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 개역성경 계9:7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름

(*) 개역성경은 계8:10-11을 오역하고 많은 곳에서 '그것들의' 같은 관형어를 삭제함

16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이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내가 이같이 환상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더라.
19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치더라.
20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21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제 10 장

1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2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3 사자가 울부짖는 것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4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6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곧 하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제 10 장

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 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4 일곱 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 개역성경은 계9:17을 오역하고 계10에서 보듯이 많은 곳에서 주어, 목적어, 접속 부사어를 삭제함

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7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9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10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제 11 장

1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베 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4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5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6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 11 장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찌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 개역성경은 계10:6-7을 오역하고 계시록에 7회 나오는 촛대를 등잔대로,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오역함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7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8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10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11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13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의 칠천 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더라.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 개역성경은 계11:10을 오역하고 계11:15에서는 '그분의'를 삭제함

(*) 개역성경은 애굽, 바로, 요단 등을 이집트, 파라오, 요르단 등 현시대 이름으로 바꾸어야 함

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 12 장

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이 있더라.
2 그녀가 아이를 배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3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4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5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여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 12 장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개역성경은 계12:7에서 천사를 사자로 오역하여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음을 알기 어렵게 함
(*) 개역성경 계12:1의 면류관은 사각형 판과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름
(*) 개역성경은 계12:5, 13 등에서 man child를 아들로 오역함

8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11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15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16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제 13 장

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더라.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제 13 장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 개역성경은 계13:1에 속하는 '바다 모래 위에'를 계12:17에 붙여서 주체를 요한에서 용으로 바꾸어 놓음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 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마흔 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 그가 신성모독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11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13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14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 개역성경은 계13:4에서 주어를 삭제하고 전체를 바르게 번역하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렵게 함

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제 14 장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2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3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6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륙이니라

제 14 장

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개역성경은 계13:18에서 '어떤'을 삭제하여 참뜻을 알 수 없게 만들고 계14:1에 '어린양의 이름'을 추가하고 계14:4에서는 처녀들을 오역함(고후11:2에서 교회도 처녀로 표현되었고 처녀는 여자만을 뜻하지 않음)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9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하시더라.
14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시니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 개역성경은 계14:8에서 바빌론이 무너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고 계14:13, 15-16을 오역하며 계14:14에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을 바르게 번역함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18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제 15 장

1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2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4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 그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아마포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7 네 짐승들 중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제 15 장

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 개역성경은 계14:19에서 포도를 넣고 발로 으깨어 즙을 내는 틀을 포도주 틀로 오역함(포도를 으깨면 즙이 나옴)
(*) 개역성경은 계15:2에서 중요 단어인 '그의 표'를 삭제함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8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제 16 장

1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2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데가 생기더라.
3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부으매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6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니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8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 쏟아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
9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 16 장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 네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 개역성경은 계16:10 등 여러 곳에서 왕, 왕국을 임금, 나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하여 성경의 중요 주제인 왕국 개념을 알기 어렵게 함(계19:19 각주 참조)
(*) 개역성경은 계15:8, 16:7을 오역함

11 또 자기의 아픔과 헌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13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14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18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19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20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21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일 달란트 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제 17 장

1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제 17 장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 개역성경은 계16:14 등 여러 곳에서 마귀를 샤머니즘 용어인 귀신으로 오역하고 계16:18-21을 의역하고 오역함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3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4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5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6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7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9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니라.
10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12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13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 개역성경은 계17:4를 오역하고 계17:7에서 '그의 탄 바'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여자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14 이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할 것이나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15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16 네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7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그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
18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제 18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2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3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6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제 18 장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

(*) 개역성경은 계17:14에서 '선정된'을 '빼내심을 얻고'로 번역하고,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기리로다'를 추가하여 원문의 구조와 의미를 바꿈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7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든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8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9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로 인해 애통할 것이요,
10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강력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닥쳤도다, 하리라.
11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고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며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고
13 시나몬과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며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14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네게서 떠났으니 네가 결코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15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16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17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리라. 또 모든 선

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

(*) 개역성경은 계18:16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계18:14-15를 크게 오역함

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18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어떤 도시가 이 큰 도시와 같은가!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도시 안에서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20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더라.
21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2 또 하프 타는 자들과 음악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 등잔불 빛이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네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았고
24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제 19 장

1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

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제 19 장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 개역성경은 계18:23-24에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계19:2에서처럼 하나님을 그분이 아니라 그로 번역하여 그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킴

도다, 하고
3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매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8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10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3 두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 개역성경은 계19:10-11을 오역함
(*) 개역성경 계19:12의 면류관은 위에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앞에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관으로 왕관과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적이 없음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16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제 20 장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2 마귀요 사탄인 그 용(龍)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제 20 장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 개역성경은 계19:18에서 사람의 살을 고기로 번역하고 계19:19 등에서는 동일한 단어인 왕을 왕과 임금으로 혼용하며(계17:18 비교) 계19:14 등 14곳에서 아마포(리넨)를 세마포(베)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와 용어의 일관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함

나리라.
4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6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7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9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7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

(*) 개역성경은 계20:4에서 순교자들의 혼들을 마치 두 부류인 것처럼 번역하고(이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도 받지 않아 목 베임을 당한 한 부류의 사람들임) 계20:13 등에서 지옥을 음부로 오역함

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제 21 장

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3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6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7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9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 21 장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 개역성경은 계21:1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이유를 보여 주지 않음
(*) 개역성경은 계21:9를 오역함

주리라, 하고는
10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11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12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14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5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6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17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18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22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세째는 옥수요 네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 개역성경은 계21:17을 오역함(이 구절은 히13:2가 말하듯이 천사가 사람(남자)과 비슷한 크기와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 줌)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23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체이시기 때문이라.
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26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榮光)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 22 장

1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3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4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5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6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7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제 22 장

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

(*) 개역성경은 계21:24에서 핵심 부분인 '구원받은 자들'을 삭제하고 계22:2에서 그 민족들을 만국으로 오역함
(*) 개역성경은 계22:2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를 1절의 강과 연결하여 오역함(그러나 이것은 2절의 생명나무와 연결됨)

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8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9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더라.
12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15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18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개역성경은 계22:14를 오역하고 또 계22:16에서 천사(angel)를 사자로, 계22:19에서 대언을 예언으로 오역하며 계22:19의 여러 부분을 오역함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 개역성경은 계22:20에서 증언하다를 증거하다로 오역하고 계22:21에서 '우리', '그리스도', '너희'를 삭제함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목 차

1부 개역성경 분석

1. 성경 문제 ····· 5
2. 우리말 성경의 역사 ····· 9
3. 두 종류의 성경 본문 ····· 13
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 31
5. 개역성경 분석 ····· 42
6. 개역성경 분석 결론 ····· 110

2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7.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 113
8.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 127
9.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 165
10. 신약 성경 역본 평가 ····· 176
11.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 204
12. 시내 사본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 209
13. 성경과 고문서의 차이 ····· 211
1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 215
15. 용어 정리 ·····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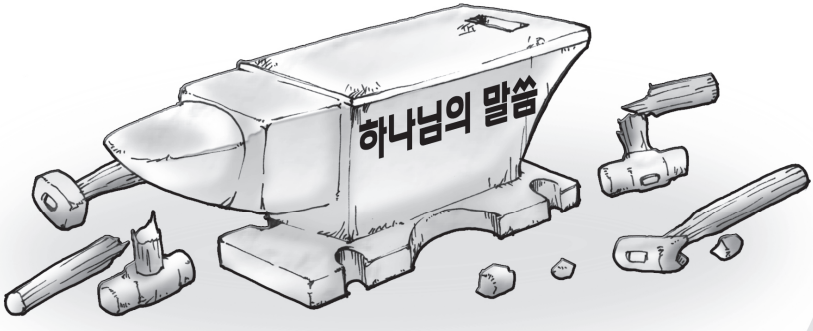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 책은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사실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 따로 출간되던 「개역성경 분석」과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를 합치고 파울러(E. W. Fowler)의 「신약 성경 역본 평가」를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의 진리가 널리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에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라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성경 문제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 성도들처럼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을 완역한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1)]

한국에서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였는데 초기 장로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 성수나 금연/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특히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개역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켰고 따라서 어떤 이가 사도행전 8장 37절같이 전체 구절이 삭제된 사례를 들며 그 이유를 묻거나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2)] 지적하면 그 일을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제대로 입을 열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나 교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른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개역성경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이 성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여러 문제를 안겨 준 성경, 삭제 구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국문법 오류를 수없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을 무오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텨 왔으므로 이로 인해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도

---

1) 이 책에서 언급하는 개역성경은 2011년 말에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이것에 대한 예로는 창1:2의 '하나님의 신'(the God of God)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되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5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3]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4]가 전통적인

---

3)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학에 미친 공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개의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것은 Benson Bobrick의 「Wide As the Waters :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 and the Revolution It Inspired」(Simon & Schuster, April 11, 2001)이다. 이 책은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영어 성경의 역사를 잘 보여 주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한다. 둘째 것은 Alister Mcgrath의 「In the Beginning :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and How It Changed a Nation, a Language, and a Culture」(Anchor, February 19, 2002)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NIV 편집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과 미국말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책 모두 세속 출판사가 출간한 것이므로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므로 가치가 있다. 이 두 책은 모두 www.amazon.com에서 구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교회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의 맹공으로 인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 등의 사역을 통해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진화론은 이미 온 세상에 마치 합리적인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문제로 인해 교회가 쪼개지고 심각한 교리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독자라면 성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같은 성경 본문 문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얻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본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본문은 같으나 번역이 다를 뿐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유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인본적이므로 이런 신학교에서는 이미 현대 역본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을 귀중히 여기므로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성경 문제 자체를 살펴볼 기회를 얻기 어렵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성경 본문 논쟁도 실제로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성경 본문 문제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인 유학생들이 침례교 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에서도 깨어 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개역성경

---

4) 이들은 영국 성공회 학자들로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Revised Greek text) 혹은 '비평 본문'(Critical text)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본문이 되고 있다. 4장은 집중적으로 이들의 사상에 대해 다룬다.

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야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상식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렵게 쌓여가던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한편 이런 현실과 성경 문제의 핵심이 성경 본문에 있음을 인식한 성경 신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부담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수행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펴냈고 꾸준히 교정 작업을 수행했다.

성경 문제의 핵심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원료에 의해 최종 산물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은 원리는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번역의 대본으로 쓰인 신구약 본문과 성경 번역자들의 사상 및 문화적 배경이 최종 산물, 즉 번역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성경들밖에 없었으므로 과연 그런 역본들이 바른지 그른지 비교하고 검토할 대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본들과 뿌리가 다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5]이 출간되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그 결과와 원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번역의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독보적 성경으로 자리를 굳힌 개역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간에 본문 및 교리적 차이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해 준 성경, 로마 카톨릭교회의 허구와 미신을 와해시킨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필자는 개역성경이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안식과 위로를 주었음을 확실히 인정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분석하는 5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번역 면에서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므로 그것의 부족한 면을 부각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양식 있는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

5)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우리말 성경의 역사

우리말 성경의 역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H. R.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선교사들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된 로스(John Ross)로 알려져 있다.[6] 그는 1874년과 1876년에 중국어 성경을 들고 한중 국경 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11년 뒤인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출간하였다. 로스가 스코틀랜드에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 그가 사용한 본문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영국개역성경(*ERV*)과 중국어 성경이었다. 그는 또한 번역을 위해 형식적, 문자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만 통하면 된다는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그가 1877년에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 발간한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라는 소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
2. 그 원고를 그리스어 신약 성경 및 영어 성경[7]과 대조해서 수정한다.
3. 그리스어 성구 사전과 주석을 참조하여 어휘의 통일을 기한다.
4. 문자 그대로의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에 유의하고 조선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살린다.[8]

한편 1882년에 이수정은 일본에서 역시 중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신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였으며 한국 프로테스탄트교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인천에 상륙하면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개역성경>

국내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지 8년 뒤인 1893년에 미국성경협회의 지원을 받아 주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성경 실행 위원회와 성경 번역자 회가 설립되었고 이 두 기구의 주도하에 1906년에 구약 성경이 출간되었으며

6)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 36.

7) 그들이 사용한 영어 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영국개역성경(*ERV*)이었다(나채운, p. 37 주석).

8) 나채운, p. 37.

신구약을 다 담고 있는 한국어 성경(구역)은 1911년 3월에 신구약 3권으로 출간되었다. 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번역한 이 성경은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 성경 역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비평)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한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25판)[9]과 영국개역성경(*ERV*)과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구역 성경의 구약은 영국개역성경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을 가장 중요한 원전 중 하나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미국표준역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JHVH'를 '**주**'(LORD)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여 '여호와'로 표기했다.[10] 사실 미국표준역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이 신성한 '사자음 문자'를 '**주**', 즉 'LORD'로 번역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한편 1938년에는 구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 개역판이 출간되었다. 케이블(E. M. Cable), 스토크스(M. B. Stokes) 등의 미국 사람들과 남궁혁, 김인준 등의 한국 사람들이 개정에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오리겐의 70인역,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25판), 영국개역성경, 미국표준역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이 성경은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거쳐 1961년도에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으로 고정되었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용하며 대다수 성도들이 막연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는 개역성경이다.[11]

간단하게 개역성경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개역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아닌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 본문'(Critical text)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된 영국개역성경과 미국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채운은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 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영국개역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12]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면서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개역성경 문장의 간결성 등은 본문의 정확성을 무시하면서 많은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에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

9) 1898년에 처음 출간된 네슬레의 신약 성경은 27번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네슬레-알란드(혹은 독일식으로는 네슬-알란트) 28판으로 출간되었다(본서에서는 네슬레-알란드로 표기함).

10) 나채운, p. 50.

11) 나채운, p. 57.

12) 나채운, p. 50.

또한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본문 선택과 또 번역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용어 선택을 살펴보면 개역성경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및 믿음의 실행 등에 폐해를 끼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잘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문체와 운율 등을 통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결코 개역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개역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선정된 천주교 편향적 본문과 번역자들의 이교도/샤머니즘 사상으로 인한 번역상의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한 교리의 부패를 지적하려 할 뿐이다.

<표준새번역>

개역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는 동안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를 느꼈다. 또 동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번역을 통해 거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개역성경을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1983년에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표준새번역이라는 새 역본을 발간하였다. 표준새번역은 연합성서공회가 1983년에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과 키텔(R. Kittel)이 수정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Biblia Hebraica*)과 거의 유사한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67/1977, BHS)를 번역의 원전으로 삼아 만들어졌다.[13] 표준새번역 역시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했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번역>

1968년에 대한성서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교회의 연합 작품인 공동번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사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종교일치 운동(Ecumenism)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14] 1962년에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니다(E. A. Nida)와 브래드녹(W. J. Bradnock)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번역 원칙을 제시하였다.[15] 그들은 '형식적 일치'보다는 '동적 일치'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번역 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수용했다.[16] 공동번역의 구약은 1937년도에 발행된 키텔의 Biblia Hebraica

---

13)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서문, 1993. 나채운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 460).

14) 나채운, p. 72.

15) 나채운, p. 72.

3판에서 번역되었으며 신약은 연합성서공회가 1966년에 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1판에서 번역되었다.[17] 이렇게 출간된 공동번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교회가 연합해서 만든 성경 중 둘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의역 성경(Paraphrased Bible)이며 프로테스탄트판과 카톨릭판으로 출간되었는데 카톨릭판에는 외경도 정경으로 들어가 있다.[18]

---

16) 성경 번역에서 '형식적 일치'란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일치하게 번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동적 일치'란 단어 단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상이나 뜻이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신국제역(*NIV*)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런 번역의 원칙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 준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치 봉급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장두만, 목회와 신학, 1998년 6월, 7월)

비평: 장두만 박사의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 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 부분만 '1년 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단어,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시고(축자 영감) 단어, 단어를 보존하시지 단지 뜻만을 보존하시지는 않는다. 성경을 번역할 때 300데나리온이라 두고 그것이 대략 1년 치 봉급이라고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단어 단어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독자들이 그 안에서 뜻과 사상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값싼 소설책이 아니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만화책이 아니다. 이런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책이므로 계속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필자는 결코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이 뜻이나 사상만을 전달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어, 단어를 보존하신다!

17)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서문, 1977.

18) 나채운, p. 75, 나채운은 또한 지난 200년간 로마 카톨릭교회가 한국어 성경을 발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카톨릭교회의 성경관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 10:17).

3

두 종류의 성경 본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의 거룩한 사람들이 직접 쓴 자필 원본으로 성경기록들을 주셨다(벧후1:21).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필 원본에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들었으며 처음의 자필 원본과 그 후의 많은 사본들은 수명을 다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을 담은 사본이 하나도 없으므로 누군가가 현존하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본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면 본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성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 표는 상이한 본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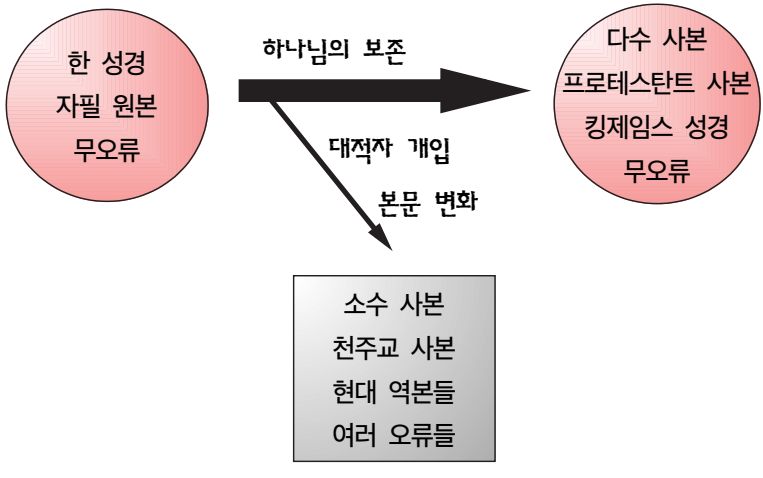
<내용이 완전히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공동/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주께서 …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많은 차이들 중의 일부를 보여 준다.

성경 대적자의 개입

사본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구약 성경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개입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첫 사람 아담을 속여서 사람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은 뱀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은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을 주셨으나 뱀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인본주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정해 왔고 그 결과 현재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하고 있다. 뱀이 늘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사14:12-14; 고후11:13-15). 다음 그림은 이 일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마16:18)는 유대교의 요람에서 탄생되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말씀들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초기 교회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변개하였고 드디어 313년에는 콘스탄틴(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뒤부터 정치와 종교의

혼합물인 로마 카톨릭교회는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교도들의 각종 거짓 교리를 도입하여 순수한 기독교를 변개하였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를 가리켜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불렀다.[19]

이처럼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암흑 속에 가두었으나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 천주교회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들이 기독교로 복귀하게 하셨다. 이때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켜 온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사실과 바른 복음 선포를 위해 바른 성경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 있던 순수한 성도들이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등의 지역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공인(共認) 본문' 혹은 '수용(受容) 본문'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바른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술에 힘입어 온 세상을 휩쓸었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그토록 반대하던 로마 카톨릭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마디로 성경 본문들과 거기서 나온 역본들의 차이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같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필자는 성경의 역사와 주요 교리 등을 다루면서 성경의 변화가 어떻게 교리를 바꾸어 천주교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구약 성경 본문

구약 성경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는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벤 카임 본문, *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거의 모든 성경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소명 의식을 가진 유대인 마소라들이 심혈을 기울여 본문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37년에 칼레는 전격적으로 전통 마소라 본문을 비전통 본문(벤 아세르 본문, *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꾼 뒤, 1929년에 이미 죽은 키테의 이름을 붙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BHK)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대체로 인해 약 20,000개의 수정 사항이 BHK 3판 본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개역성경,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등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구약은 이 BHS를 기초로 하여 번역되었으므로 그 안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어떤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

19)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신약 성경 본문

신약 성경의 경우 로마 카톨릭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약 교회가 지난 1,900년간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 혹은 수용본문)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천주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한편 로마 카톨릭교회는 '소수 본문'만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는다(전체 사본의 1% 정도).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용으로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변질된 내용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두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인 본문을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개악된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한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그 뒤 1898년에 네슬레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티센도르프, 그리고 위마우스의 그리스어 본문을 조합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는 본문을 만들었다.

세 도시 이야기[20]

성경 본문/사본 역사에 대해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본문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금방 인정할 것이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런 본문들의 출처임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또 이집트 본문을 채택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보존과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성경 보존의 원리

세 도시 이야기를 펴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words)[21]을 영원토록

---

20) 세 도시 이야기는 리건(David F. Reagan)이 지은 소책자 「A Tale of Three Cities」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다.

21) 우리말 성경은 'words'를 주로 '말씀들' 혹은 '말들'로 번역했으나 원래 이것은 '글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뜻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상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말들, 즉 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다. 단어들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책과 이 책자에서 '말씀들' 혹은 '말들'이 언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들은 모두 '단어들'을 뜻한다.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며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확인된다. 하나님은 현대학자들의 주장대로 단지 사상만을 보존해 주시지 않고 단어 단어를 보존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 준다.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이 말씀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찾아서 믿고 순종해야 하며 절대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 부패의 원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둘째 원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수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자들이 늘 있다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고후2:17)

둘째 원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부패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역본들이 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성경 부패의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한두 사람이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아 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함

이 두 가지 원리를 합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며 마귀와 그의 천사들 역시 갖은 노력을 기울여 이 말씀을 수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성경이라는 책을 단지 하나의 고대 문서를 대하듯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머(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본문을 비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그런 고대 문헌을 비평하는 장치들이 성경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호머의 책에 있는 실수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책 안에 들어 있는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권능과 사탄의 부패시키

려는 영향 둘 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본들의 증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만큼이나 부정직한 것이 되고 만다.

세 도시의 개관

성경의 보존과 부패 원리에 대해 공부했으므로 이제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세 도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세 도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존재하던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도시들이 성경의 보존과 변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더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한마디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였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는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요 권력의 중심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도시였다. 로마는 특별히 양식과 법률과 전통 등을 강조했다. 전통을 통해서 로마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로마는 성경에 외경이라는 고문서를 첨가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신학 및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한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과학과 교육과 학자들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다. 필로와 오리겐 같은 학자들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그 주변의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바로 현대 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역본들의 기초가 되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다. 동쪽에 위치한 안디옥은 초기 사도들의 활동지였던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안디옥은 대규모 도시였고 사치품으로도 유명했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한 곳이다. 현대 학자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성경들의 근간이 되었다.

이 세 도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세 대륙의 중요한 세 국가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세 도시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예들로 구성된 세 인종을 대표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 도시들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 도시들이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대적자가 그 말씀을 부패시키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된 그

<성경과 관련된 로마 제국의 세 도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것에 순종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 순교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도시이다. 이 항구 도시는 성경에서 '함의 땅'으로 알려진 땅에 있다(시105:23).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설립한 이 도시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주전 1세기경에는 인구가 거의 백만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치하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문학과 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그 안의 대학은 그 당시 철학 및 사상계를 지배하였다. 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오십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수학, 천문학, 시, 의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집트에 위치하긴 했어도 알렉산드리아는 사상과 근간 철학을 살펴볼 때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그리스의 도시였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개방을 표명했으므로 온 세상의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이곳에서 집대성되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 통치 때에는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이들은 곧바로 유대교와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뜯어고친 이른바 알렉산드리아학파를 만들어 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필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유대주의와 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구약 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학문 체계를 설립하여 비유 해석의 아버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학파

사실 필로는 유대 신학자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자라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므로 그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유대교 관련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 철학을 세우기 위해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기초를 세운 '영적 비유 해석'[22]을 이용하여 구약 성경을 왜곡시켰다. 그는 숨겨진 의미 혹은 영적 비유적 의미가 실제의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영적 성경 해석 방법'은 주후 2-3세기의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는 주후 2세기에 판테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으며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로 이어졌다. 이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비유 해석을 으뜸으로 여겼고 그것만을 강조했다. 이 학파 출신으로 학문과 철학과 업적 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리겐(주후 185-254)이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 세속 문헌도 다음과 같이 알렉산드리아학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고도의 학문 연구를 위해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파. 최초의 유명한 지도자들 - 판테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 아래서 이 학파는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절충하는 사상을 따랐으며…알렉산드리아학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학파는 안디옥학파로서 이 학파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

오리겐의 영향

대다수의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오리겐이 훌륭한 사람으로 미화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천재성과 종교적 열심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의 성경 지식과 해석 방법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리겐은 의복 한 벌만 소유했으며 신발도 없었고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모든 시간을 기도와 학문 연구에 바쳤으며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룻바닥에서 잤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

22) 영적 비유 해석이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다르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성경 해석은 앞뒤 문맥이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여 준다. 한편 그는 그 자신의 독특한 교리로 인해 바르지 못한 성경학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부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창조되었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께 복종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며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마귀들도 충분히 형벌을 받은 뒤에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복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편 그는 필로의 '영적 비유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신약 성경을 비유 해석으로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사실 그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위에 열거된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리겐의 영적 비유 해석과 그릇된 교리들을 배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본문 비평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소위 올바른 그리스어 성경을 내느라 노력한 것으로 크게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의 그릇된 교리들과 비유 해석이 그의 성경 본문 비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 역사의 증거는 오리겐이 자기 생각에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음을 보여 준다.

오리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두 개의 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1844년 시내산 수도원 쓰레기 더미에서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시내 사본(Aleph, 알레프)과 1481년 로마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B)이 여기에 속한다. 바로 이 두 사본이 1611년 이후에 나온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된 부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초가 되었다.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구성한 독본을 지지했으므로 현대 학자들은 현대 역본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패된 본문'의 증인으로 주저 없이 그를 들고 있다.

오리겐이 죽은 뒤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신약 성경 본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학자들에 의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로 마

로마는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에 위치했다. 로마의 설립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로마는 양식과 조직 그리고 법률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는 주전 275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고 주전 133년에는 시리아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세계 제국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로마는 인구가 백이십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로마는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거지가 되었고 1871년에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다.

성경의 언급

로마는 성경에서 모두 아홉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여기서 그는 특별히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유쾌하게 해 준 것으로 인해 그를 칭찬하고 있다.

>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딤후1:16-17).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곳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비록 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승인했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는 계속해서 국가 교회를 유지하려는 자들의 손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로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시록 17장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즉 창녀들의 어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여인은 7년 환난기에 수많은 사람을 속일 단일 세계 종교 체제를 뜻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계17:18)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정체에 대해 9절에 기록하고 있다.

>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니라.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로마를 가리켜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산 위에 놓인 도시'라고 말해 왔다. 그러므로 로마는 말세의 단일 세계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 교리의 발전

로마에서 교리의 발전은 세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로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경을 번역하며 로마 카톨릭 방식의 성경 해석 체계를 세움으로써 로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인물은 키프리안(주후 195-258년)으로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사람이다. 주후 1세기경의 교회들 중에서 대도시 교회들은 큰 위치로 부각되어 존경을 받고 권세를 쥐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는 그런 도시들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키프리안은 다른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우월함을 가르쳤고 카톨릭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쳤으며 궁극적으로 오직 로마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었다. 키프리안의 가르침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본 원리가 되어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엄청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인물은 제롬(주후 340-420년)으로 그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으며 후일에는 여러 여인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창설했다. 그는 강력한 자기 부인(否認)과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 그리고 마리아 승배를 주장했다. 주후 382년경에 로마 교황 다마수스는 그에게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오리겐의 작품을 이용하여 훗날 로마 카톨릭

이런 본문은 헤시키우스 본문 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한다.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 일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 라틴어 성경', 즉 원래의 사본에 거의 일치하는 바른 역본은 궁극적으로 폐기되었고 그의 '신 라틴어 성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제롬의 라틴어 성경[23]은 올바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면서 강압적으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강압적 성경이다.

세 번째 인물은 어거스틴(주후 354-430년)으로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히포의 감독으로 지냈다. 그는 연옥 교리 같은 사악한 교리를 창시한 장본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그는 소위 '서방 해석 방법'이라는 체계를 세웠는데 이것의 원칙은 성경 해석이 교회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경 해석이 교회의 전통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왜곡된 성경 해석 체계를 설립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 자들'(마15:9)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비성경적 관행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겼지만 로마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구한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성경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했지만 로마는 전통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첨가했다. 이 둘은 상반되는 듯하지만 사실 조화를 이루면서 로마 카톨릭 성경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인해 지금 온 세상에는 수많은 현대 역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록 현대 역본들의 수는 많아도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역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불변하는 특징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1546년에 열린 트렌트 공회에서 교리로 추인되었다. 이 공회에서 이들은 외경과 사람의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전통을 위에 둠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 사례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으로 유명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바티칸 사본은 1481년에 발견되었지만 초기 그리스어 학자들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조잡하므로 곧 이것을 무시해 버렸다. 이 사본은 발견된 지 약 400년이 지나서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친 로마 카톨릭 성향의 성경학자들이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을 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사본은 '바나바 서신' 같은 위조문서를 첨가했으며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보여 주는 부분을 삭제했다. 즉 이 사본에서는 삭제와 첨가가 교묘히

---

23) 보통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벌게이트는 '공통의', '평민의'라는 의미의 라틴어 'vulgar'에서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가타'로 알려져 있다.

<서방 본문(Western text)>

혼합되어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각색되어 있다. 또 하나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인 시내 사본은 1844년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헤르메스의 목자' 같은 위조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약 성경은 심지어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씀을 정정해야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부패되었다(고후2:17).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고후4:2). 이 같은 말씀 수정의 동기는 학식과 전통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고 로마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위조품을 자꾸 더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경이 수정되었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나온 바로 이런 부패한 사본들로 인해 오늘날의 정결하지 않은 현대 역본들이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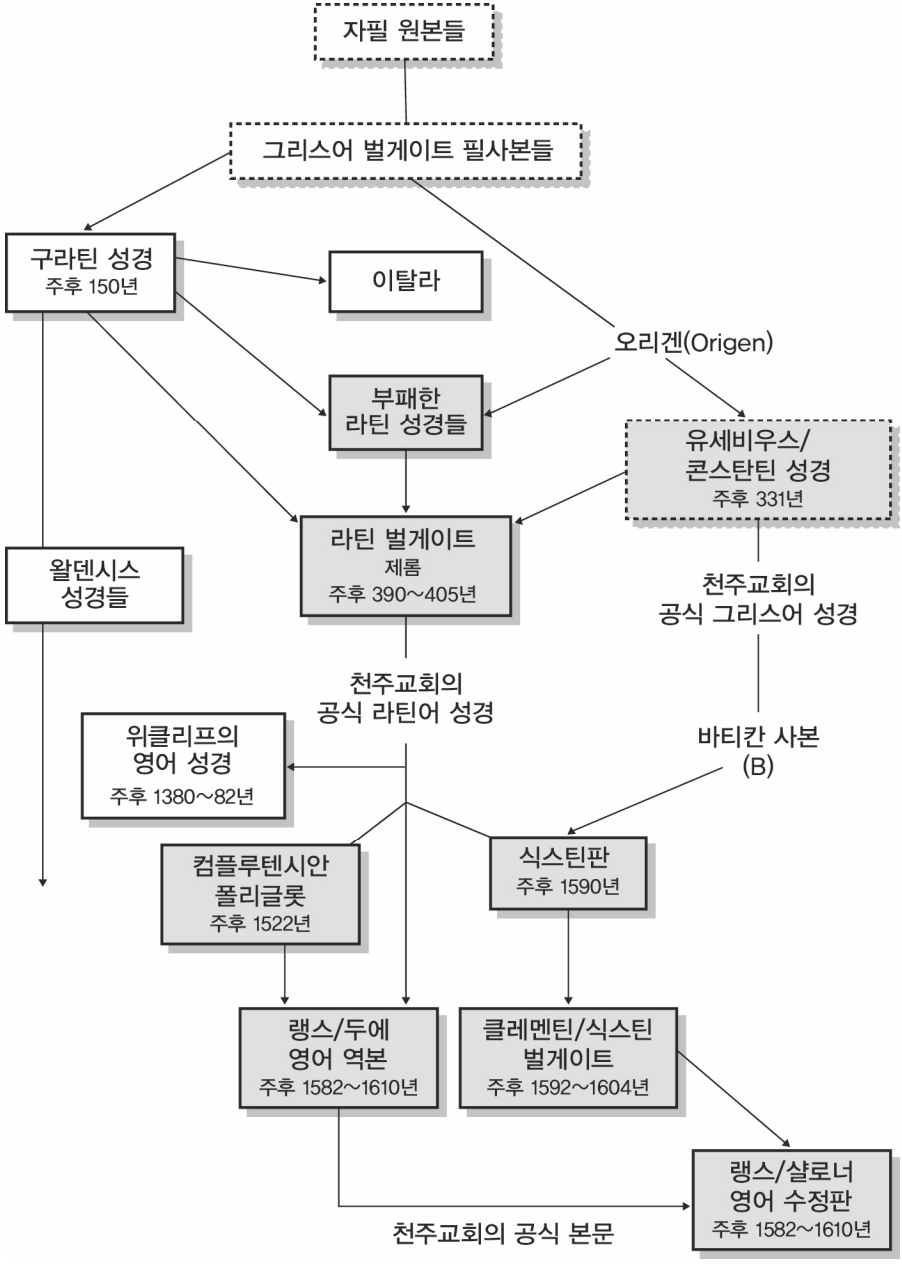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바로 그 순수한 말씀이다.

안디옥

안디옥은 아시아 대륙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다. 안디옥의 원래 거주자들은 창세기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노아의 아들인 셈에게서 나온 아람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이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야벳의 후손들이나 아프리카의 함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아니하셨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분께서는 아시아의 셈족을 통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점에서 노아의 예언 즉,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적절하다(창9:26).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셈의 후손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심을 보여 준다.

그분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자신의 특별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요4:22). 실로 메시아 예수님 역시 셈의 후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한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롬3:1-2).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셈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서 역시 셈의 후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안디옥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신약 성경을 보존해 준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야말로 초기 부흥과 선교의 중심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아주 중요한 곳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성경 보존의 중심지가 되었다.



<천주교 라틴 성경의 부패 과정>

어떤 성경 교사나 크리스천 그룹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로마는 교권적인 해석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회의 과거 전통과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알렉산드리아의 해석 방법은 영적 비유 해석이다. 그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맞게 해석했다. 오직 안디옥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안디옥학파에 대해 브리태니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시리아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학 학파. 전승에 따르면 200년경에 세워졌다.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학파에 반대하여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의 완전함을 강조했다. 4-6세기에 번성했던 안디옥학파는 여러 명의 주요 신학자를 배출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모프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성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등이 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 성경은 말하는 것 그대로를 의미하며 의미하는 것 그대로를 말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므로 그것을 조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어떤 도시에서 바른 사본이 나왔는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세 도시의 특징>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지리적 측면	크기	가장 큼	두 번째로 큼	세 번째로 큼
	위치	이탈리아(유럽)	이집트(아프리카)	시리아(아시아)
	인종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역사적 측면	언급 횟수	9번	3번	19번
	특징	박해를 가한 곳	거짓 교리	성경적 기독교
	영향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성경적 측면	성경 해석	전통적/교권주의적	학자적/비유 해석	성경적/문자적
	성경 처리	첨가	삭제	보존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시리아 본문

성경의 언급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안디옥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아무리 역사적/지리적 특징이 바르다 해도 성경적 특징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안디옥에 대해 성경은 열아홉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초기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30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은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였고 증인이 되는 교회였으며 가르치는 교회였고 섬기는 교회였으며 남을 돕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음을 쉽사리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사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신약 성경의 보존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은 약 6,000개이다. 이 사본들은 대개 서방 계열(Western family),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그리고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등으로 분류된다. 서방 계열은 로마와 관련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으며 시리아 계열은 안디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사본들은 다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것들로서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소수 사본이라 불린다(1% 미만). 이 소수 사본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애지중지하고 공을 들여 수정한 것들이다. 반면에 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다수를 차지하여 자연스레 다수 사본, 보편적 사본, 종교 개혁 사본, 비잔틴(동방) 사본이라 불린다. 이 사본들이야말로 초기 순교자들과 중세 개혁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고 보존해 준 사본들이다.

성경의 판결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경고하는 바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집트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판결이다. 그렇게 지혜가 많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물건과 사람을 가져오다가 실족하여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가?(신17:16; 왕상3:1; 왕상10:28-29)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란 말인가? 부디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책들을 저술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보존하신다면 그분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쓰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이 살아야 한다.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인류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거친 세상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 1611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선물로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보물을 읽고 외우고 그것에 순종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하다. 아무리 번역자들과 번역 기법이 우수해도 대본이 나쁘면 거기서 번역된 역본 역시 필연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 NIV, NASB,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의 모든 현대 역본들은 기본적으로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3년)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년)의 그리스어 '비평 본문'을 사용한다. 도자기를 만들면 기술자의 지문이 그 안에 남게 마련이다. 이와 동일하게 저술에도 저자의 사상이 배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중요한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 이들의 부패된 사상을 살펴보고 그런 사상이 그들의 그리스어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어 본문 연구에 지대한 발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 불신앙, 배교 등의 여러 죄목으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참 본문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배도자라고 주장해 왔다.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람들과 또 성경 본문에 대한 그들의 이론들에 대해 알려진 바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학자가 성경과 그 안의 교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의 발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때때로 학식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위험한 권위를 만들어 내기에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웨스트코트의 아들이 지은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과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자료는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들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들이다.[2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서 가장 큰 공훈을 세운 인물이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이집트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하였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지닌 우월성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산물인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믿었다. 비록 호르트가 '안디옥 본문', 즉 '보편적 본문'의

24) 본 장은 깁(Samuel C. Gipp)이 지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의 8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연대가 그 두 사본의 연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카톨릭 사본들을 신뢰했다.

'보편적 본문'이 로마 카톨릭 본문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성경 역사에서 이 본문이 차지한 높은 권위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으며 종종 호르트는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나는 그 야비한 공인 본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리스어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본문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후대 사본들에 기초를 둔 그 비열한 공인 본문을 생각하면 그런 초기의 것들 - 역자 주: 로마 카톨릭 사본들 - 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25]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국지적 본문'인 소수의 엉셜(대문자)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수정 그리스어 본문'(비평 본문)을 만들어 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왜곡된 로마 카톨릭 사본들은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기들의 본문을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공격한 역사를 지닌 사본 계열에 큰 중점을 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성경을 대하면서 그것을 이미 사라진 역사가나 철학자의 글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인간의 글인 고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 본문 안에도 생략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26]

우리는 그의 이런 생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이 셰익스피어나 플라톤의 글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는가? 성경이 여느 사람들의 글과 다르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

사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자로 치켜세워지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

25)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211.

26)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40.

호르트의 문제점

호르트는 에덴동산의 실재를 부인한다.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27]

우리는 또한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않은 호르트의 불신앙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28]

심지어 그는 한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29]

호르트는 같은 시대를 산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감명을 받지 않았지만 비성경적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C. Darwin)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동료인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오.

그리고 엘러톤(J. Ellerton)에게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그러나 나의 주의(注意)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오.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오.[30]

어떤 때 보면 호르트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서 근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들 수 있다. 인격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는 단순히 부패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해야만 하며 또한 그의 이름과 그의 에너지와 행동이 다 사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지지한다면 말씀의 거룩한 특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31]

---

27)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78.

28) 동일 문서, p. 400.

29) 동일 문서, pp. 420-422.

30) 동일 문서, pp. 414-416.

31) 동일 문서, p. 121.

호르트 박사는 또한 글자 그대로의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다.

> 모리스의 편지는 우리가 미래의 처벌 기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영원한'이란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나는 생각하며 또한 항상 불가능하게 생각되어 내 마음과 상치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32]

비록 고등 교육을 받은 호르트의 마음속에 글자 그대로의 마귀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거짓 교리는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1854년 엘러톤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시대 사람들이 이 중 두 번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33]

또한 한 젊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그는 아래와 같이 편지했다.

>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煉獄)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성격도 역시 변해야만 한다는 이 교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연옥 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카톨릭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34]

호르트 박사의 의견들은 확실히 정통 교리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고집불통이며 제멋대로 행하려는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르트 박사 자신의 글이 보여 주듯이 그는 몇몇 다른 기본적 진리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거부했다.

>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35]

---

32) 동일 문서, p. 149.

33) 동일 문서, p. 275.

34) 동일 문서, Vol. II, pp. 336-337.

사실 호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36]

사실 호르트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값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속죄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고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한 속죄 값이라는 그 원시적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혐오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 말고는 속죄 값에 대한 교리를 조리 있게 변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속죄 값을 드린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낫다.[37]

호르트 박사는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 즉 유아 세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는 가르침이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옳다고 믿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38]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39]

호르트는 자기의 맏아들 아더에게 그가 유아 세례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켰다.

너는 단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 왕국의 크리스천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나님은 네가 아직 유아였을 때 세례를 통해서 너를 자신의 교회, 즉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위대한 성회의 '무의식적인 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는 크리스천 영향권 내에서 자라났다. 즉 눈을 들어 너 자신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한 이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한 부분 또는 일원으로서의 놀라운 감격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의 타고난 권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네 몫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40]

---

35) 동일 문서, Vol. I, p. 120.
36) 동일 문서, p. 430.
37) 동일 문서, p. 428.
38) 동일 문서, p. 76.
39) 동일 문서, Vol. II, p. 81.
40) 동일 문서, p. 273.

호르트는 사실 공산주의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략 1850년경 그와 엘러톤 목사와의 계속적인 편지 왕래에서 잘 드러난다.

> 내가 여기서 앞으로 3, 4년간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꽤 잘한 일입니다.[41]

> 내가 공산주의를 연구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를 통해서였습니다.[42]

>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탤런트, 즉 권력, 부, 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43]

또한 호르트는 그의 좋은 친구였던 웨스트코트와 또 소위 유령 길드(Ghostly Guild)라는 단체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에 깊이 몰두했다.

> 웨스트코트, 고햄, 스코트, 벤슨, 브래드쇼우, 루아드 등과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결과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들이 속임수나 단순한 주관적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실제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얻게 되어 행복해 할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질문들의 목록을 짜고 있다. 코우프는 우리를 암탉과 수소 클럽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그룹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유령 길드라 할 것이다.[44]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비성경적이며 무신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설교자나 전문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그런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식인이라 해도 스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는 절대로 성경의 권위자가 될 수 없다(고전2:14).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지만 성경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가 성경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대한 심성이나 능력을 소유한 것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보증 수표는 아니다. 비록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학벌이나 학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그의 이론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목사가 복음 전도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호르트의 비기독교적 신앙에 버금가는 불신앙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면 당장에 그 모임을 취소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호르트의 신앙관이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

41) 동일 문서, Vol. I, p. 130.
42) 동일 문서, p. 138.
43) 동일 문서, p. 139.
44) 동일 문서, p. 211.

그리스어 학자'로 옹호하며 자기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어 악의에 찬 그가 그것을 모욕하고 내던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호르트는 한때 성경이 차지했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목사/성도들의 무분별한 신앙 때문이며 또한 신학교 시절의 인본주의 교육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신학교들 또한 알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들은 영국을 다시 한 번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예수회의 운동 아래 부각된 두 사람, 즉 호르트와 웨스트코트의 권위를 단순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윌켄슨은 실제로 호르트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 호르트 박사는 본문 비평학의 아버지인 천주교도 시몬의 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과 같은 계열에 속한 사본들과 및 성경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말한다.[45]

웨스트코트의 문제점

웨스트코트 박사의 신용장 역시 호르트의 신용장과 비슷하다. 웨스트코트는 창세기 1-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지 못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까지 언급하신 모세나 다윗도 시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6]

또한 그는 다윗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신학교의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이 모두 비유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 웨스트코트는 또한 기적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모두 의심했다.

>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47]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

45)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4.

46)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 (New York, 1903), Vol. II, p. 69.

47) 동일 문서, Vol. II, p. 52.

역사적 믿음에 관해 기록한 나의 작은 책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간략히 말한 적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강하게 믿었고 그 외에도 다른 재림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48]

웨스트코트 감독은 기본적인 천국의 교리를 부인했다. 실제로 그는 천국을 글자 그대로의 장소로 믿지 않았고 어떤 상태로 믿었다.

전례 법규의 언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의 임재를 실제의 장소와 연결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준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49]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영역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 쉴 수 있다.[50]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이다.[51]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웨스트코트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로마 카톨릭교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지속된 공세로 인해 결국 웨스트코트는 많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례들과 자기의 사고가 일치하게 만들었다. 1849년 2월 그는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자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52]

첫째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웨스트코트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부인했다.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의심들이 나의 무식함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절대적 진리보다는 어떤 임의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48) 동일 문서, Vol. II, p. 308.
49) 동일 문서, Vol. II, p. 49.
50) 동일 문서, Vol. II, p. 253.
51) 동일 문서, Vol. II, p. 394.
52) 동일 문서, p. 110.

발견하고 있소.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란 단어를 부인하오.[53]

로마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드디어 영국 성공회에 속한 선한 감독 웨스트코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잃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의 로마 카톨릭 성향은 결국 그에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의식'을 허락하게 만들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이미 인정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런 의식에 대해 그는 1900년 8월에 한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54]

우리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미워해야 한다(유23). 웨스트코트 박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범의 가죽만큼이나 천주교의 얼룩얼룩한 점으로 오염된 사람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그토록 충성했던 제롬과 비길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어 본문을 공정하게 수정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교회의 또 다른 교리는 마리아 숭배이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대한 웨스트코트의 감탄의 정도는 그의 아들 아더가 설명한 대로 심지어 자기 약혼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고자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 제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루이사 위타드(Sarah Louisa Whittard)로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어머니는 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견진 성사 때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55]

웨스트코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의심했지만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에 있는 라살레트의 우리의 마리아라는 성물 함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56]

> 글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아버지의 열렬한 에너지, 딸의 겸손한 감사,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구경꾼들의 빠른 눈초리, 사제의 만족감, 표정과 끄덕임의 이야기들이 19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믿음의 시대가 고대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굉장한 호의를 보여준 젊은 신도에게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참여하게 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이 일을 설명할

53) 동일 문서, p. 110.

54) 동일 문서, Vol. II, p. 349.

55) 동일 문서, Vol. I, p. 8.

56) 참고로 라살레트는 마리아가 출현하여 기적을 베푼다고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장소이다.

수 있을까?" 이 장소의 중요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57]

웨스트코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며 천국은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개인기도 시간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가 국제적 무장 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었다. 그는 연옥을 믿었고 마리아를 숭배했으며 성경도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개역성경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의 심판관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개악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두 명의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공통된 소망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 즉 '보편적 그리스어 본문'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이들의 노력은 '보편적 본문'이 정말로 성경의 참 본문이며 자필 원본이 보존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에 의해 교묘히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들의 의무가 이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본문,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본문을 던져 버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눈에 드러나는 현저한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 있다. 아무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교회조차도,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99% 이상이 보편적 본문인 이유를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인본주의자들의 '본문 비평'은 이러한 장애물이 극복될 때까지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로마 카톨릭교회의 본문을 살리기 위한 길을 터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호르트라는 천재였다. 이 사람은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전복시키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편적 본문의 권위를 뒤집어 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학설'을 사용했다.

그의 학설은 다름이 아니고 자필 원본은 국지적 본문과 일치하는데 이 국지적 본문을 주후 4세기에 안디옥에 있던 시리아 교회가 마음대로 편집했고 그렇게 편집된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본문이며 그 이후에 교회의 공회가 이 본문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즉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이 변개된 것이고 현대 역본들의 국지적 본문이 올바로 보존된 것임을 의미한다.

다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이론의 부당함을 입증하였다. 다윈과 마찬가지로 그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편들을 모두 모아 뒤틀고 과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론으로 만들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의 학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산물이며 결코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폐지할 길을 찾고

57) 동일 문서, Vol. I, p. 254.

있었던 지식인들은 그의 학설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분개한 과학자, 생물학자, 대학 교수들의 귀에 마치 달콤한 음악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자연스레 사람의 육체 안에 적개심과 반항심 같은 것을 불러일으켰다(롬7:18). 따라서 다윈이 세상에 그의 이론을 내놓았을 때 온 세상은 그 거짓말을 기꺼이 믿었다.

그런데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할 수 있으며 또 보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분개해 왔다. 절망적인 과학자들처럼 그들도 역사의 증거나 사실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던 때에 웨스트코트 박사의 후원을 받은 호르트의 학설이 발표되자 그것은 곧 '본문 비평의 해방'으로 알려졌다.

다윈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호르트의 학설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들은 결코 호르트의 지지자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고대의 것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성경이라는 생각을 없애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호르트의 이론과 다윈의 이론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론들의 오류가 입증된 뒤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한다는 점이다. 다윈의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식 등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끈질기게도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떠받들어 왔다.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 도망칠 수 있게 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배교의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현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성경 신자들이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지하다니 정말로 슬픈 일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신앙심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이 멀어 사실을 도외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2-3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벧엘로 올라가야만' 그런 부흥이 가능할 것이다.

5

개역성경 분석

개역성경의 본문

로스의 성경을 필두로 하여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 소수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다. 개역성경의 구약은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는데 미국표준역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 영국의 개역성경(*ERV*)과 내용이 같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도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집트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같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주에 "더 좋은 사본에……"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 더 좋거나 더 오래된 사본들의 대다수는 대한성서공회가 자신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 대본으로 삼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다.

교황, 마리아, 연옥, 사제, 면죄부, 행위 구원 등 비성경적 요소로 가득한 기관이자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단체에서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성경 사본을 보존해 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한성서공회를 움직이는 연합성서공회의 지도자가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58]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이집트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바빌론)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계17, 18장).

개역성경의 용어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중국 및 인도의 이교도 사상과 토속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이런 비성경적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개역성경에는 기독교 개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한 예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58) 천주교 추기경인 마르티니(Carlo M. Martini, 1927–2012)는 밀라노의 주교이며 교황 성경 연구소에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1967년부터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편집자 중 하나로 일했다.

다음은 성경 번역자들의 본문 및 용어 선택이 신학과 교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1. 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 삼위일체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사실 이 교리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마땅히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할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역번역: God is one person. 딤전2:5)

흠정역: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영어 KJV: There is one God).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뚜렷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흠정역: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그런데 개역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역성경에도 7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었으므로 원래의 7절은 삭제되었다.

개역: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가?

삼위일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복음적인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 중 일부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다. 또는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단 교리라고 말한다. 한국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역성경 때문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 개역: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르다.

> 흠정역: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다. 즉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성경 본문의 작은 차이도 성경의 중요 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개역성경의 뿌리가 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 변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IV 등도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임을 보여 주며 그 결과 예수 유일주의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틈을 주고 있다.

> NIV: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한편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간을 생각해 보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 하나님을 삭제한 구절들

한편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삭제한 몇 가지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마2:12)

개역: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a]

흠정역: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마6:33).

개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b]

흠정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마21:12)

개역: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c]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4:4).

개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d]

흠정역: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눅21:4).

개역: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e]

흠정역: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롬15:19).

개역: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f]

흠정역: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갈1:15)

개역: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g]

흠정역: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딤전3:16)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h]

흠정역: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계14:5).

개역: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i]

흠정역: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계21:4)

개역: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j]

(d)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성경은 대다수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번역의 근간이 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삼으려는 자들에 의해 변개되었기 때문이다.

(h) 용례에서 우리는 개역성경이 '하나님'(God)께서 육체 안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성육신 교리마저 부인하려 함을 볼 수 있다(딤전3:16).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한다.[59] 도대체 개역성경의 '그'(he)는 누구란 말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300여 개의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오직 다섯 개의 사본 – 9, 12, 13세기의 후대 사본 – 만이 '하나님'(God)을 삭제하고 있다. 시내 사본 등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God'으로 혹은 'who'로 추측할 수 있도록 변개되었다.

한편 주후 265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 등과 같은 초기의 증인들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주후 110년의 이그나티우스 등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후 400년 이전에는 배교자요 이단인 오리겐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스페인의 발레라 성경, 포르투갈의 알메이다 성경, 루터의 독일어 성경 등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어온 역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1881년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 – 이것은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본문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다 – 에서 이 단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삭제는 압도적인 사본들의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81년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위원회에는 스미스(V. Smith)와 쎄이어(J. H. Thayer)라는 이름의 유니테리언 교도[60]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었다. 다음은 이들의 증언이다.

> 성경 개정자들은 - 스미스와 쎄이어 - 고대 사본들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단 교리를 수용한 쎄이어는 지금도 대다수의 신학 대학에서 그리스어 시간에 참고 문헌으로 많이 사용하는 「쎄이어의 그리스어 어휘사전」(*Thayer's Greek Lexicon*)의 저자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신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

59)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Section 8, Paragraph 2

60)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 이들은 하나님이 한 위(位)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예수의 인성에 대한 신학적 기반은 2-3세기의 단일신론과 아리우스 및 그 추종자들(아리우스파)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단 교도가 지은 사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유니테리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심지어 성경 개정 위원회와 성경적 교회에도 이들이 침입하여 성경을 변개하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할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뜻있는 사람들이 트리니테리언 성경 공회[61]를 조직하여 유니테리언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단의 활동은 무섭고 집요하다.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속기 쉽다.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가 이단 사상을 지녔으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단호히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10-11).

●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 독자는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holy)을 삭제한 사례들>

개역성경/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모든 천사	마25:31	모든 거룩한 천사
모든 형제	살전5:27	모든 거룩한 형제
사람들	벧후1:21	거룩한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계18:20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선지자들	계22:6	거룩한 대언자들
성령	마12:31	성령님
성령	요7:39	성령님
성령	행6:3	성령님
성령	행8:18	성령님
성령	고전2:13	성령님
개역성경의 '성령'은 원래 '영'(Spirit)인데 임의로 '성'을 넣은 것이고 흠정역의 '성령님'(Holy Ghost)은 원래 'Holy'가 있으므로 그대로 번역한 것임.		

61) Trinitarian Bible Society: http://www.trinitarianbiblesociety.org

2. 독생하신 아들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인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올바로 구원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개역: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1:18)

흠정역: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은 영어로 'only begotten'이며 이는 '유일하게 낳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은 하나님'임을 보여주며 이로써 또다시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를 지지한다.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일2:22)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Son)을 제거해 버린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따라 다 적그리스도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나신'(begotten)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흠정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KJV: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매우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원래의 문맥에서 변개되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리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종교와 윤리학 사전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칭하고 있다.[62] 결과적으로 역사는 발렌티누스라는 이집트의 영지주의자가 요한복음의 '독생하신 아들,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 곧 '독생자'를 '유일하게 나신(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변개함으로써 요한의 일격을 봉쇄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발렌티누스는 파피루스 72와 66 같은 것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이 주장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사람들이 수용하게 했다.

이러한 투쟁은 4세기까지 지속되어 오리겐의 학생인 아리우스에게 전해 내려왔고 그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 즉 독생자를 신조로 삼는 아타나시우스 등과 싸워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여겼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가

62)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p. 240.

대중에게 지지를 얻자 아리우스주의를 내심 추종하던 유세비우스는 주후 325년에 '예수가 모든 시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사 모든 창조물 중 처음이 되신 분'이라고 콘스탄틴의 교회 칙령에다 첨가했다.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이 점점 더 강성해짐에 따라 주후 330년에 콘스탄틴은 소극적 아리우스주의자였던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를 적극적 아리우스주의 신봉자인 니코데미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로 대체하였다. 그는 또한 주후 335년에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강력하게 옹호했기 때문이었다. 콘스탄틴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었다.

사실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용어는 대다수의 사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해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인 주후 180년의 터툴리안의 기록도 이 용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성서공회(UBS)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편집자인 위크렌(Allen Wikgren)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많으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초보적인 실수로 필사 시에 이루어진 실수일 것이다.[63]

그러나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본문 비평 장치(Textual critical apparatus)는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클레멘트, 오리겐, 아리우스 등을 동원해 가면서 비록 이 증거들이 교리적으로 비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다.

이런 것을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이처럼 '창조된 하나님'은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여러 구절에서 발견된다.

> 흠정역: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whose goings forth)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
> 개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whose origins) 상고에, 태초에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기원이 없다. 오직 창조물에게만 근본이 있으며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근본이 없다.

● 낳다(beget)의 의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의 언젠가

63)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p. 198.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위일체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된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낳다'(beget)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에서는 'beget'을 '낳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beget'은 'get'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혹은 "I got the cold."라는 말은 "내가 책을 손에 넣었다.", "내가 감기 들렸다."를 뜻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마1:2) 등에서 '낳고'를 모두 'be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 단지 이삭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beget'을 어쩔 수 없이 '낳다'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beget'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get'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낳다'(beget)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Beget: appli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 to the Son in the Trinity; also to the spiritual relationship of God to man in regeneration.

이 사전은 분명하게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beget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2-37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으며 인성 면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 그리스도의 신성 경시

다음에서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about the Son)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1:5, 8)

흠정역: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unto the Son he saith),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오 하나님이여!"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흠정역: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빌2:5–6)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位格)이시므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셨음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얼버무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잘못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개역: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무소부재', 즉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 무소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무소부재하시며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흠정역: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요3:13).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무난하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하늘에 있는'이며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증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불신이다. 믿지 못하면 삭제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필사한 서기관들의 관습이었다.

● 그리스도를 부인함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요일2:22).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여러 곳에서 삭제했으며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개역: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a)

흠정역: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눅4:41)

개역: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b)

흠정역: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요4:42).

개역: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c)

흠정역: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요6:69).

개역: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d)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롬1:16).

개역: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e)

흠정역: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6:20).

개역: …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f)

흠정역: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고전9:18).

개역: …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g)

흠정역: 영원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후11:31).

개역: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h]

흠정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갈3:17)

개역: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i]

흠정역: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개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j]

흠정역: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살전2:19)

개역: …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k]

흠정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살후1:8)

개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l]

흠정역: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딤전2:7).

개역: …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m]

(e), (g) 용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약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4)

(i) 용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임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j) 용례도 매우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그냥 불특정 인물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서도 개역성경보다 훨씬 더 낫다.

● 그리스도의 주(Lord) 되심 부인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Lord)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이 곧 구약 성경의 '**주**' 곧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삭제하여 그분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찬탈하고 있다. 다음은 '주'를 삭제한 구체적인 예이다.

흠정역: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막9:24).

개역: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a)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막10:51)

개역: …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b)

흠정역: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눅23:42)

개역: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c)

흠정역: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행9:6).

개역: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d)

흠정역: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0).

개역: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e)

흠정역: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갈6:17).

개역: …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f)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딤후4:1)

개역: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g)

흠정역: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19:1).

개역: …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h)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눈먼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받기 전의 사울도 다 예수님을 '주'(Lord)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생님' 등으로 바꾸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는 것이다.

● 임마누엘을 부인함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 말(사7:14; 8:8)은 성경에 단 세 번 나오며 마태복음에서 성도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마1:23).

개역: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역성경에 따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평범한 약속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주지 아니하셨다.

흠정역: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비슷하게 보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번역했으므로 이런 구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요일4:3)라고 말했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적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개역: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와 '육신 안에 오셨다'는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수로 인해 고통을 자초할 것이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7-11).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성경이 무려 12번 이상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도 삭제되어 있다.

●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인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마저도 공격한다.

개역: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눅2:33)

흠정역: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또한 마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무척이나 애쓴다.

개역: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5:22)

흠정역: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기관들에게 노하셨는데 만일 이런 구절에서 '까닭 없이'가 빠진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 그리스도의 피 부인

또한 개역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삭제하였다.

개역: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4)

흠정역: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그리스도를 격하함

마태복음 4장 10절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한 하나님뿐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흠정역: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4:10)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에게 경배하려 하자 단호히 거절했고 바울 역시 이교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려 하자 즉각 거절했으며 천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하자 단호히 거절했다.

흠정역: 그때에 그(천사)가 내(요한)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계22:9).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셨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흠정역: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마8:2)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절하게 한다.

개역: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곳 외에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구절이 나오면 개역성경은 대개 다 절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마9:18; 14:33; 15:25; 18:26; 20:20 등). 그런데 흥미롭게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개역성경은 동일한 그리스어를 '경배하다'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계13:4)

예수님께는 절하게 하고 짐승에게는 경배하게 하는 번역이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것이 바로 성경 부패 뒤에 숨겨진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다.

●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중요 사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

흠정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개역: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흠정역: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계11:17).

개역: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즉 '뉴에이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들은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힌두교에서 도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구루(선생)들과 짐 존스(Jim Jones)같이 집단 자살을 일으킨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 개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막13:5-6)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NIV 등도 이와 똑같이 "I am he."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있다.

>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3.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신인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 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 개역: …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
> 흠정역: …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이 이런 번역을 취할 것이다. 구약의 'the Spirit'이 바로 신약의 'the Spirit', 즉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속에서 형성된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 체계에 따라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무속 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
> 개역: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따라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한편 개역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개역: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빌1:19)

이런 구절은 다 'the Spirit of Christ'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번역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마22:29).

4. 주인가, 여호와인가?

한국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4자음문자'(Tetragrammaton)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VH'에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출3:13-16; 6: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다(출20:7).

흠정역: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Adonai)로 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영어의 'Jehovah'는 히브리어 4자음문자 'JHV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 만든 'JaHoVaH'를 음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부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Jehovah'를 우리말로 잘 음역한 것이다. 사실 대한성서공회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헤르)로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로드)라 번역했고 개역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하면서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개역성경의 구약이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JHVH'를 '**주**'(LORD, 전체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기한 미국표준역(*ASV*, 1901)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미국표준역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로마 카톨릭 소수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한 성경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에 나온 신미국표준역(*NASB*, 1971)은 급히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성경 전통으로 돌아가 '여호와' 대신 '**주**'(LORD)를 쓰고 있다. 참고로 NIV, NKJV, RSV 등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 주요 유럽어 성경이 모두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창2:4)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KJ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AS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Jehovah God made earth and heaven.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로 번역한 단어(스트롱 번호 3068)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변형인 '여호비'(스트롱 번호 3069)도 대개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표준역(*ASV*)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GOD'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흠정역: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겔2:4).

개역: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퍅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KJV: For they are impudent children and stiffhearted. I do send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GOD.

ASV: And the children are impudent and stiffhearted: I do sent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Jehovah.

유대인들은 이럴 때 '여호비'를 '엘로힘'으로 읽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오므로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조심스레 이것을 대문자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은 성경에 309번 나온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는 것임은 다음의 용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그리스어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야 함을 친히 보여 주신다.

흠정역: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서 내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마22:44)

개역: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구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주**(LORD,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내 주(Lord, 히브리어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110:1).

개역: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기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 번역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했다. 또한 마태복음과 시편 구절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또 '발 받침'(footstool)을 그냥 '발'로 바꾸었으며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단수'로 바꾸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경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또한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구약의 '**주**'(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의 날', 즉 재림의 때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독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로 사도행전 2장 20절을 살펴볼 수 있다.

흠정역: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개역: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성도 누가가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개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개역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0절의 관주가 분명히 요엘서 2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어 독자는 혼동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 '**주**의 날'로 되어 있으므로 관주가 제대로 관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줄기차게 언급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교회의 환난 전 휴거와 우리 주님의 전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있으면 행2:20, 살전5:2, 벧후3:10 등에 나오는 '**주**의 날'이 유대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약의 '**주**의 날', 즉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인 7년 환난기를 가리킴을 금방 알 수 있고 따라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자기 학대의 믿음과 행위 중시 믿음에서 떠나 복된 소망인 환난 전 휴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주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다.

흠정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욜2:32)

개역: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주** 하나님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런데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개역성경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성령님께서 요엘과 바울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 주의 깊게 의도하셨던 바를 독자들이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출간된 표준새번역은 개역성경과는 달리 전 세계 대다수의 성경처럼 바른 전통을 따라 구약에서 'JHVH'를 '**주**'로 옮겼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21세기 뉴에이지 시대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본주의를 삶의 모토로 삼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신 마귀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흠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신32:17).

사탄은 이 세대 속으로 침투하여 많은 영혼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 온갖 계략을 쏟으면서 이제는 노래를 통해 '메탈 음악 시장'으로부터 평범한 '중류 음악 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었다. 또 심지어 CCM이라는 신복음성가 장르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리듬과 가사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제 반(反) 문화의 창시자들이 최근에 나온 새 역본들 안에까지 신비주의 지하 조직의 철학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반(反)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 기독교회의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영향은 우레와 같이 엄청나게 크다.

> 흠정역: 12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13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15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17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즉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는 외침 속에는 단어 단어마다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Cherub)인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드리기를 갈망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의 욕망이 경배받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4절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불행하게도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이며 바로 그 7년 환난기가 뉴에이지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큰 용이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정체를 밝히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의 일반 대중이 사탄에 대해 느끼는 나쁜 이미지를 바꾸어 경배받기에 합당한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대중 매체는 그럴듯한 선전을 동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랄 만한데 그 핵심은 그의 정체를 바꾸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5절에서 그가 지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 하리니"(I will…)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하나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통해 마귀의 자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구절들은 그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는 다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를 훤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사탄에게 아부하지 않는 정결한 말씀에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확실히 제거되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드는 말씀 속으로 삽입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이름 '루시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사실상 이 묘한 속임수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
>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제 시인들과 신화 작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유래되어 확인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 단어를 바꿈으로서 루시퍼는 사람들이 자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바뀌었으므로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특성도 스스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고찰해 보면 '루시퍼'란 단어 대신 '계명성' 혹은 '새벽별'(morning sta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halel, ben, shachar'로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개역성경처럼 '계명성'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처럼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된다. 그런데 NIV와 NASB 등의 새 역본들과 개역성경은 마치 이 구절이 히브리 원본에 'shachar, kokab, ben, shachar', 즉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별'(kokab)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또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있듯이 두 번 나오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번만 나온다.

개역성경이나 NIV의 역자들은 'kokab'(스트롱 번호 3556)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곳에서는 수십 번씩이나 '별'로 번역했으며(창1:16부터 나3:16까지 약 40번)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또한 개역성경의 편집자들은 '새벽별'(boger kokab)이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흠정역: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7)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욥기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서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halel'이란 단어, 즉 '루시퍼'를 뜻하는 단어도 이곳 말고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새벽별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과 역본을 따라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하는 '루시퍼' 대신 '새벽별' 혹은 '계명성'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가장 결정적인 신성모독을 범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등에서 '새벽별'이라 불린다.

> 흠정역: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계22:16).

그러나 사탄은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 교활하게 무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의 대상 혹은 타락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고소하는 자'(계12:10)라는 호칭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참고로 NASB 같은 현대 역본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옆에 "벧후1:19를 보라."는 관주를 붙임으로써 이 구절이 '루시퍼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현세대 신학자들의 변절과 배교가 있기 전에는 믿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요, '샛별'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미 오래전에 재미슨(Robert Jamieson)은 그의 저서 '주석: 구약 비평과 설명'에서 뉴에이지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놀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 샛별: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칭호로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명칭을 사칭할 것으로 사료됨.

1913년도에 발행된 저 유명한 스펜스(H. D. M. Spence)의 '풀핏 주석' 이사야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샛별(새벽별)이란 칭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칭호이지만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찬탈할 것이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실체이며 신약 성경의 신비 바빌론의 선두주자이다. 후에 사탄은 이 칭호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것인데… 그는 이방 세상 권세 바빌론에게 활기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고 결국에는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챔피언인 거짓 선지자를 선동하게 될 영이다.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정체가 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경에는 용이 35회 등장하는데 개역성경은 용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여러 구절을 뱀(신32:33), 이리(욥30:29), 시랑(시44:19) 등으로 처리해 버렸다.

> 흠정역: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신32:33).
>
> 개역: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리워야단'(Leviathan, 스트롱 번호 3882)은 성경에 다섯 차례 나온다(욥41:1; 시74:14; 104:26; 사27:1에 두 차례).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사야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그를 악어로 번역해서 그 뜻을 완전히 가려 버렸다.

> 흠정역: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욥41:1)
>
> 개역: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참고로 성경의 용(dragon)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상상하는 용과 다르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9장 3절의 용은 강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용은 보통 우리가 '공룡'이라 하는 짐승과 비슷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어에서 용의 용례를 찾아봐야 한다.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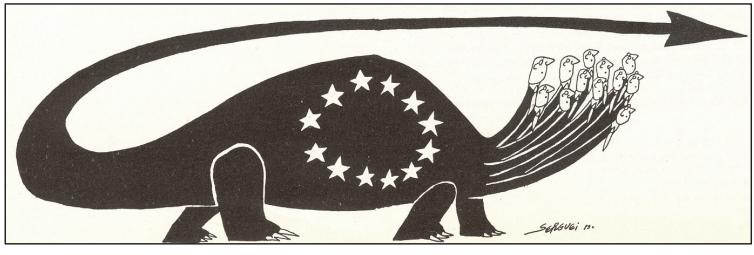
> Dragon: a mythical monster, represented as a huge and terrible reptile, usually

combining ophidian and crocodilian structure, with strong claws, like a beast or bird of prey, and a scaly skin; it is generally represented with wings, and sometimes as breathing out fire. The heraldic dragon combines reptilian and mammalian form with the addition of wings(옥스퍼드 영어 사전).

우리가 공룡을 지칭할 때 쓰는 'dinosaur'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그런 괴물을 모두 '용'으로 불렀다.

Dinosaur: A member of an extinct race of Mesozoic Saurian reptiles (group Dinosauria, typical genus Dinosaurus), some of which were of gigantic size; the remains point to an organism resembling in some respects that of birds, in others that of mammals(옥스퍼드 영어 사전).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 등에서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 혹은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6. 천사인가, 사자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지금처럼 뉴에이지 사상이 득세할 때에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천사는 성경에 295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 177회를 천사로, 67회를 사자(使者)로 번역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사자로 번역했다.

구약의 '**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이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개념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교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역성경은 마귀의 천사들 역시 사자들로 번역하여 마치 마귀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소위 '배교의 결정판'이라 하는 NIV 등도 **주**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들을 제대로 번역했다.

개역: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마25:41)

흠정역: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뉴에이지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등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이며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사를 다루는 부분의 'man' 혹은 'men'은 반드시 남자로 번역해야만 한다.

개역: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19:5)

흠정역: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바로 천사들이며 소돔 사람들은 바로 이 남자들(천사들)과 성적 접촉을 갖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다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흠정역: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strange flesh)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소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물론 그들은 다 남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이상하게 번역을 하여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추구한 천사들과의 성적 접촉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편 영어에서는 동성연애를 'sodomy', 동성연애자를 'sodomite'라 부른다.

끝으로 성경의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나므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

흠정역: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7. 마귀인가, 귀신인가?

개역성경의 귀신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소위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인가?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조상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잘 맞지 않는가! 과연 성경이 조상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인가?

흠정역: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개역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본래는 '희생물을 드림'을 뜻한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 화목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야 맞으며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burnt offering) 혹은 '번제 희생물'(burnt sacrifice)이라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누가복음 9, 16장 참조). 즉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다.

웹스터 영어 사전은 '마귀'와 '귀신'이라는 두 단어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다.

> 귀신(demon):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음
>
> A spirit, or immaterial being, holding a middle place between men and the celestial deities of the Pagans. The ancients believed that there were good and evil demons, which had influence over the minds of men,… Hence demons became the objects of worship. It was supposed also that human spirits, after their departure from the body, became demons, and that the souls of virtuous men, if highly purified, were exalted from demons into gods.
>
> 마귀(devil): 1.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며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킴(In Christian theology, an evil spirit or being; a fallen angel, expelled from heaven for rebellion against God; the chief of the apostate angels).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준 어떤 영적 존재인 '귀신'(demon)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성경이 '악한 영들'(evil spirits)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는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diabolos)와 '다이모니움'(daemonium)이 서로 다르며 전자는 사탄을, 후자는 마귀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원본주의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shed'(스트롱 번호 7700)와 'sair'(스트롱 번호 8163)를 다 '귀신'(demon)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다(레17:7;

신32:17 등). 깨지기 쉬운 유리 집에 살고 있는 학자들은 "원어는 원래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원어의 돌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삼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원어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자인 체하며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대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개역: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시106:37)

여기의 '사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무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한가?

흠정역: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한편 개역성경은 시편 106편 37절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동일한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700)를 신명기에서는 '마귀'라고 멋있게 번역하였다.

개역: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신32:17)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나오는 마귀, 신 등이 모두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흠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8. 살아 있는 혼인가, 살아 있는 영인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역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이다.

흠정역: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전 세계 모든 성경과 달리 오역을 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흠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몸(흙)과 영(생명의 숨)이 합쳐진 혼이라는 것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며 그 결과 '영이 없는 사람'(창세기 1장)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창세기 2장)이 있다는 '이중 아담론'을 확립해 주고 말았다. 사람이 '산 영'(living spirit)이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부활이 필요하며 '살려 주는 영'(quickening spirit)이 필요하단 말인가?

개역: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흠정역: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같이 꼭 혼이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을 혼으로 번역했다.

개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그리고 개역성경은 이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혼을 영혼이나 자(者) 등으로 바꾸어 버렸다.

개역: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출12:15)

흠정역: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개역: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욥7:11)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말하겠으며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리이다.

위의 욥기를 보면 영과 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영혼'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개역성경으로는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가 어려우며 영어로 쓰인 기독교 관련 서적을 번역할 때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자기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전도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진짜 전도이다. 그래서 전도를 표현할 때 그들은 '혼을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구원한 사실을 잘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전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흠정역: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행2:41).

개역: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9. 짐승의 영인가, 혼인가?

과연 성경은 짐승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는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개역: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1)

흠정역: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개역성경은 본문에 '짐승의 혼'이라고 적었으나 밑의 난외주를 보면 "여기의 혼은 원래 히브리어로 영임."이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히브리어가 '영'이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으로 해야지 왜 '혼'이라 했을까? 그 이유는 번역자들의 토착 샤머니즘 사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도저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영'을 '혼'으로 번역하였다.

이 구절의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사람,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흠정역: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창6:17).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민수기 22장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 짐승도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1절이 의미하듯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짐승은 죽으면 몸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지금 '루아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전도서의 번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라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된다.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믿음과 실행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담대히 말한다.

10. 대언인가, 예언인가?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중요 용어를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 색인(Concordance) 기능이 되게 해야 한다. 미국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스트롱(Strong)이나 영(Young)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어 누구라도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용어 색인을 이용하여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불행히 개역성경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등 10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개역: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출7:1–2)

개역: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겔37:4)

개역: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계19:10)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눅11:50–51).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했는가?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흠정역: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창20:7).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영어의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흠정역: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18:22).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났으며 특히 구약 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한편 성경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처럼 성경기록은 대언이다.

흠정역: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경기록 그 자체가 대언임을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한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닌다!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전12-14장의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적 무속 신앙을 부추기고 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

흠정역: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seer)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지금 대언자(prophet)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삼상9:9)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11. 왕국인가, 천국인가?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그러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실까?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흠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흠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흠정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다(마24:14).

흠정역: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5-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행1:6)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많은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 성경을 – 특히 구약 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신학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속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기존 성경들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왕국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적으로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12.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므로 모순이 없다. 만일 그 안에 모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 개역: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막1:2-3)

이 구절은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앞부분, 즉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라는 절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이며 따라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언자들*의 글*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160쪽 성경론 표 참조).

● 대언의 성취를 부인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 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흠정역: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막15:28).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 버린다.

개역: 없음

● 종교를 강조함

개역성경과 현대 역본들은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둘째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때 곧 7년 환난기에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계13:15).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이 추구하는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도 따뜻한 칭찬으로 바뀌게 된다.

개역: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religious)(행17:22)

흠정역: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superstitious).

킹제임스 성경이 '미신'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어근은 마귀와 상관이 있다. 한편 개역성경에서 '종교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드레쉐이스'(thresheis) 혹은 '세보마이'(sebomai)인데 이런 단어는 그 구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헛된 것에게 경배하는 것을 마치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이해한 아테네 사람들 같은 교인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 그리스도를 비하함

다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물건으로 비하하는 사례이다.

개역: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6:33)

떡은 둘째 치고 도대체 하나님의 빵이 '생명을 주는 것'(thing), 즉 사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빵으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흠정역: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 서기관들이 주범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노한 목소리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마23:14).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다.

개역: 없음

●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내쫓지 못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내쫓지 못했는가?

개역: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님의 요점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문맥을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지 친히 말씀해 주신다.

흠정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17:2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몸을 피한다.

개역: 없음

참으로 개역성경은 NIV 등의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부인한다.

개역: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13:33)

흠정역: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행10:30)

흠정역: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개역: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전7:5)

흠정역: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개역: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고후6:5)

흠정역: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마지막 예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따라서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반드시 금식은 아니다. 물론 금식하면 배가 고프다. 개역성경은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 그리스도 안과 밖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자꾸 오류가 발견된다.

개역: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갈6:15)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로마서 3장). 할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복은 무할례자들이 결코 뺏을 수 없는 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천주교 성향의 서기관들이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즉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지지하기 위해 이것을 삭제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친 자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여 천년 왕국을 소유하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저 팔레스타인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토록 유대인들의 땅이다(창세기 12, 15장).

●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하므로 우리가 공을 들여 채워야 하는가?

개역: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느 면에서 부족하기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단 말인가? NIV는 아예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은 뒤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육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슨 고난이 그분께 더 남아 있단 말인가?

흠정역: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사52:14).

●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함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개역성경은 다음의 구절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긴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역: [그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11:24)

흠정역: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broken)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 복음의 핵심을 부인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개역성경처럼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인가?

개역: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흠정역: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개'이다. 이것이 빠지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개역성경은 자꾸 삭제한다.

개역: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눅9:55-56).

흠정역: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 보편적 구원을 가르침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개역성경은 어떤 민족이나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기록한다.

개역: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21:24)

개역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 즉 '보편적 구원'(Universal salvation)을 가르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흠정역: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류가 넘치도록 원본 성경을 주셨을까? 아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서기관들이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전혀 없는 한 성경만을 쓰셨다.

●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진노하시는가? 개역성경은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개역: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3:5-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흠정역: …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 5장 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흠정역: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개역성경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개역: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히 3:16)

개역성경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흠정역: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29-3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개역성경은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

● 아멘을 무시함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한 뒤 '아멘' 한다. 성경에는 아멘이 총 78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서 20회 이상을 삭제하고 50여 회만 적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아니란 말인가?

흠정역: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개역: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흠정역: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요일5:21).

개역: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여인들을 무시함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등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워 준다.

개역: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딤전5:16)

흠정역: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여인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우고 남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

개역: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 4:4)

흠정역: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고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

개역: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22:22)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구절에서도 번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아'를 가리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아이만이 고아이다.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없는 아이에게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것처럼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다르다.

흠정역: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고아'와 '아버지 없는 아이'는 완전히 다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개역성경에 드러난 긍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만 없어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므로 약자를 더 많이 위로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가 '고아'로 표현된 구절은 자그마치 50여 군데나 된다.

이 모든 부패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왔으므로 NIV나 NASB 그리고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 같은 현대 역본도 내용이 동일하다.

● 정반대로 기록함

욥은 4,000년 전에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의 부활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자신의 '육체 안에서', 즉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육체 밖에서'라고 정반대로 기록하였다.

흠정역: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개역: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십일조를 삼 일마다 바치는가?

개역성경은 NASB 등과 같이 십일조를 삼 일마다 바치라고 요구한다.

개역: 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암4:4)

과연 성경에 십일조를 삼 일마다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신명기 14장 28절과 26장 12절 등은 분명히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다고 말한다.

흠정역: 삼 년이 끝날 때에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십일조를 모두 가져다가 네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신14:28)

그러므로 아모스 4장 4절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되어야 한다.

흠정역: 벧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 일천 번제인가, 천 개의 번제 헌물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뒤에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 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 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여러 교회들이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양 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 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다. 천 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역성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이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1:3, 9, 10, 13, 14, 17 등 18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희생 헌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한 답을 준다. 죄를 지으면 '죄 헌물'(sin offering)을 드리고 법을 어겼으면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을, 자원해서 드리기 원하면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을, 음식을 드리고자 하면 '음식 헌물'(meat offering)을 드린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개역성경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 예물', '소제' 등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원 헌물'을 빼고는 모두 '헌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를 뭉뚱그려 제사로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속건제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원 헌물'의 경우 개역성경은 레위기 22장 21절과 23절에서 '자의로 드리는 예물' 혹은 '낙헌 예물'이라고 해서 헌물의 개념을 살렸는데 사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NIV, NASB 등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들도 모두 '헌물'(offering)을 살리고 있다. 아마도 이 사례 역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offering'을 제사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강요해서 무지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흠정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회개하고 성경을 알아야 이런 무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중세 천주교가 지배하던 무지의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 아무 뜻도 없는 번역

> 개역: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암5:20)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사람이 있는가? 뜻을 모르고 번역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 흠정역: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절 중 하나이다.

개역: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1:3)

여기서 '신기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divine'이며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띠다'를 뜻한다. '영광과 덕으로써'는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을 뜻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다.

흠정역: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 순교하고 약속도 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하고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였는가?

개역: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히11:13)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단 말인가? 여기서도 개역성경은 오역을 했다(히11:39 참조).

흠정역: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13. 하늘들인가, 하늘인가?

우리말에서는 하늘의 복수형인 '하늘들'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역: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창2:1)

흠정역: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개역성경은 참으로 간결해 보이지만 많은 면에서 내용은 부실하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복수를 쓰셨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성경에는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으며 다른 영어 역본들도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12:2).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신학을 무시한 채 중요 복수 단어를 많은 곳에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개역성경의 간결성은 성경의 정확성을 희생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성경이 이처럼 부실하니 그 부실한 기초 위에서 부실한 기독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14. 지옥인가, 음부인가?

마귀는 지옥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혹은 "스올에 갑니다."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지옥으로 갔으며(눅16:19-31) - 이 구절의 음부도 음부가 아니고 지옥임 -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으나(엡4:8-10; 고후5:8; 12:2-4; 히11:40) 지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성경에 54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스올로 번역했고 신약에서도 13번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스올 혹은 음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은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즉 개역성경은 번역자들의 샤머니즘으로 인해 불교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역: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잠15:11)

개역: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잠27:20)

이런 이교도 사상이 개역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과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지옥의 본질을 성경에서 제거해 버렸다.

개역: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5)

흠정역: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지옥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흠정역: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46, 48).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44, 46, 48절에서 연거푸 이 사실을 강조하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44, 46절은 생략했다. 단 한 번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늘 반복을

하셨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빠지는 것 역시 치명적이므로 그분께서는 연거푸 세 번이나 지옥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신다. 그러므로 44, 46절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참고로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를 뜻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을 뜻한다.

Hell: The abode of the dead; the place of departed spirits; the infernal regions or lower world regarded as a place of existence after death(옥스퍼드 영어 사전)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지만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이것을 믿지 않는다.

흠정역: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흠정역: (다윗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행2:3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지옥을 음부라고 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음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자주 외우는 사도 신경에도 들어 있다. 한영 성경이나 한영 찬송가의 표지 안에 들어 있는 영어 사도 신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원래 사도 신경에는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으나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하였다. 우리는 결코 주문 외우듯이 사도 신경을 외우지 않으며 사실 신조 자체를 외울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기록된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옥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기 위해 사도 신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 영원토록 살 곳은 성경에서 불 호수라 하는 곳,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이며 이곳의 위치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계19:20; 20:14).

● 영존하는 지옥 형벌

어떤 이들은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짜 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 즉 상징적인 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 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eternal'이다. 이 말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천상의 것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할 때, 즉 질적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 개역: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eternal fire)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18:8)

반면에 영어에서 양을 강조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이란 의미의 'everlasting'을 사용한다.

> 흠정역: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everlasting fire)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영존하다'(everlasting)를 사용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의 '영혼 멸절설'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수 없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영혼이 멸절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기도 하며 동시에 양적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이기도 한다. 즉 질적/양적으로 영원무궁한 생명이다.

> 흠정역: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5–16).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래서 믿는 자들의 최종 권위가 된다.

15. 믿음인가, 행위인가?

●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만일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롬3:23).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 근거하였기에 자꾸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개역: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막10:24)

그러나 바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 과정 신학

믿는 이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 천주교회의 평생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교 체제하에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 사제의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역성경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기록한다.

개역: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4:6)

개역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다.

흠정역: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저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시지 행위의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 이런 예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5장 31절,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4장 11절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개역성경의 행위 신학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역: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3:36)

흠정역: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흠정역: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개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였는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인가?

흠정역: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the free gift)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롬 5:15)

개역: 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기록하지만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은 NIV 등과 마찬가지로 '거저'(free)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롬5:16; 5:18에서도 마찬가지임). 이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가?

개역성경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개역: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흠정역: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수천 세대라는 것은 원문에도 없고 알렉산드리아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첨가한 것이다. 앞뒤 문맥과 성경의 구원 및 은혜관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 믿음의 대상

믿기는 믿되 헛것이나 이방신을 믿으면 허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약화한다.

개역: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6:47)

흠정역: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 내 몸을 쳐야 하는가?

고대로부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행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집트의 이시스, 로마의 키벨레 그리고 에베소의 다이애나같이 피에 굶주린 여신들을 위해 사람들이 피의 제전을 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천주교회의 수도사들 가운데는 자기 몸을 극도로 상하게 한 사람들이 많았고 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고행이 필요하다는 이교도들의 교리를 지지한다.

개역: 내가 내 몸을 쳐(I beat my body)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전9:27)

한국 성도들에게 보상 심리를 허용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친 이 구절은 실제로 나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치다'(beat)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후포피아조'(hupopiazo)이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정욕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기를 치는 행위', 즉 자학 행위는 특히 왕상18:28에서 잘 드러나는데 거기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흠정역: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골2:23).

● 거세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 학대로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내는 거세(去勢)를 행하려 하며 개역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개역: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갈5:12)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유혹하던 거짓 대언자들이 그곳의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에서 끊어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곳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잘려 나가기를, 즉 교제에서 단절되기를 원하였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뉴에이지와 고대 신비주의 관습이다.

개역성경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와 NASB 등은 'emasculate'(거세하다)와 'mutilate'(신체를 절단하다)라고 번역하여 그 의미가 거세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동일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은 고행을 통한 구원이라는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런 두려운 일을 시도하였다. 이런 거세 풍습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기독교와 무관하며 신비 종교들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하고도 무서운 관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가르침들로 인해 현대 역본들의 기반이 된 '부패된 그리스어 신약 사본'을 편집한 장본인인 오리겐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베어 내는 거세를 행했다.

● 열심을 내면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 개역성경은 그렇다고 한다.

개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우리말큰사전은 '신령'이란 '신기하고 영묘한 것'이고 '진정'이란 '거짓 없이 참되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기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고 열성으로 지성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모토로 하는 샤머니즘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흠정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신약인가, 구약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약(Old testament)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New testament) 시대를 여셨다.

흠정역: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흠정역: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어 성경책을 보면 한결같이 신약, 구약 할 때의 '약'이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testament'를 우리에게 전해 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나온다.

흠정역: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KJV: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Testament'를 그냥 '언약'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Testament'와 'Covenant'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테케'(diatheke, 스트롱 번호 1242)인데 'Covenant'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특별 약속을 뜻하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총 295회 나온다. 반면에 'Testament'는 '증언'(testimony)이나 '증언하다'(testify)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일차적 의미는 '증거로 주는 언약'이란 뜻이며 신약 성경에만 총 14차례 기록된 신약 성경의 독특한 단어이다. 성경은 이런 단어의 뜻을 알려 주기 위하여 내장(內藏) 사전을 제공한다. 히브리서 9장에 'Testament'의 뜻이 정의되어 있다.

흠정역: 15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 상속 언약(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17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잠시 덮여졌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흠정역: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언약을 주시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것을 확증해 준다. 16-17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상속 언약'(Testament)과 '상속 언약 하는 자'(Testator)는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다.

개역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언약으로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다.

개역: 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15절의 새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이 도저히 같은 말임을 알 길이 없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는지 알 사람이 있겠는가?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15절의 'inheritance', 즉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성경과 다른 한글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국개역성경 혹은 미국표준역을 따라 어쩔 수없이 'Testament'를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하려 한 시도는 좋았지만 'Testament'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 아니다. 우리말큰사전으로 가서 '유언'을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인가? '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언약하고도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흠정역: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눅22:20).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여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가

이미 흘려졌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님께서는(계13:8) 자신의 피로 말미암은 – 직역하면 자신의 핏속에 담겨 있는 –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결코 내가 죽을 때가 되어 몇 마디 유언의 말을 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언의 1차적 의미가 '죽음을 맞이하여 남기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 유언에는 1차적으로 '상속 언약'이란 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유언'이란 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도 '유언'은 'Will'이지 'Testament'가 아니다. 물론 'Testament'에도 'Will'의 뜻이 있으나 그것은 3차, 4차 의미이며 성경적인 용례로는 결코 'Will'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성경들은 이렇게 'Testament'의 심오한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유언은 창조물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따라 가장 중요한 단어인 '새', 즉 'New'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언약을 주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역: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8).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멸시하는 번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역성경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아직도 제사장 체제하에서 구약이 준수되고 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런 체계가 유지되려면 성경을 변개하여 '새 상속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주를 받은 부패한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다수 사본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이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배제한 것이다. 다만 믿음이 없이 학식을 자랑하려는 현대 학자들만이 이런 구절에 '새'(New)라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번역인가, 음역인가?

● 거인과 네피림

성경에는 음역과 번역의 문제가 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흠정역: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4절).

킹제임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Giants)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욥1:6; 2:1; 38:7)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음역을 하여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다.

개역: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도대체 네피림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 주신다.

개역: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13:33)

개역: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신2:10–11)

개역성경은 너무도 쉬운 문제를 네피림이니 르바임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다 거인이라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흠정역: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민13:33).

흠정역: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신2:10–11)

이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자들 곧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거하던 거인들이다. 고대 문명과 화석 기록을 보면 거인들이 고대에 살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갈보리와 해골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대다수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갈보리 언덕을 알고 있다. '갈보리'라는 말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33절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중요한 단어를 '해골'로 바꾸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역: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8. 기독교인가, 천주교인가?

● 그리스도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성직자 계급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priest)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으나 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을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간 중재자가 필요 없고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9).

그런데 개역성경은 전 성도 제사장 체제를 가리려 하고 있다.

개역: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5)

흠정역: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priest)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priest', 즉 제사장(사제)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결국 이처럼 중요한 구절을 삭제해야만 한다.

● 신부인가, 사제인가?

성도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를 신부(神父)라 부르면 안 된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삿17:10; 마23:9). 그런데 목사(pastor)들이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처럼 행세하려고 로만 칼라 의복을 입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세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성당', 즉 '거룩한 제물을 둔 장소'라고 한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마저 이런 것을 배워서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성당이나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목사가 제사장이란 말인가?

흠정역: 이제 이것들[죄와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히10:18).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헌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므

로 더 이상 제사장과 성전과 성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무시하며 그분을 짓밟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 고해 성사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의 권위는 고해 성사에 달려 있는데 개역성경은 수정된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로마 카톨릭교회 교리를 또 지지해 주고 있다.

개역: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약5:16)

흠정역: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아주 묘한 구절이 있다.

개역: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흠정역: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과연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히브리서에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제사장 체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의 제사장을 뜻하며 결코 개역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으로 오류를 만들고 있다.

● 여자 목사와 집사

초대 교회부터 성경에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보기에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신다.

흠정역: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딤전 2:11-12).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사 교회의 두

직무 수행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셨다.

흠정역: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딤전3:2)

흠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딤전3:11–12)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단의 감독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단이 나오지 않으며 성경의 교회는 모두 독립/자치 교회이다. 여기서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bishop'인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교로 부르고 있다. 현대 교단들의 감독 체제는 바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을 말한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으며 이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여자는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개역성경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은 잘 번역했으나 11절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개역: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딤전3:11)

개역성경은 이곳을 '여자들도'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그러나 심지어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그들의 아내들도', 즉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아마도 여자 집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런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흠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인가?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흠정역: [요셉이] 그녀[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1:25).

성령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여 평생 동정녀라 부를 자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녀의 '맏아들'(firstborn son)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다.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그분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은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맏아들'의 '맏'을 삭제해 버렸다.

개역: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9. 침례인가, 세례인가?

개역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밥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밥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 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밥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밥티조'가 77회 쓰였다.

한편 개역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 성경 단어 사전,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엉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 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로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어원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바뀌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중국 성경과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다수결의 논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는 그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국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침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다는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실까?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의 전달 과정에 마귀가 개입한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되므로 성경에 근거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대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판결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이다.

●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

흠정역: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요3:23)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 와야 한다.

흠정역: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행8:36)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흠정역: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행8:38).

침례는 '강 속에서'(in Jordan)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다.

흠정역: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마3:6).

침례를 받은 뒤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흠정역: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행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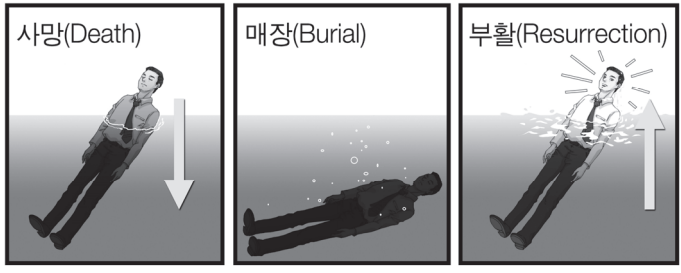
흠정역: 참으로 나[침례자 요한]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마3:11-12).

이 구절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절에서 침례, 즉 '몸 전체가 잠기는 것'과 세례, 즉 '이마에 뿌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마에만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과연 이마에만 불이 붙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침례의 의미>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 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의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행8:12).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보여 준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에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개역성경은 이상하게 37절을 '없음'으로 삭제하고 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다음 구절들이 한 절씩 앞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한다.

> 흠정역: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행8:37)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37절을 친히 기록하셨다. 즉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로마 카톨릭교회가 생겨났다.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주도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들의 종교 체제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 어려서부터 로마 카톨릭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이런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거침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다. 그 결과 개역성경과 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들에는 이 중요한 구절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의 유아 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과연 이 구절이 없으면 앞뒤 문맥이 통하겠는가?

● 침례의 시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로마 카톨릭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 뿐더러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2:8-9). 성경은 이 같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

흠정역: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행16:33)

여기서도 개역성경은 '즉시'라는 중요한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 글은 결코 침례교인이 될 것을 촉구하는 글이 아니다.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침례가 구원과는 상관없으므로 이것을 무시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면 침례에 순종하기 바란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흠정역: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요14:21).

20.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성경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마 카톨릭교회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일곱 가지 성례전 혹은 성사(sacraments)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체 성사, 즉 '성만찬'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그 기원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체 성사 제사에 있으므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이런 로마 카톨릭교회 용어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명히 빵을 사용하면서도 떡을 먹는다고 하고 또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신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기 위해 누룩이 들어가 부패된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 만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음식은 유월절 음식이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의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다. 주의 만찬의 요소들, 즉 빵과 포도즙은 단지 그분의 찢긴 몸과 그분의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 누룩 없는 빵

유월절부터 연이어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

흠정역: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 첫째 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12:15).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 누룩이 대부분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흠정역: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고전5:7-8).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카스텔라나 누룩이 들은 일반 빵을 사서 주의 만찬에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큰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어떻게 우상 숭배용 빵 조각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의미만 알고 그분을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상징물이 바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안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을 앞으로 하나 하나 나오게 하고는 빵 조각을 직접 입에 넣어 주는 몰상식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 누룩 없는 포도즙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역시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 포도 주스, 즉 포도즙이어야 한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이유로 포도 주스를 사용하다. 단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국내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만이 전통을 따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음료가 '포도나무 열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마26:29; 막14:25; 눅22:18).

흠정역: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26:29).

포도즙에 상응하는 영어는 'wine'인데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 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다 포함하므로 용례별로 구분하여 번역하되 성경이 분명히 술을 금한다는 사실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런 인물이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흠정역: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창14:18).

또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주의 만찬 등에 쓰이는 'wine'도 마찬가지로 포도즙이다.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속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

포도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틀은 'winepress'인데 이 경우도 포도주 틀이라 하면 안 되고 포도즙 틀이라 해야 한다. 포도를 짜면 당연히 포도즙이 나오지 않는가?

개역: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계14:19).

흠정역: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옛날에는 포도즙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도즙을 끓여 잼같이 만들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물에 풀어서 사용했다.

6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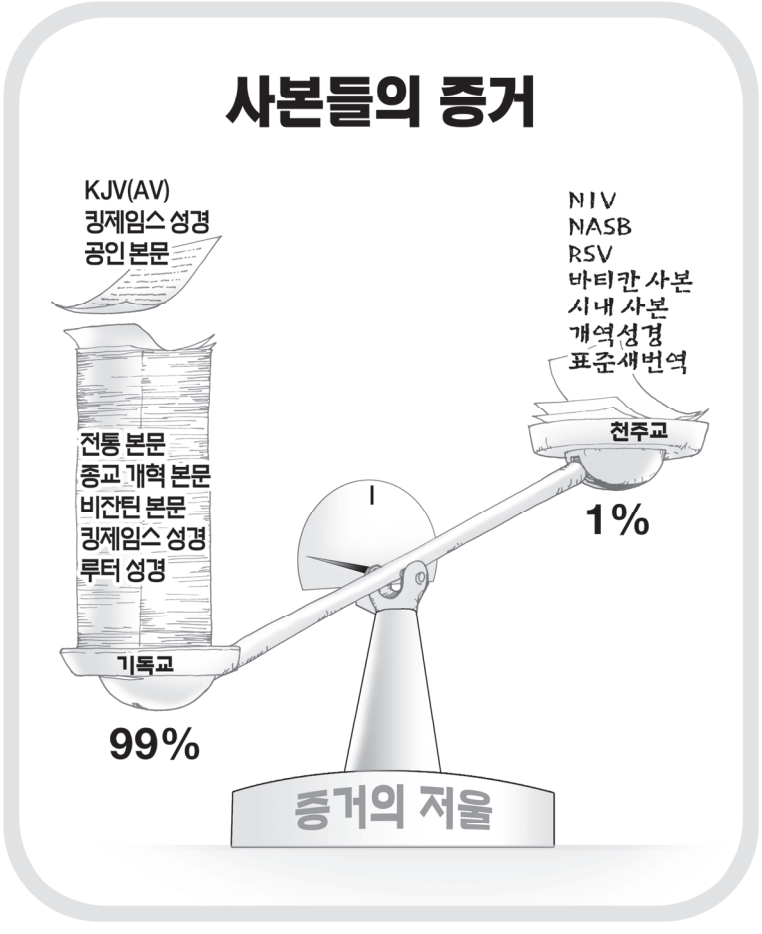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며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고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개역성경의 신학적/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획일적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획일적 신앙 패턴에서 벗어나 속 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개역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 신자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개역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의 글을 통해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 특히 미국표준역(*ASV*) - 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거의 이런 대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에서 나왔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역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개역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개역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번역 오류를 보인다.

개역성경 오류들의 대다수는 번역의 대본으로 취한 그리스어 본문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 시대적 흐름과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 NIV, NASB 등의 근간이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신약 성경 본문을 채택했고 키텔의 부패한 구약 성경 본문(3판)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오류와 부패의 정도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데 이바지한 한국인 조력자들이 중국이나 인도 등의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힌두교 사상과 토속 샤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성경에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기독교에서 수용

할 수 없는 개념이나 용어가 그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영감'(inspiration)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있는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책이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
>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바른 사본들과 그것들을 뿌리로 하여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하셨으며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꿋꿋하게 역사 속에서 그 위용을 떨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 한국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맑은 정신과 바른 지각으로 힘을 모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고 널리 보급하여 후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저자와 저자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7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많은 분들이 왜 성경 신자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에 관해 논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측량에서 랜드마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불법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The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 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

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 밖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4쪽, 1989).

사실 현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 전쟁의 실체는 다수 본문만을 수용해 온 기독교와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온 천주교의 대립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은 성경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늘 존재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로 신약 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에 비례해 말씀을 변개하려는 마귀의 시도 또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귀의 공략은 주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로 알려진 바빌론 음녀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사도 시대 이후로 마귀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행위 구원과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에 적합하도록 부단히 성경 본문을 변개하여 왔다. 주후 500년경부터 약 천 년 동안 왕권마저 능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토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 주셨다.

특별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로마 카톨릭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년에 로욜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反)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회는 성경 본문에 관하여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사본들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필사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실수가 나올 수 있었다. 본문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사본들을 살펴보고 그런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뒤 잘못 표기된 단어나 첨가 혹은 삭제된 단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정확한 독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에라스무스나 베자 혹은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들 같은 이들은 다수 사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선한 의도로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천주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1,5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수용한 공인 본문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본문 확정 작업이 직업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본문 비평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소실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문을 섭리로써 보존해 주심을 믿지 않으며,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창작물에 불과한 다른 고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 한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한 본문 비평 학자의 말이다.

>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받들어 모셔야 할 책이 아니라, 읽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이다(「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지음, 176쪽).

성경 신자들의 눈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불신자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한다.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본문 비평은 실은 천주교회가 종교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도구로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회의 본문 비평에는 내재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성경의 원문에 가깝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가들은 후대의 사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은 오래된 사본에 더 많은 신뢰와 권위를 준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보존된 '시내 사본'이다. 이것들은 주후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인 본문 사본만을 사용하였고 그 사본이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심스레 그것을 필사하고 불태워 버렸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본들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계통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사본들의 99%를 차지할 정도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등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유세비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등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티칸 도서관과 시내산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값싼 파피루스에 대부분의 사본들을 필사하였기에

이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바티칸 사본 등은 벨럼이라는 가죽에 필사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의 각주에는 종종 "더 좋은 사본 혹은 더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더 좋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은 한결같이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학교로 들어온 본문 비평은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A. Hort) 박사에 의해 널리 파급되었다. 이들은 천주교 사상과 이교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하고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며 유령 길드 같은 심령술 단체를 만들어 자유주의 이교도 신학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쎄이어(J. H. Thayer)와 스미스(V. Smith) 같은 유니테리언 이단들과 함께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를 조직한 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교묘하게 비평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수정 본문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하여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근거로 공인 본문을 개정하여 만든 부패한 본문은 보통 '비평 본문' 혹은 '수정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하던 이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개역성경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고, 그것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역시 1901년에 출간되었으나 성도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개역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신학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여러 면에서 흠이 많은 ASV를 주요 원천으로 해서 번역되었기에 이런 불신 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성경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비록 ERV, ASV 등이 실패하였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뿌려 놓은 성경 의심 사상은 그 이후로 신학문이라는 미명하에 줄기차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들로 파고들어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천주교회가 만든 '비평 본문'을 성경 원어 강좌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교나 학계에서 설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원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센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전서'(The Holy Bible)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에 마귀는 본문 비평과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경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 머독(R. Murdoch)이 소유한 존더밴(Zondervan)이라는 출판사를 이용하여 1970년경부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는 사역(私譯) 성경을 만들어 냈다. 머독은

하퍼 콜린스라는 세속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탄경'(*Satanic Bible*)을 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마스 넬슨 출판사를 매수하여 뉴킹제임스 역본(*NKJV*)을 출간하고 있다(이름에는 킹제임스가 들어가지만 이것 역시 부패된 성경임). 그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함께 대규모 신학교의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활용해 NIV를 홍보하면서 성경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미국 성경 시장의 50% 정도를 잠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천주교회는 계속 득세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므로 부패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낚아챌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배도하는 때에 천주교와 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역본들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말세에는 천주교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훼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흐릿하게 하며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성경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영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영국은 약 400년 동안 완전한 성경이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 부패된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야금야금 그 세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겨우 몇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어 이제 막 성경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성경만을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 근거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성도들이 성경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개역성경이 가져다준 '한국적 기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한 '성경적 기독교'가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바른 성경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알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지 몇 가지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니시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개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변개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를 옹호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진지하게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 구절들을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이 책자의 뒤표지 참조).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의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각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는 부활이나 창조보다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 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성에서 동성애 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뚤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직접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다. 제네바 성경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 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보여 준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 의해 이름이 많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곱을 나타내는데 이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 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단 말인가?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람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던져 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교황이나 천주교 세력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유진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 치 봉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의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1년 치 봉급'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담은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축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대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독자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들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정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략을 바꾸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변개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한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현대 역본들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의 모체인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똥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스던 박사의 회개의 고백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로그스던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록크맨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901년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다.[64]

>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
>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개한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
>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
>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으나

64) http://www.youtube.com/watch?v=wZBeIr1wKGY, 참고로 우리말 개역성경은 로그스던 박사가 개정한 ASV를 번역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현대 역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약화>

KJV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이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개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22:18-19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개하였다.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뮐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을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개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창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 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landmark)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Remove not the ancient landmark,
which thy fathers have set."(Prov. 22:28)

8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본 장에서는 웨이트(D. 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보다 탁월하다.

1. 원어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2. 번역자(Translators)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 항목들을 다음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 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들과 비교될 수 있다.

1. 주 건축자(Master builder):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2. 다른 사람들(Builders):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방법 및 기술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What to build):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1.1 KJV의 구약 본문

>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성경 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히 서기관들은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의 한계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t'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셔니스'(Matres lectioni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 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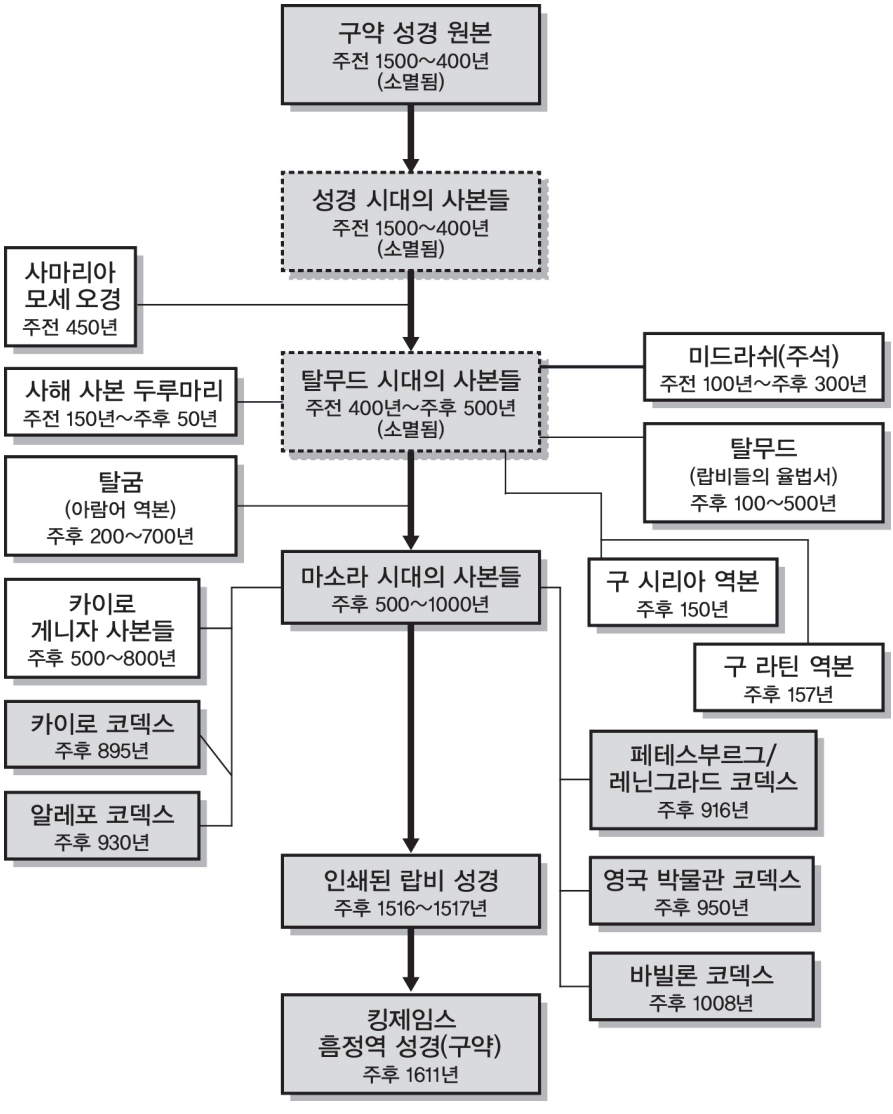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의 「Biblia Hebraica」 최신판(3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 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키텔과 칼레(Paul. E. Kahle, 1875-1964)의 1937년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각주에 15-2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구약 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국제역(*NIV*) 역시 그 서문을 보면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사해 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의 서문 역시 번역자들이 1967/1977년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보통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부르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부른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약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의 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V의 근간이 된 1525년판 「봄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으며,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사해 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말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

이를 통해 우리는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마소라 사본들은 모두 동일한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의 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이들도 KJV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고 KJV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은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하여 KJV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 성경은 '다니엘 봄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불리며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후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불리며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뒤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제공한 키텔(Rudolph Kittel, 1853-1929)은 1906년과 1912년에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Kittel*, BHK) 1, 2판을 편찬해 내면서 본문 비평 장치(Textual critical apparatus)라 불리는 각주들을 이용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20군데씩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각주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에 근거한 것들이다.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전통 마소라 본문'과 매우 다르다.

1929년에 그가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 1875-1964)는 전격적으로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교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20,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한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BHK*)으로 불리는 이 성경, 즉 비전통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V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증오한 키텔의 「BHK 3판」과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단어)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1.4 KJV의 신약 본문

KJV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가 수용했다는 의미의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불린다.

'공인 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과 보나벤쳐(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의 독일어 번역본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KJV의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서문에 그때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하여 얻은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사도 시대부터 약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개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이라는 인식하에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카톨릭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단지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Hort)라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비평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변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비교>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군데 수정: (1,952군데 삭제, 467군데 추가, 3,185군데 변개)
총 페이지 수	647	9,970개 단어 변개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페이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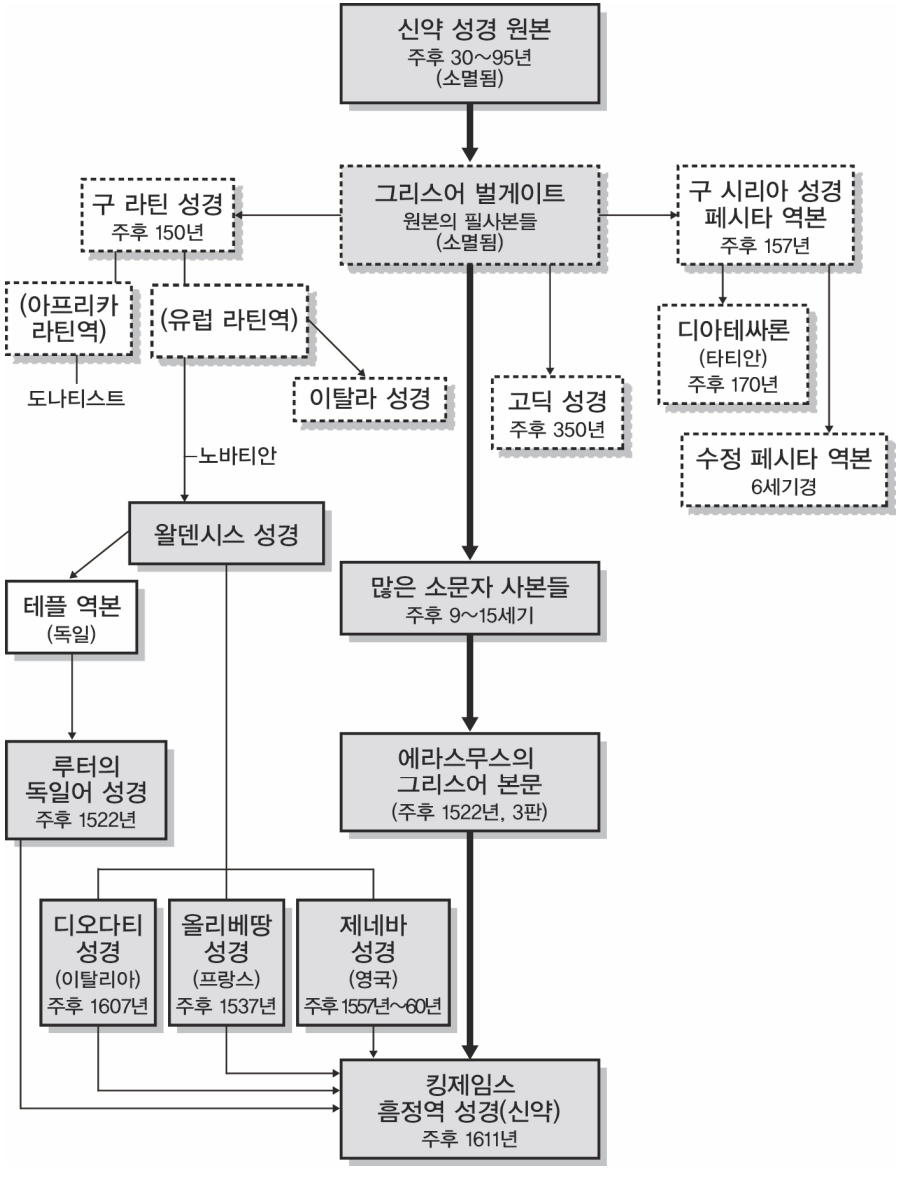
1988년에 무어맨(Jack Moorman) 박사는 '공인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이 1,952군데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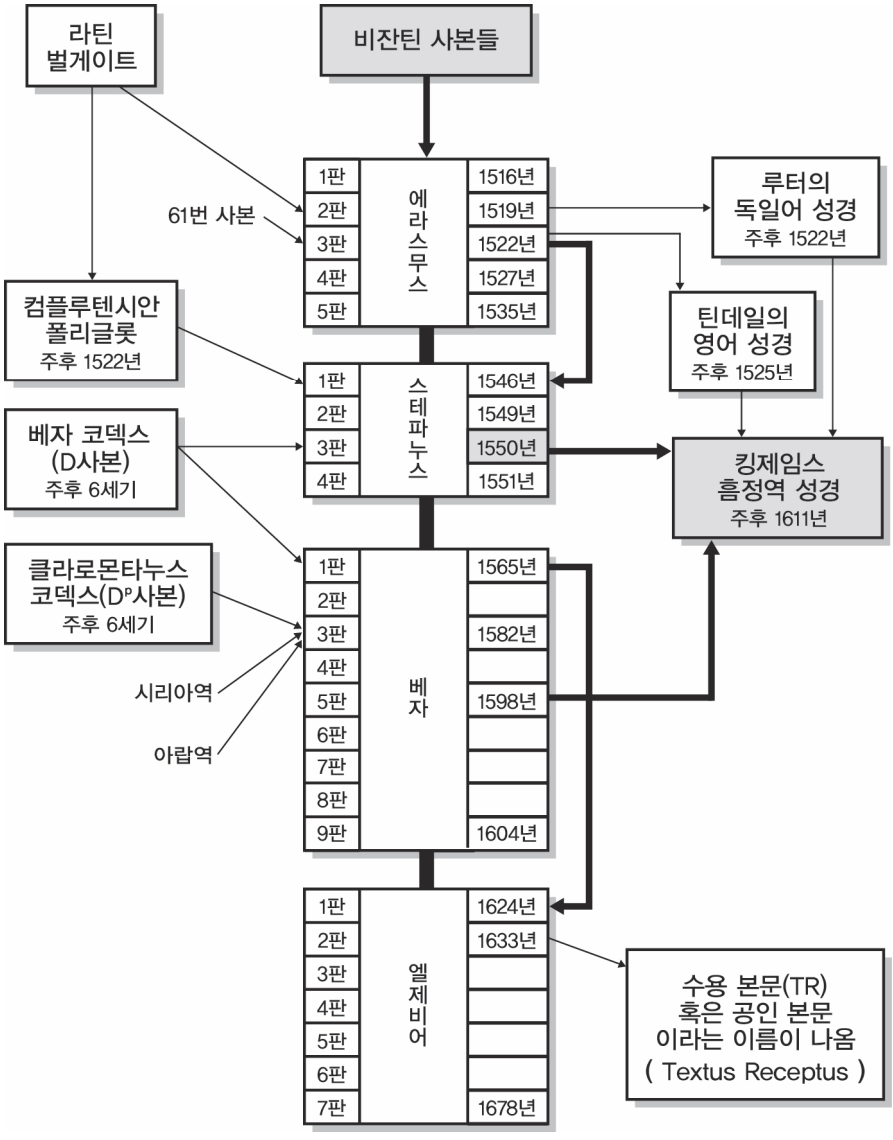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은 비교 대상인 200구절 중에서 변경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공인 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 성경」(정동수 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1.6 역사적 증거들

'공인 본문'(*TR*)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증명한다.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1)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10)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11)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13) 4, 5세기의 'W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14) 5세기의 'A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15) 5,255개의 사본 중 5,210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17) 현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18) 종교 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0) 1522년의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2) 1525년의 「틴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3) 1535년의 프랑스의 「올리베땅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4) 1535년의 「커버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신약 성경 역본 비교: 200구절>

	신약 성경 역본	변경/삭제
1	「한글개역성경」(*Korean Revised Version*)	177
2	「신영어역」(*New English Bible, NEB*)	197
3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195
4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189
5	「버클리역」(*Berkeley Version*)	185
6	「위마우스역」(*Weymouth's in Modern Speech*)	184
7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183
8	「현대인의 성경」(*Good News for Modern Man*)	182
9	「윌리암스역」(*Williams' New Testament*)	180
10	「패닌역」(*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	180
11	「굿스피드역」(*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	179
12	「모팟역」(*Moffatt's New Translation*)	175
13	「우에스트역」(*Wuest's N.T.*)	169
14	「증보역」(*Amplified New Testament*)	165
15	「20세기역」(*Twentieth Century N.T.*)	161
16	「필립스역」(*Phillip's New Testament*)	142
17	「다비역」(*Darby's Translation N.T.*)	138
18	「리빙 바이블」(*Living Bible Paraphrased*)	130
19	「신조합역」(*New Confraternity N.T.*)	119
20	「놀리역」(*Norlie's New Translation N.T.*)	62
21	「람사역」(*Lamsa's Eastern Text N.T.*)	49
22	「웨슬리역」(*John Wesley's Translation N.T.*)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Martin Luther's German N.T.*)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King James Version N.T.*)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전1:17; 2:7; 3:16; 4:12; 6:5; 딤후1:11; 4:1; 4:22; 딛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벧전1:22; 4:1; 4:14; 5:10; 5:11; 벧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36) 1624년의 엘제비어(혹은 엘지버)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1.7 사본들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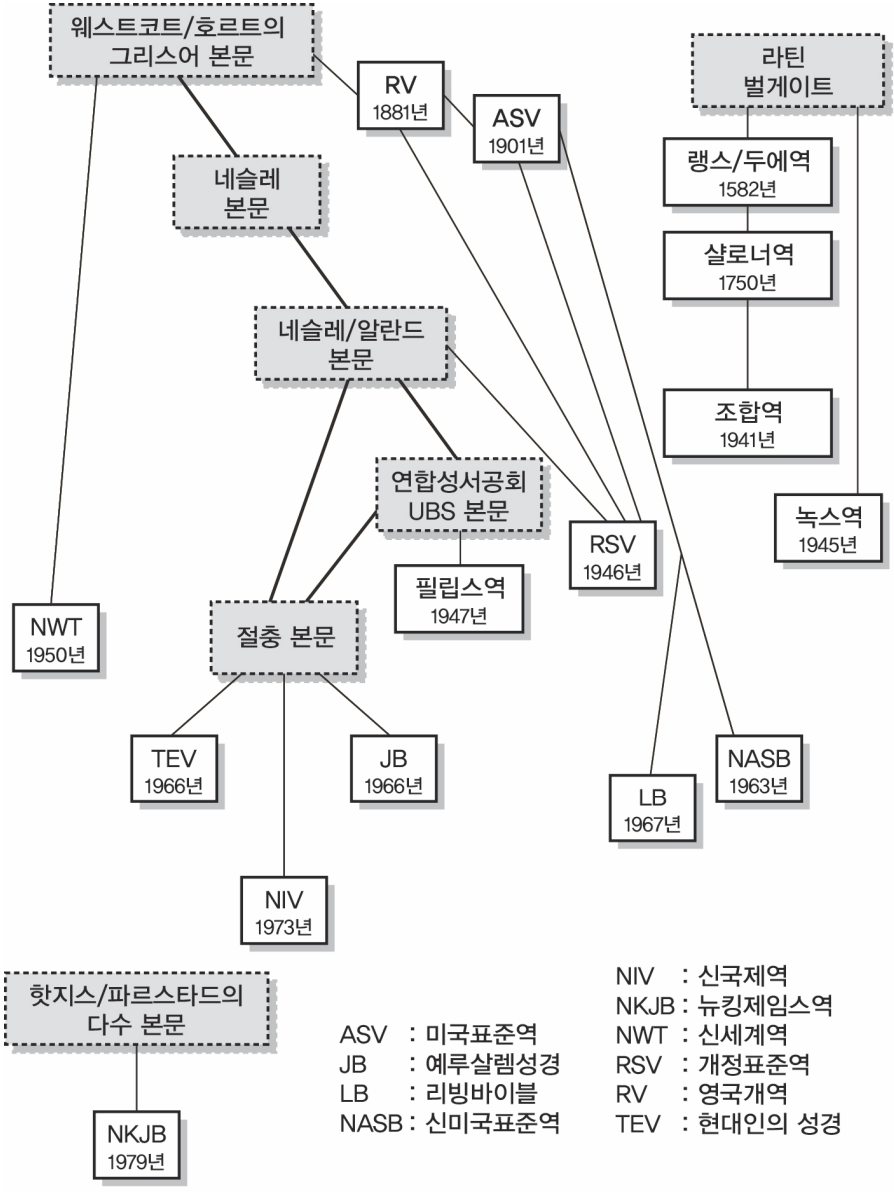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개의 대문자 사본, 2,764개의 소문자 사본, 2,143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68(84%)	13(14%)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의 그리스어 성경은 2012년까지 27번이나 판을 개정하여(현재 28판) 평균 4.2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사람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 1915-1994)는 배도한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뮨스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고 '네슬레/알란드판' 편집 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했다. 그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과 현대 역본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일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주의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들,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들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2.1 KJV 번역자들의 우수성

KJV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으며 따라서 유서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0세기의 중국 고전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5, 16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을 KJV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V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탁월한 학자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항아리나 한나의 기름 단지가 아니며 한두 끼 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로써 우리의 빚이 탕감된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아가게 해 준다. 보통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 길을 그릇이 없이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V의 역자들의 작품과 그에 반해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이나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는 이 책의 4장에 요약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현대 역본 편집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
>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NASB의 창시자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새 역본의 편집자는 자신이 변경한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경한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이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참고 사전은 히틀러의 추종자(게하르트 키텔, 루돌프 키텔의 아들)가 집필한 것으로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 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Dr. Virginia Mollencott)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라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체한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열매이다.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3.1 KJV의 번역 방법

KJV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1. 웨스트민스터 그룹(2조), 2. 옥스퍼드 그룹(2조), 3. 케임브리지 그룹(2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V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가 맡은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 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만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V의 경우에는 57명의 모든 역자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해야 했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미처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었으나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작업을 인수하여 직접 번역을 했다.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하면서 한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의견은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며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V의 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단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KJV 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믿는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V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3.2 KJV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KJV 번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과 기법을 사용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원어와 수용 언어가 다르므로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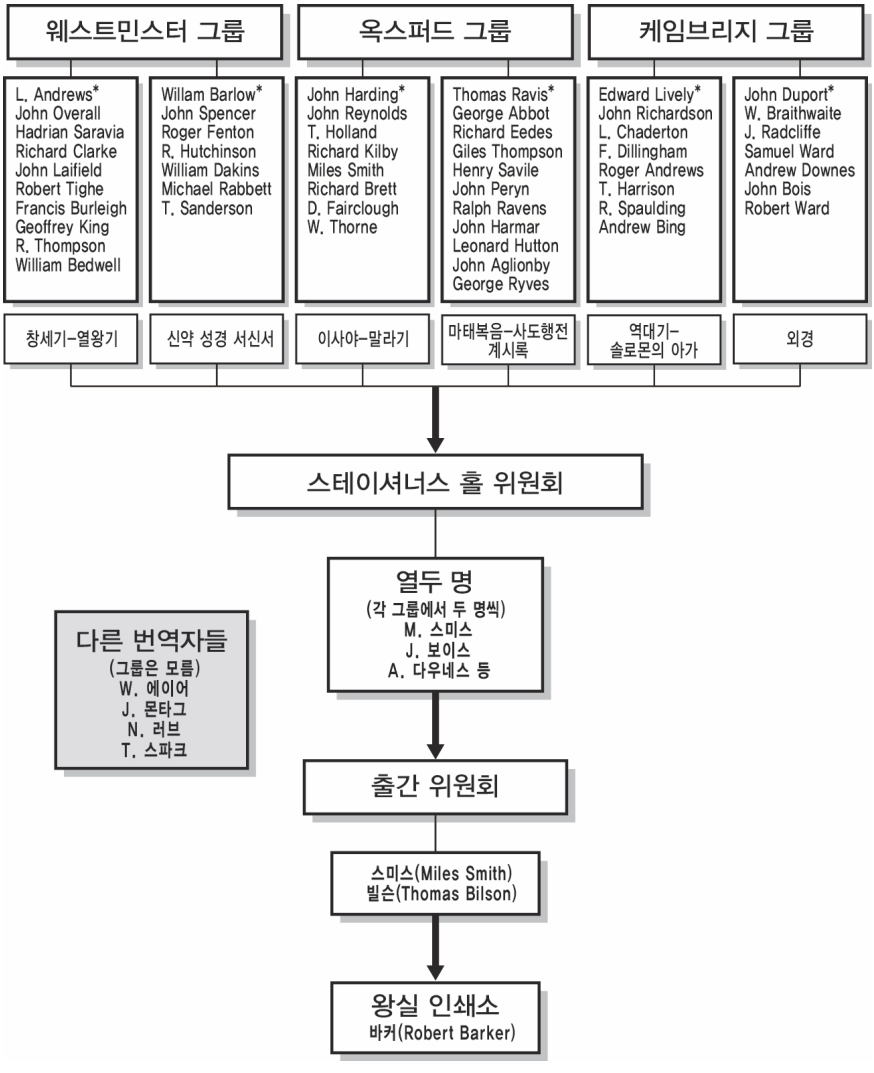
대다수 한국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럼 이것을 역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으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이 같은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대다수 한국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했던 내용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대다수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빙 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변경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경하여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였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의심과 혼동의 근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의 대적자 사탄 마귀의 전략>

(3.3.2) 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에다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 같은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니다(Eugene Nida)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세상에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역본을 위한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는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경하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V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V).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 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고 「BHS」의 경우 구약에서만 약 20,000군데를 수정하였다.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V는 확실치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컴컴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흑색선전용으로 제작된 전면 칼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쉬-킹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드러낸다. 26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KJV는 이 중 23가지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등급 수준 = (0.39 x 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x 단어당 평균 음절 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신구약 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 표가 보여 주듯이 비교 결과 KJV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V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V를 읽을 수 있음을 뜻하고 NIV의 8.4는 미국 학제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V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V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요한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 수준 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2>

	KJV	NIV	NASB	GNMM (TEV)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V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V가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어휘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구원의 소망을 보통 사람들에게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납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V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현대 역본들의 변질된 열매>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이같이 암송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V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V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V에 비해 약 두 배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과대 선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KJV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V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단어/11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단어/5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단어/11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단어/6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단어/9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단어/5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1단어/14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단어/8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단어/12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5단어/9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단어/11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단어/9음절)
총 58단어/68음절		총 33단어/42음절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음 표는 KJV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음절 수가 KJV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부록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KJV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V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6)	rose up to play(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5)
레11:30	skink(1)	snail(1)
고후2:2	conscripted(3)	told(1)
롬1:28	think it worthwhile(4)	like(1)
엡4:16	supporting ligament(6)	joint(1)
눅10:35	reimburse(3)	repay(2)
눅11:26	final condition(5)	last state(2)
총 음절 수	43	17

3.6 KJV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1세기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V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V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좀더 '단순한'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V의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KJV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려움만 더해 준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V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려면「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혹은 1828년판「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V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V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이런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오직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V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V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4.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이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after, cannot disannul…	…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였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하려 한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God,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KJV(롬14:10-12)	NIV 등 현대 역본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V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본문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4.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which thing I hate.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고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4.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ASV, NASB 등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훼손한다.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삭 제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삭 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언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	

4.4 성경론 계속

KJV(벧전2:2)	NIV 등 현대 역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KJV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NIV는 이 사실을 숨기고 또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4.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The nations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4.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고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4.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the Son of man cometh.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4.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닥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닥친다. 또 한 번 KJV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4.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en they shall rise,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4.10 지옥론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 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 제
NIV 편집자들은 무척이나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하였다.	

4.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앎이라.
For ye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in heaven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 편집자들은 '하늘에'를 삭제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의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9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내보이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판입니까, 1629년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 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와 삭제 그리고 바꿔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특정 인물이 이혼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두 번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뭉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더라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16세기의 인쇄소>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다만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킹제임스 성경'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린다. 분명히 이런 학자들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2. 1611년판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단단히 학자티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국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 개정'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 첫 부분의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이른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이 문제를 대하면서 먼저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첫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성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다. 1629년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둘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881년의 '영국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화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둘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된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인쇄상의 변화들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아래에 있는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참조). 고딕체는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독일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요한복음 3장 16절>

고 딕 체	로 마 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

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었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상의 몇 가지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왜 w를 '더블브이'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굵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려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고 사용하는 연막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 철자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동일한 책에서, 때로는 동일한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든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본문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이제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간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시기.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발생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611년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 부록에서 '1611년 KJV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확인해 보면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독자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라고 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

<1611년판과 현재 출간되는 KJV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넣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다.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시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100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이고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인쇄 실수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이 인쇄된 뒤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되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런 변화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개는 1613년에, 1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개는 1629년에, 5개는 1638년에, 1개는 1743년에, 2개는 1762년에, 1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20개 정정 사항 중 16개, 즉 80%가 1611년 초판 인쇄 후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밖에 없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고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이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10

신약 성경 역본 평가

1981년에 파울러(Everett W. Fowler)는 '신약 성경 역본 평가'(*Evaluating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65]라는 책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영어 역본들, 그리고 그것들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을 비교/분석했다. 그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Westcott and Hort*),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Nestle*), 그리고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the United Bible Society*) 등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3종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분석하였고 이것들과 더불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공인 본문'(*Greek Received Text*)을 비교했다.

본문 비교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그리스어 본문과 역본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 그리스어 공인 본문

16세기 초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요 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최초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하고 인쇄하여 스위스의 바젤에서 출간하였다. 그 뒤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은 여러 판이 출간되었고 파리에서는 스테파누스(스테판) 성경이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다.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3판은 후에 출간된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과 함께 '공인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 말은 1633년도에 출간된 엘제비어 성경의 서문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다. 스테파누스 성경 이후에 칼빈의 뒤를 이은 베자가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중에서 1598년도에 출간된 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대본이 되었다.

●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공인 본문은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새로운 그리스어 본문을 펴내기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독일 이성주의/자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바흐(J. J. Griesbach)와 라흐만(C. Lachmann) 그리고 티센도르프(C. Tischendorf) 같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본문 비평 이론을 내세우며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무려 수천 군데가 다른 새로운 '수정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

65) E. Fowler, 「Evaluating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Cedarville, IL: Straight Street, Inc., 1981), pp. 28-41.

그 이후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새로운 현대 역본들의 번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본문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ℵ)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이 둘이 차이를 보일 때에는 바티칸 사본을 따랐다. 이 두 사람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대다수 사본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약 성경을 고대 다른 문서를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신약 성경 본문을 자연주의 철학[66]의 잣대로 평가해 버렸다.

●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1898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성경은 에버하르트 네슬레와 그의 아들인 에르윈 네슬레가 편집했으며 후에는 알란드가 이것을 편집하였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도 여러 사본을 근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따랐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편집자들 역시 자연주의적 견해를 추구하며 인본주의의 산물인 본문 비평을 수용했다.

●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1966년에 미국성서공회는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초판을 출간했고 그 뒤 1968년에는 2판이, 1976년에는 3판이 나왔다. 초판의 편집자는 알란드, 블랙, 메츠거, 위크렌 등이었으며 2판과 3판은 천주교 교황 성경 연구소의 마르티니 추기경 역시 편집자로 선정되었다. 3판의 서문에서 그들은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이 네슬레의 26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성경의 편집자들 역시 네슬레판의 편집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적/인본주의적 견해를 따라 본문을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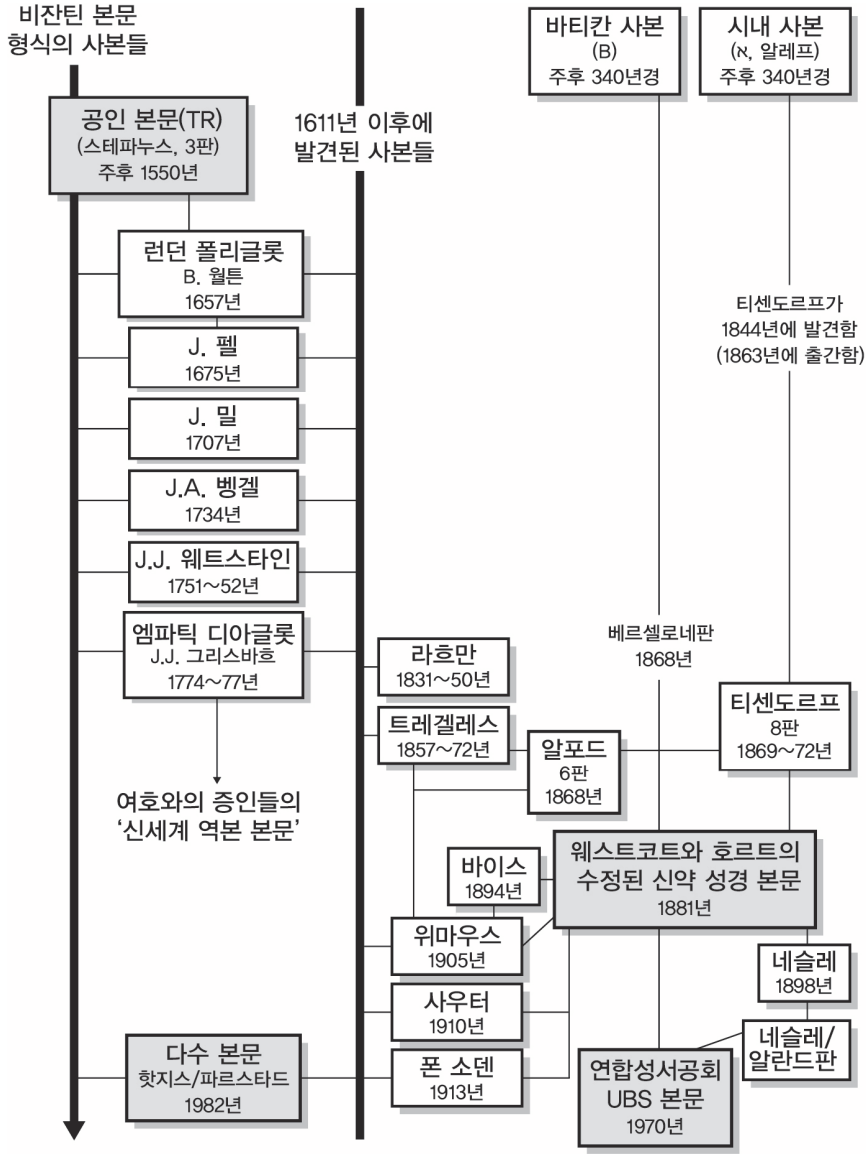
본 부록의 저자는 한글 성경들도 동일한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킹제임스 성경 – 혹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 – 과 매우 다름을 보여 주기 위해 파울러가 만든 표에다 한글 성경 난을 추가했다. 표 1은 전체 구절이 삭제된 경우를 보여 주며 표 2는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삭제된 경우를 보여 준다. 이 표들에는 세

66) 성경 본문을 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적인 견해'(Biblical view)로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영감(inspiration)을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섭리(providence)를 통해 보존해 주심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견해는 성경은 내용이나 보존 등에서 고대의 다른 문서와 확연히 다르다고 믿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장로교인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침례교인들의 런던 신앙 고백 등을 만든 성경 신자들이 수용한 견해이다. 반면에 '자연주의적 견해'(Naturalistic view)는 성경도 고대의 다른 문서들과 같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성경의 내용이나 보존 등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학자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

개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Critical Greek texts*)과 두 개의 현대 영어 역본(*NIV, NASB*), 그리고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 세 개의 한글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및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비교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은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과 NIV, NASB만큼이나 절 전체가 삭제된 빈도가 많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한글 성경들이 자연주의 견해에 따른 부패한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에 근거했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 부분이 삭제된 구절들은 총 200개 사례 중에서 '비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189.7개(95%), 현대 영어 역본들이 182.5개(91%), 그리고 한글 성경들이 170.3개(85%)로 나타났다. 한글 성경들의 삭제 빈도가 '비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현대 영어 역본들보다 낮은 것은 번역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도 가끔씩 참조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글 성경들의 삭제 빈도가 '비평 그리스어 본문'이나 현대 영어 역본들보다 10% 정도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역성경은 다른 한글 성경보다 삭제 빈도가 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잔틴 본문
형식의 사본들
공인 본문(TR)
(스테파누스, 3판)
주후 1550년
1611년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
바티칸 사본
(B)
주후 340년경
시내 사본
(א, 알레프)
주후 340년경
런던 폴리글롯
B. 월튼
1657년
J. 펠
1675년
J. 밀
1707년
J.A. 벵겔
1734년
J.J. 웨트스타인
1751~52년
엠파틱 디아글롯
J.J. 그리스바흐
1774~77년
티센도르프가
1844년에 발견함
(1863년에 출간함)
베르셀로네판
1868년
라흐만
1831~50년
트레겔레스
1857~72년
알포드
6판
1868년
티센도르프
8판
1869~72년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본문'
바이스
1894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된 신약 성경 본문
1881년
위마우스
1905년
네슬레
1898년
사우터
1910년
네슬레/
알란드판
다수 본문
핫지스/파르스타드
1982년
폰 소덴
1913년
연합성서공회
UBS 본문
1970년

<그리스어 비평 본문 계보>

표의 부호 및 성경 명칭

1. 그리스어 신약 성경

WH =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Westcott and Hort, 1881)
N =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23판(Nestle, 23판, 1957)
BS =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UBS, 3판, 1976)

2. 영어 성경

NASB =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
NIV =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

3. 한글 성경

개역 = 개역성경, 1961
공동 = 공동번역, 1977
표준 = 표준새번역, 1993

4. 표의 부호

* = 주 하나님을 약화하기 위해 삭제된 구절/단어
‡ =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주는 구절/단어
Om = 단어/구절이 삭제된 것
SB = 단어/구절이 [괄호] 처리된 것
DB = 단어 구절이 〖이중 괄호〗 처리된 것
– = 삭제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된 것

표 1 전체가 삭제되거나 괄호 처리된 구절들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	마12:47*	Om	SB	SB	–	–	–	–	SB
2	17:21	Om	Om	Om	Om	Om	Om	Om	Om
3	18:11*	Om	Om	Om	SB	Om	Om	Om	Om
4	21:44	SB	SB	DB	–	–	–	SB	SB
5	23:14	Om	Om	Om	SB	Om	Om	Om	Om
6	막7:16	Om	Om	Om	Om	Om	Om	Om	Om
7	9:44	Om	Om	Om	Om	Om	Om	Om	Om
8	9:46	Om	Om	Om	Om	Om	Om	Om	Om
9	11:26	Om	Om	Om	Om	Om	Om	Om	Om
10	15:28*	Om	Om	Om	Om	Om	Om	Om	Om
11	16:9–20*	DB	DB	DB	SB	–	SB	–	DB
12	눅17:36	Om	Om	Om	Om	Om	Om	Om	Om
13	22:20	DB	DB	–	–	–	–	–	–
14	22:43	DB	DB	DB	–	–	–	Om	DB
15	22:44	DB	DB	DB	–	–	–	Om	DB
16	23:17	Om	Om	Om	Om	Om	Om	Om	Om
17	24:12*	DB	Om	–	SB	–	–	–	–
18	24:40*	DB	Om	–	Om	–	–	–	–
19	요5:4	Om	Om	Om	Om	Om	SB	SB	DB
20	7:53–8:11*	DB	Om	DB	SB	–	SB	SB	DB
21	행8:37*	Om	Om	Om	Om	Om	Om	Om	Om
22	15:34	Om	Om	Om	Om	Om	Om	Om	Om
23	24:7	Om	Om	Om	Om	Om	Om	SB	Om
24	28:29	Om	Om	Om	Om	Om	Om	Om	Om
25	롬16:24	Om	Om	Om	Om	Om	Om	Om	Om
26	요일5:7	Om	Om	Om	Om	Om	Om	Om	Om
삭제 구절 수		18	20	17	16	17	16	17	16

표 1의 성경 구절 목록

(1) 마12: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2)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3) 마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4) 마21: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5)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6) 막7: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7)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8)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9) 막11: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10) 막15:28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11) 막16:9-20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고하였으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12)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13) 눅22:20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14) 눅22:43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15) 눅22: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16)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7) 눅24:12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18) 눅24:4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19) 요5: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20) 요7:53-8:11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21)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22)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23) 행24:7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24)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25)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6)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1)[67]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	마5:27	Om	Om	Om	Om	Om	Om	Om	Om
2	5:44	Om	Om	Om	Om	Om	Om	Om	Om
3	5:44	Om	Om	Om	Om	Om	Om	Om	Om
4	6:13*	Om	Om	Om	SB	Om	SB	SB	DB
5	13:51*	Om	Om	Om	Om	–	Om	Df	Df
6	15:6	Om	–	Om	–	Om	–	–	–
7	15:8*	Om	Om	Om	Om	Om	Om	Om	Om
8	19:9	Om	Om	Om	Om	Om	Om	Om	Om
9	19:20	Om	Om	Om	Om	Om	Om	Om	Om
10	20:7	Om	Om	Om	Om	Om	Om	Om	Om
11	20:16	Om	Om	Om	Om	Om	Om	Om	Om
12	20:22*	Om	Om	Om	Om	Om	Om	Om	Om
13	20:23*	Om	Om	Om	Om	Om	Om	Om	Om
14	22:13	Om	Om	Om	Om	Om	Om	Om	Om
15	23:4	Om	Om	SB	Om	Om	Om	Om	–
16	23:5	Om	Om	Om	–	–	–	–	–
17	25:13*	Om	Om	Om	Om	Om	Om	Om	Om
18	26:3	Om	Om	Om	Om	Om	Om	Om	Om
19	26:60	Om	Om	Om	Om	Om	Om	Om	Om
20	27:35*‡	Om	Om	Om	Om	Om	Om	Om	Om
21	28:2	Om	Om	Om	Om	Om	Om	Om	Om
22	28:9*	Om	Om	Om	Om	Om	Om	Om	Om
23	막1:1‡	Om	Om	SB	–	–	–	–	–
24	1:14	Om	Om	Om	Om	Om	Om	Om	Om
25	1:42*	Om	Om	Om	Om	Om	Om	Om	Om

67) 표 2는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사례들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배열하여 보여 준다.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2)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26	막3:5	Om	Om	Om	Om	–	Om	Df	Om
27	3:15	Om	Om	Om	Om	Om	Om	Om	Om
28	6:11*	Om	Om	Om	Om	Om	Om	Om	Om
29	6:33*	Om	Om	Om	Om	Om	Om	Om	Om
30	6:36	Om	Om	Om	Om	Om	Om	Om	Om
31	7:2	Om	Om	Om	Om	Om	Om	Om	Om
32	7:8	Om	Om	Om	Om	Om	Om	Om	Om
33	8:9	Om	Om	Om	Om	Om	Om	–	Om
34	8:26	Om	Om	Om	Om	Om	Om	Om	Om
35	9:38	Om	–	Om	Om	Om	–	Om	Om
36	9:45	Om	Om	Om	Om	Om	Om	Om	Om
37	9:49	Om	Om	Om	Om	Om	Om	Om	Om
38	10:7	Om	Om	SB	Om	–	Om	–	–
39	10:21	Om	Om	Om	Om	Om	Om	Om	Om
40	10:24‡	Om	Om	Om	Om	Om	Om	Om	Om
41	11:8	Om	Om	Om	Om	Om	Om	–	–
42	11:10*	Om	Om	Om	Om	Om	Om	Om	Om
43	11:23	Om	Om	Om	Om	Om	Om	Om	Om
44	12:23	Om	–	SB	–	Om	–	–	–
45	12:29	Om	Om	Om	Om	Om	Om	Om	Om
46	12:30	Om	Om	Om	Om	Om	Om	Om	Om
47	12:33	Om	Om	Om	Om	Om	Om	Om	Om
48	13:11	Om	Om	Om	Om	Om	Om	Om	Om
49	13:14	Om	Om	Om	Om	Om	Om	Om	Om
50	14:19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3)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51	막14:27*	Om	Om	Om	Om	Om	Om	Om	Om
52	14:68	Om	Om	SB	Om	Om	Om	Om	Om
53	14:70	Om	Om	Om	Om	Om	Om	Om	Om
54	15:3*	Om	Om	Om	Om	Om	Om	Om	Om
55	눅1:28	Om	Om	Om	Om	Om	Om	Om	Om
56	1:29	Om	Om	Om	Om	Om	Om	Om	Om
57	2:42	Om	Om	Om	Om	Om	Om	–	Om
58	4:4*	Om	Om	Om	Om	Om	Om	Om	Om
59	4:5	Om	Om	Om	Om	–	Om	Om	Om
60	4:8*	Om	Om	Om	Om	Om	Om	Om	Om
61	4:18	Om	Om	Om	Om	Om	Om	Om	Om
62	5:38	Om	Om	Om	Om	Om	Om	Om	Om
63	6:45	Om	Om	Om	Om	–	Df	Df	–
64	7:31*	Om	Om	Om	Om	Om	Om	Df	Om
65	8:43	Om	Om	SB	Om	Om	Om	–	SB
66	8:45	Om	Om	Om	Om	Om	Om	Om	Om
67	8:45*	Om	Om	Om	Om	Om	Om	Om	Om
68	8:48	Om	Om	Om	Om	Om	Om	Om	Om
69	8:54	Om	Om	Om	Om	Om	Om	Om	Om
70	9:10	Om	Om	Om	Om	Om	Om	Om	Om
71	9:54	Om	Om	Om	Om	Om	Om	Om	Om
72	9:55	Om	Om	Om	Om	Om	Om	Om	Om
73	9:56*	Om	Om	Om	Om	Om	Om	Om	Om
74	10:38	–	–	Om	–	–	–	–	–
75	11:2*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4)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76	눅11:2*	Om	Om	Om	Om	Om	Om	Om	Om
77	11:4	Om	Om	Om	Om	Om	Om	Om	Om
78	11:11	Om	Om	Om	Om	Om	Om	Om	Om
79	11:44	Om	Om	Om	Om	Om	Om	Om	Om
80	11:54*	Om	Om	Om	Om	Om	Om	Om	Om
81	12:39	–	Om	Om	Om	Om	Om	Om	Om
82	17:9*	Om	Om	Om	Om	Om	Om	Om	Om
83	17:24*	Om	–	SB	–	–	–	Df	–
84	18:24	Om	Om	SB	Om	Om	Om	Om	–
85	19:45	Om	Om	Om	Om	Om	Om	Om	Om
86	20:13	Om	Om	Om	Om	Om	Om	Om	Om
87	20:23*	Om	Om	Om	Om	Om	Om	Om	Om
88	20:30	Om	Om	Om	Om	Om	Om	Om	Om
89	22:31*	Om	Om	Om	Om	Om	Om	Om	Om
90	22:64*	Om	Om	Om	Om	Om	Om	Om	Om
91	22:68*	Om	Om	Om	Om	Om	Om	Om	Om
92	23:23	Om	Om	Om	Om	Om	Om	Om	Om
93	23:38	Om	Om	Om	Om	Om	Om	Om	Om
94	24:1	Om	Om	Om	Om	Om	Om	Om	Om
95	24:36*	DB	Om	–	Om	–	–	–	–
96	24:42	Om	Om	Om	Om	Om	Om	Om	Om
97	24:46	Om	Om	Om	Om	Om	Om	Om	Om
98	24:51*‡	DB	Om	–	Om	–	SB	–	SB
99	24:52*	DB	Om	–	Om	–	Om	Om	Om
100	요1:27*‡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5)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01	요3:13*‡	Om	Om	Om	Om	Om	Om	Om	Om
102	3:15	Om	Om	Om	Om	Om	Om	Om	Om
103	5:3	Om	Om	Om	Om	Om	SB	SB	DB
104	5:16*	Om	Om	Om	Om	Om	Om	Om	Om
105	6:11	Om	Om	Om	Om	Om	Om	Om	Om
106	6:22*	Om	Om	Om	Om	Om	Om	Om	Om
107	6:47*‡	Om	Om	Om	Om	Om	Om	Om	Om
108	6:51*	Om	Om	Om	–	–	Om	Om	Df
109	7:46	Om	–	Om	–	–	–	–	Df
110	8:9	Om	Om	Om	Om	Om	–	Om	Om
111	8:9	Om	Om	Om	Om	Om	Om	Om	Om
112	8:10	Om	Om	Om	Om	Om	–	Om	Om
113	8:10	Om	Om	Om	Om	Om	–	Om	Om
114	8:59*‡	Om	Om	Om	Om	Om	Om	Om	Om
115	9:6	Om	Om	Om	Om	Om	Om	–	Om
116	10:13	Om	Om	Om	–	–	–	Df	Df
117	10:26*	Om	Om	Om	Om	Om	Om	Om	Om
118	11:41	Om	Om	Om	Om	Om	Om	Om	Om
119	12:1	Om	Om	Om	Om	Om	Om	Om	Om
120	13:32*	Om	–	SB	–	–	Df	Df	SB/Df
121	16:16*	Om	Om	Om	Om	Om	Om	Om	Om
122	17:12	Om	Om	Om	Om	Om	Om	Om	Om
123	19:16	Om	Om	Om	Om	Om	Om	Om	Om
124	행2:30*	Om	Om	Om	Om	Om	Om	Om	Om
125	2:47	Om	Om	Om	–	–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6)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26	행3:11	Om	Om	Om	Om	Om	Df	Om	Om
127	7:37*	Om	Om	Om	Om	Om	Om	Om	Om
128	9:5	Om	Om	Om	Om	Om	Om	Om	Om
129	9:6*	Om	Om	Om	Om	Om	Om	Om	Om
130	10:6	Om	Om	Om	Om	Om	Om	Om	Om
131	10:12	Om	Om	Om	Om	Om	Om	Om	Om
132	10:21	Om	Om	Om	Om	Om	Om	Om	Om
133	10:32	Om	Om	Om	Om	Om	Om	Om	Om
134	13:42	Om	Om	Om	Om	Om	Df	Df	Df
135	15:18*	Om	Om	Om	Om	Om	Om	Om	Om
136	15:24	Om	Om	Om	Om	Om	Om	Om	Om
137	18:21	Om	Om	Om	Om	Om	Om	Om	Om
138	20:15	Om	Om	Om	Om	Om	Om	Om	Om
139	21:8	Om	Om	Om	Om	Om	Om	Om	Om
140	21:22	Om	Om	Om	Om	Om	Om	Om	Om
141	21:25	Om	Om	Om	Om	Om	Om	Om	Om
142	22:9	Om	Om	Om	Om	Om	Om	Om	Om
143	22:20	Om	Om	Om	Om	Om	Om	Df	Df
144	23:9*	Om	Om	Om	Om	Om	Om	Om	Om
145	24:6	Om	Om	Om	Om	Om	Om	SB	Om
146	24:8	Om	Om	Om	Om	Om	Om	SB	Om
147	24:26	Om	Om	Om	Om	Om	Om	Om	Om
148	26:30	Om	Om	Om	Om	Om	Om	Om	Om
149	28:16	Om	Om	Om	Om	Om	Om	Om	Om
150	롬1:16*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7)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51	롬8:1*	Om	Om	Om	Om	Om	Om	Om	Om
152	9:28	Om	Om	Om	Om	Om	Om	Om	Om
153	10:15	Om	Om	Om	Om	Om	Om	Om	Om
154	11:6	Om	Om	Om	Om	Om	Om	Om	Om
155	13:9	Om	Om	Om	Om	Om	Om	Om	Om
156	14:6*	Om	Om	Om	Om	Om	Om	Om	Om
157	14:21	Om	Om	Om	Om	Om	Om	Om	Om
158	15:24	Om	Om	Om	Om	Om	Om	Om	Om
159	15:29	Om	Om	Om	Om	Om	Om	Om	Om
160	고전6:20*	Om	Om	Om	Om	Om	Om	Om	Om
161	10:28*	Om	Om	Om	Om	Om	Om	Om	Om
162	11:24	Om	Om	Om	Om	Om	Om	Om	Om
163	15:54	Om	–	–	–	–	–	Df	–
164	갈3:1	Om	Om	Om	Om	Om	Om	Om	Om
165	엡3:14*	Om	Om	Om	Om	Om	Om	Om	Om
166	5:30*	Om	Om	Om	Om	Om	Om	Om	Om
167	빌3:16	Om	Om	Om	Om	Om	Om	Om	Om
168	3:21	Om	Om	Om	Om	–	Om	Om	–
169	골1:2*	Om	Om	Om	Om	Om	Om	Om	Om
170	1:14*‡	Om	Om	Om	Om	Om	Om	Om	Om
171	3:6	Om	Om	SB	Om	Om	Om	–	–
172	살전1:1*	Om	Om	Om	Om	Om	Om	Om	Om
173	딤전3:3	Om	Om	Om	Om	Om	Om	Om	Om
174	6:5	Om	Om	Om	Om	Om	Om	Om	Om
175	6:7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8)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76	히2:7*	SB	Om	Om	–	Om	Om	Om	Om
177	3:6	SB	SB	Om	–	Om	–	Om	Om
178	7:21	Om	Om	Om	Om	Om	Om	Om	Om
179	8:12	Om	Om	Om	Om	Om	Om	Om	Om
180	10:30*	Om	Om	Om	Om	Om	Om	Om	Om
181	10:34	Om	Om	Om	Om	Om	Om	Om	Om
182	11:11	Om	Om	Om	Om	Om	Om	Om	Om
183	11:13	Om	Om	Om	Om	Om	Om	Om	Om
184	12:20	Om	Om	Om	Om	Om	Om	Om	Om
185	벧전1:22*	Om	Om	Om	Om	Om	Om	Om	Om
186	4:3	Om	Om	Om	Om	Om	Om	Om	Om
187	4:14*	Om	Om	Om	Om	Om	Om	Om	Om
188	5:2	Om	Om	SB	Om	–	Om	Df	–
189	벧후3:10	Om	Om	Om	Om	Om	Om	Om	Om
190	요일4:3*‡	Om	Om	Om	Om	Om	Om	Om	Om
191	5:13*	Om	Om	Om	Om	Om	Om	Om	Om
192	계1:8*‡	Om	Om	Om	Om	Om	Om	Om	Om
193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4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5	5:14	Om	Om	Om	Om	Om	Om	Om	Om
196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7	11:17*‡	Om	Om	Om	Om	Om	Om	Om	Om
198	14:5*	Om	Om	Om	Om	Om	Om	Om	Om
199	15:2	Om	Om	Om	Om	Om	Om	Om	Om
200	21:24	Om	Om	Om	Om	Om	Om	Om	Om
계		193	191	185	185	180	178	170	173

표 2의 성경 구절 목록[68)]

(1) 마5:27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2)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3)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 마6: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5) 마13: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6) 마15: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7) 마15:8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8) 마19: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9) 마19: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므로”

(10) 마20: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11) 마20: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12) 마20: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13) 마20: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14) 마22:13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15) 마23:4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

68) 각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현대 역본에서 삭제된 부분임.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16) 마23:5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17) 마25: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18) 마26:3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19) 마26:60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20) 마27: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21) 마28:2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22) 마28:9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23)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4) 막1:14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25) 막1:42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26) 막3:5 "그들의 마음이 강퍅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27) 막3:15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28) 막6:11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29) 막6:33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간 뒤 그들을 앞질러 그분께 같이 왔더라."

(30) 막6:36 "그들을 보내사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31) 막7:2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

(32) 막7:8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33) 막8:9 "먹은 자들은 사천 명쯤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34) 막8:26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35) 막9:38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였으나"

(36) 막9:45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37) 막9:49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38) 막10:7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39) 막10:2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40) 막10: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41) 막11:8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42) 막11:10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43) 막11: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44) 막12:23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45) 막12: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들 중의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46) 막12:30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47) 막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48) 막13: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49) 막13:14 "그러나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50) 막14:19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께, 그게 나니이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며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이까? 하고 말하매"

(51) 막14: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52) 막14:68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53) 막14:70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매"

(54) 막15:3 "수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55) 눅1:28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을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56) 눅1:29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57) 눅2:42 "그분께서 열두 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58) 눅4: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9) 눅4:5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60) 눅4: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61) 눅4:18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62) 눅5:38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63) 눅6:45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64) 눅7:31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65) 눅8:43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66) 눅8: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67) 눅8: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

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68) 눅8:48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69) 눅8:54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70) 눅9: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새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곳으로 가시니라."

(71) 눅9:54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 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72) 눅9:55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73) 눅9: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74) 눅10:38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75) 눅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6) 눅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7) 눅11:4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하라."

(78) 눅11: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79) 눅11:4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80) 눅11:54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81) 눅12:39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82) 눅17:9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83) 눅17: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84) 눅18:24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85) 눅19:45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86) 눅20:13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나"

(87) 눅20:23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88) 눅20:30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89) 눅22:31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90) 눅22:64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91) 눅22:6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92) 눅23: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93) 눅23:38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94) 눅24:1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95) 눅24:36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96) 눅24: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97) 눅24:46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98) 눅24:51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99) 눅24:52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00) 요1:27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101) 요3: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02) 요3: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03) 요5:3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104) 요5: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105) 요6:11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106) 요6:22 "그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107) 요6: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108) 요6: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109) 요7: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10) 요8: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11) 요8: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12) 요8: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3) 요8: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4) 요8: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115) 요9:6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116) 요10:13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7) 요10: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18) 요11: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119) 요12: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120) 요13: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121) 요16: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22) 요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123) 요19:16 "그러므로 그때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124) 행2:30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125) 행2: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126) 행3:11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127) 행7:37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128) 행9:5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129) 행9:6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130) 행10:6 "그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131) 행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132) 행10:21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133) 행10:32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134) 행13:42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135) 행15:18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136) 행15:24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137) 행18:21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138) 행20:15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139) 행21:8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일곱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140) 행21:22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141) 행21: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142) 행22:9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143) 행22:20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144) 행23:9 "큰 아우성이 생기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145) 행24:6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146) 행24:8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147) 행24:26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148) 행26:30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149) 행28:16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150) 롬1: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51)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152) 롬9: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153) 롬10: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54) 롬11:6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155) 롬13:9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156) 롬14: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157) 롬14: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158) 롬15: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159) 롬15: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160) 고전6: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1) 고전10: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162) 고전11: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163) 고전15: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164) 갈3: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165) 엡3:14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166) 엡5: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167) 빌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168) 빌3:21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영어로는 that it may be가 생략됨)

(169) 골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70) 골1: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71) 골3:6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172) 살전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73) 딤전3:3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174) 딤전6:5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175) 딤전6:7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176) 히2:7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177) 히3: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178) 히7:21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179) 히8:12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180) 히10:30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181) 히10:34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182) 히11:11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183) 히11:13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184) 히12:20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185) 벧전1:22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86) 벧전4:3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187) 벧전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188) 벧전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189) 벧후3: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90) 요일4: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191) 요일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92) 계1: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93) 계1: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94) 계1: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95) 계5: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196) 계11:1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97) 계11: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198) 계14: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199) 계15:2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200) 계21: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최근에 어떤 분이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이 전체 사본의 99%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 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글을 적습니다.

사본(manuscript)이라는 말은 손으로 베껴 쓴 책이나 문서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는 필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고대 번역본(라틴어 역본 10,000개, 다른 역본 9,300개)을 포함해서 약 25,000개의 사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비평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들이며 이 경우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현재 약 5,800개 정도 됩니다.[69]

이런 사본들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본들이 발견됨에 따라 사본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은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1. 파피루스 사본
2. 그리스어 대문자(엉셜) 사본
3. 그리스어 소문자(커시브) 사본
4. 성구집 사본

여기서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사본은 성경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기록한 '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반면에 성구집은 성구 묵상집으로서 매일 혹은 매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비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그리스어의 경우, 초기에는 대문자만 쓰이다가 7-8세기경에 소문자가 정착되면서 9세기 이후에는 소문자가 대문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성구집의 경우 초기 것은 대문자로, 9세기 이후의 것은 소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둘을 모두 합쳐 그냥 성구집 사본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은 대개 벨럼이라 불리는 양피지 가죽에 책(codex)의 형태로 기록되었기에 코덱스(codex) 사본이라고 합니다. 성구집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의 경우도 대개 대문자 사본은 초기의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후기의 것입니다.

한편 파피루스 사본은 4세기 이전의 초기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기록 재질이 다르므로 대문자 사본이라 하지 않고 그냥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

69) https://en.wikipedia.org/wiki/Biblical_manuscript

합니다. 대부분의 파피루스 사본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고 영지주의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무어맨 박사(Dr. Jack Moorman)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들의 수는 5,555개입니다.[70]

1. 파피루스 사본 124개
2. 대문자 사본 280개
3. 소문자 사본 2,808개
4. 성구집 사본 2,343개

현재는 이보다 조금 늘어났고 이것들의 최근 명단은 <위키백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71]

그런데 5,500여 개 사본 중에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비평 본문(Critical text, 소수 사본)을 지지하는 것은 약 40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며 사실 나머지는 여러 부분에서 이 둘을 지지할 뿐입니다.

독일의 알란드(알란트)와 같이 비평 본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증거에서 많은 증거를 만들어 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The constantly cited witnesses)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늘립니다.

'네슬레/알란드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판 혹은 28판에 보면, 알란드는 자신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1등급(꾸준히 늘 인용되는 사본들), 2등급(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3등급(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증거 사본들이라는 기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27권 책들에 대해 1등급 증거들, 즉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이라는 사본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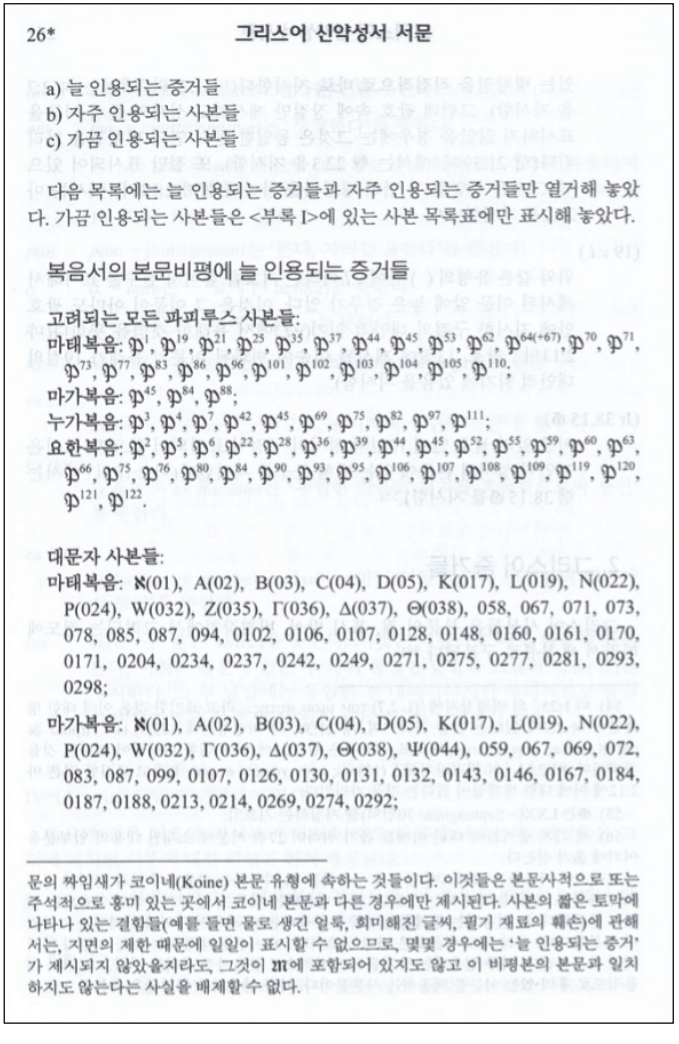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의 한국어 서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

70) 「현대 성경들에서 사라진 것들」(*Missing in Modern Bibles*), 35쪽 이하. 이 책은 KeepBible.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사이트의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사본들의 압도적인 증거'라고 치면 관련 기사가 나오며 맨 밑에 PDF 파일이 있음).

71) 1. 파피루스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papyri
2. 대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uncials
3. 소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s_of_New_Testament_minuscules
4. 성구집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lectionaries

알란드의 정의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한 책에 대해 1등급으로 분류된 사본은 다른 책에 대해서는 1등급 증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본이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고 – 10%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름 – 다른 책들에서는 전통 본문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본의 경우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므로 사본 전체로 보면 전통 본문과 다른 부분이 1%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란드는 이런 사본을 마태복음에 대한 1등급 증거라고 분류합니다.



26* 그리스어 신약성서 서문

a) 늘 인용되는 증거들
b) 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c)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다음 목록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과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만 열거해 놓았다.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은 <부록 I>에 있는 사본 목록표에만 표시해 놓았다.

복음서의 본문비평에 늘 인용되는 증거들

고려되는 모든 파피루스 사본들:
마태복음: $\mathfrak{P}^{1}$, $\mathfrak{P}^{19}$, $\mathfrak{P}^{21}$, $\mathfrak{P}^{25}$, $\mathfrak{P}^{35}$, $\mathfrak{P}^{37}$, $\mathfrak{P}^{44}$, $\mathfrak{P}^{45}$, $\mathfrak{P}^{53}$, $\mathfrak{P}^{62}$, $\mathfrak{P}^{64(+67)}$, $\mathfrak{P}^{70}$, $\mathfrak{P}^{71}$, $\mathfrak{P}^{73}$, $\mathfrak{P}^{77}$, $\mathfrak{P}^{83}$, $\mathfrak{P}^{86}$, $\mathfrak{P}^{96}$, $\mathfrak{P}^{101}$, $\mathfrak{P}^{102}$, $\mathfrak{P}^{103}$, $\mathfrak{P}^{104}$, $\mathfrak{P}^{105}$, $\mathfrak{P}^{110}$;
마가복음: $\mathfrak{P}^{45}$, $\mathfrak{P}^{84}$, $\mathfrak{P}^{88}$;
누가복음: $\mathfrak{P}^{3}$, $\mathfrak{P}^{4}$, $\mathfrak{P}^{7}$, $\mathfrak{P}^{42}$, $\mathfrak{P}^{45}$, $\mathfrak{P}^{69}$, $\mathfrak{P}^{75}$, $\mathfrak{P}^{82}$, $\mathfrak{P}^{97}$, $\mathfrak{P}^{111}$;
요한복음: $\mathfrak{P}^{2}$, $\mathfrak{P}^{5}$, $\mathfrak{P}^{6}$, $\mathfrak{P}^{22}$, $\mathfrak{P}^{28}$, $\mathfrak{P}^{36}$, $\mathfrak{P}^{39}$, $\mathfrak{P}^{44}$, $\mathfrak{P}^{45}$, $\mathfrak{P}^{52}$, $\mathfrak{P}^{55}$, $\mathfrak{P}^{59}$, $\mathfrak{P}^{60}$, $\mathfrak{P}^{63}$, $\mathfrak{P}^{66}$, $\mathfrak{P}^{75}$, $\mathfrak{P}^{76}$, $\mathfrak{P}^{80}$, $\mathfrak{P}^{84}$, $\mathfrak{P}^{90}$, $\mathfrak{P}^{93}$, $\mathfrak{P}^{95}$, $\mathfrak{P}^{106}$, $\mathfrak{P}^{107}$, $\mathfrak{P}^{108}$, $\mathfrak{P}^{109}$, $\mathfrak{P}^{119}$, $\mathfrak{P}^{120}$, $\mathfrak{P}^{121}$, $\mathfrak{P}^{122}$.

대문자 사본들:
마태복음: ℵ(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Z(035), Γ(036), Δ(037), Θ(038), 058, 067, 071, 073, 078, 085, 087, 094, 0102, 0106, 0107, 0128, 0148, 0160, 0161, 0170, 0171, 0204, 0234, 0237, 0242, 0249, 0271, 0275, 0277, 0281, 0293, 0298;

마가복음: ℵ(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Γ(036), Δ(037), Θ(038), Ψ(044), 059, 067, 069, 072, 083, 087, 099, 0107, 0126, 0130, 0131, 0132, 0143, 0146, 0167, 0184, 0187, 0188, 0213, 0214, 0269, 0274, 0292;

문의 짜임새가 코이네(Koine) 본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본문사적으로 또는 주석적으로 흥미 있는 곳에서 코이네 본문과 다른 경우에만 제시된다. 사본의 짧은 토막에 나타나 있는 결함들(예를 들면 물로 생긴 얼룩, 희미해진 글씨, 필기 재료의 훼손)에 관해서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으므로, 몇몇 경우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이 비평본의 본문과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알란드의 '늘 인용되는 증거 사본들' 설명>

이런 식으로 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 총 27권에 대해 1등급 증거를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비평 본문 지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본들의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기껏 이렇게 부풀려서 알란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얻은 1등급 증거들의 수는 총 40개 정도입니다(단편 사본 말고 웬만한 양을 담고 있는 증거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책에 대해 한 사본이 전통 본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1등급이 되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그들만의 비밀 리그에서만 운영됩니다.

알란드 등이 이런 방식으로 1등급 증거 사본들을 분류한 결과, 마태복음이 이런 증거 사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슬레/알란드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판의 경우 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피루스 사본 18개
2. 대문자 사본 42개
3. 소문자 사본 19개
4. 성구집 사본 0개

여기서 파피루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사본 42개와 소문자 사본 19개 역시 어떤 기준으로 – 전통 본문에서 몇 퍼센트 벗어나야 1등급 증거 자료가 되는지 여부 –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알려 드린 성구집 리스트(<위키백과>)를 보면 알지만, 성구집은 거의 100% 전통 본문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사본 학계에 다 알려진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란드 등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므로 이런 자료는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알란드 등이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 기법을 사용해서 부풀려 만든 1등급 증거는 겨우 40-50개 정도이고 이는 전체 사본의 1%가 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소수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 사본들이 전체 사본의 1%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란드의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을 사서 한국어 서문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천주교 소수 사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수 사본 지지자들이 추앙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자기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72]

<위키백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 두 사본은 사복음서에서만 무려 3,036개나 서로 다릅니다(마태복음 656개, 마가복음 57개, 누가복음 791개, 요한복음 1,022개). 물론 이것 역시 이미 사본 학계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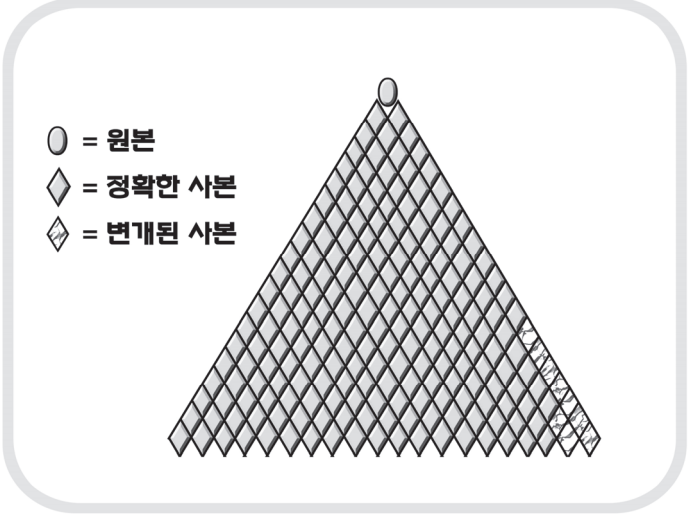
72) https://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codices_Sinaiticus_and_Vaticanus

소수 사본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본을 신뢰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내 사본은 특히 여러 곳에서 조작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내 사본 조작에 대해서는 이 책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40여 개의 소수 본문을 제외한 99%의 안디옥 계열 사본들(다수 사본, 종교 개혁 사본, 보편적 사본, 비잔틴 사본, 전통 사본)은 어느 것을 보아도 본문이 일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과 루터 성경 등이 나왔고 이러한 다수 사본 성경들이 전 세계의 신학과 교리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원본, 정확한 다수 사본, 변개된 소수 사본>

12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개역성경의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다. 다른 설명을 보면 "9-20절 단락은 아주 오래 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졌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NIV, NASB 등 모든 현대 역본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현대 역본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떨며 놀라서 급히 도망하고 두려움에 잠겨 숨어 지낸 셈이 된다(밑에 있는 8절 참조). 그러면 이게 과연 '복된 소식', 즉 복음일까? 이것은 결코 사본학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상식을 가지고 20절 전체를 읽으면 자연스레 9-20절, 즉 마지막 12구절이 있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1-8절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 주자 그들이 놀라서 떨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다. 9-12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다.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2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3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고 4 바라볼 때에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5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므로 8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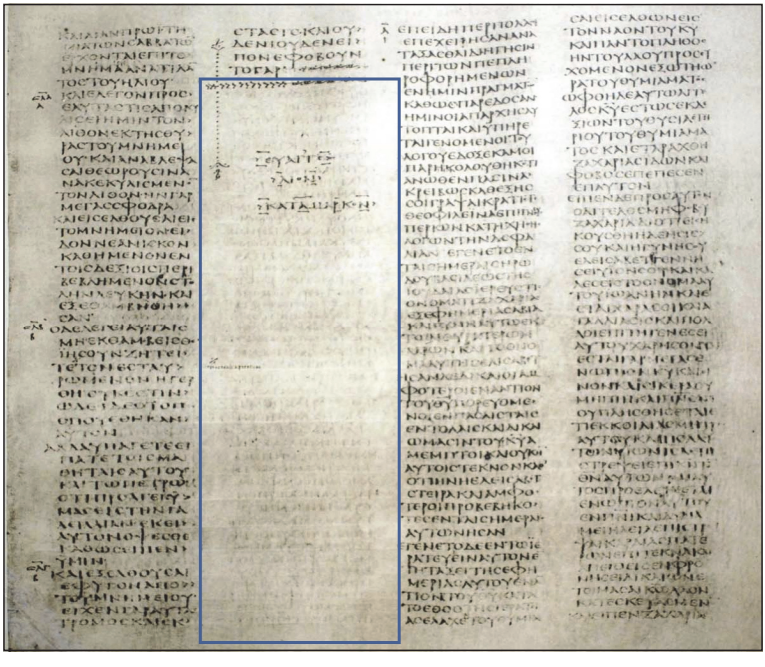
9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10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1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
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18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20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사본들의 압도적 증거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하는 사본은 약 1,800개이고 이 중에서 1,797개가 9-20절을 포함한다. 즉 현존하는 그리스 사본들의 99.8%인 절대 다수가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절대 다수의 증거가 채택되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담은 성경이 바른 성경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 역본 지지자들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밑에 있는 시내 사본이다. 이 사진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분명히 원래 사본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지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였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서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는 아닌가?[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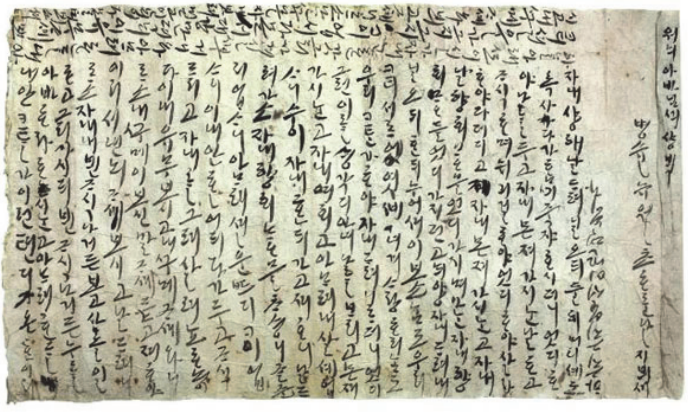


<시내 사본 사기 조작: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73) 이 사진은 영어 Google에 가서 'Sinaiticus Mark 16'이라고 치면 이미지 섹션에서 누구라도 즉시 쉽게 찾을 수 있다.

13

성경과 고문서의 차이



<조선 시대 '원이 엄마의 편지'>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는 1998년 안동에 있는 고성 이씨(固城 李氏) 이응태(李應台 1556-1586)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42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한 여성이 한글로 기록한 '러브레터'이다. 임신 중인 젊은 여인이 서른한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종이 하나 가득 표현했다. 16세기 조선 여인의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한다.[74]

이 한글 편지에는 42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의 애절한 감정이 종이 가득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의 한국인이 이 한글 편지 원문을 살펴보려 하면 글자를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충은 읽고 대충은 이해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기껏해야 400년의 시차가 있을 뿐인데 당시 원이 엄마에게는 일상의 글이고 말이었을 것이 우리에게는 사학과나 국문과 교수나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고문서를 해독하고 과거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어이고 말이며 글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원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

74) 13장은 김재근 목사(전주소망침례교회)의 글이다.

로, 라틴어로 몰려가며 그 언어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알 수 있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

성경을 믿음이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400년 전에 한글 편지를 썼던 원이 엄마는 죽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

편지를 썼던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400년 전 중세 한글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3,5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말씀하신 원저자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 따라서 3,500년 전 언어를 연구하거나 2,000년 전 언어를 공부해야만 그분이 사용한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옛날 성경에 씌어 있는 것과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진짜 성경을 읽고 싶다면 고대 언어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인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당시 사람들이 능히 읽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보존이다.

400년 전에는 규방의 여인도 자유롭고 생생하게 사용하던 단어와 말과 글이 지금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다. 대개 생명 없는 종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특정 언어 – 예를 들어 라틴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등 – 에다 가뒀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면 언제나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셨다. 3,500년 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였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언어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기만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 들었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단어를 찾아가면서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히브리어에만 권위를 두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종들도 다 히브리어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성경을 주셨다.

2,000년 전 그리스어는 보통 사람의 언어였다. 하나님께서는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다. 언어의 천재들만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대학교수들만 그리스어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누구라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율법 박사들만 그분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만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부도 세리도 장애인도 바리새인도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었다. 심지어 죄인과 창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다. 평생을 '개'같이 살았던

한 강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서 전문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저잣거리의 여인이나 뒷골목의 왈패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서 믿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언어로만 말씀하셨다. 라틴어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 있는 언어로 전달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

고대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다. 물론 그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자신의 일상의 글과 말로 소유했던 사람은 존재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대의 언어를 전공하고 중근동 언어를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섬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신이 아닌가? 수천 년 전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 옛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결코 고대 언어 전문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 없이 학문의 대상으로만 성경을 관찰하게 되면 '고대 언어와 역본' 얘기로만 가득 차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은 그것이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언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는 재정의 하거나 재번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과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미 400년 전에 끝마치셨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온갖 종류의 비난과 공격과 모함에 대항하며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으며, 불신자들에 의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틀렸음을 입증해 왔다.

구약 시대에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최근에 나온 대다수 역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주교회의 산물이다.

비슷한 시기의 두 문서가 있다. 그중 하나인 '원이 엄마의 편지'는 읽기도 힘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책들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과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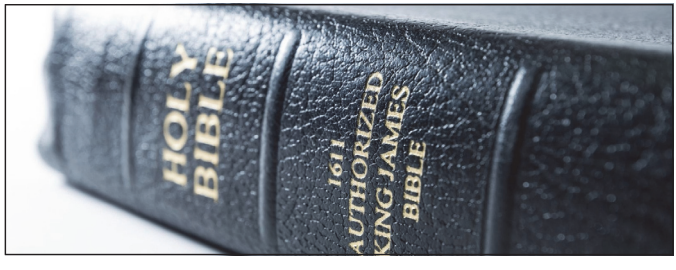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들 – 원어로 된 성경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는 사전임

– 에서 찾아낸 단어 몇 개로 신비로운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찾아낸 단어 몇 개를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껏 쭉쭉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지금 나와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쭉쭉 읽을 수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따라, 원어의 모든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영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영어라는 만국의 공통어로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해 표준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보존된 성경'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 읽기 쉽게 정확히 번역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누구나 복음을 듣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1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시4:3).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받은 소명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긴 시간을 - 당사자에겐 징그럽도록 긴 시간이다 - 고민하고 갈등했던 기억이 엊그제 일 같다.[75]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벧후1:10).

지금 되짚어 보면 그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당시에 나는 거의 매일 밤을 뜬눈으로 보내는데 옆의 아내는 천하태평하게 잠만 잤다. 시간만 나면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래도 점집/무당집은 안 찾고 교회/사역자/기도원만을 찾고 또 찾았다. 묻고서 답을 얻고 그곳을 나설 때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신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또다시 의심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말 그대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간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시73:22)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을 반항하고 투쟁하며 보내다가 결국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신8:5).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시57:7).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치렀기에 그 이상의 고통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염원이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나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

75) 이것은 네이버 청지기 카페(http://cafe.naver.com/tenjaga/1682)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글이다. 이 글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 의심 없이 공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개역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손에 잡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읽고 차츰 깨달으면서 온 몸과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밀려들었다!

>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잠8:9).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갈등은 신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 속으로 다시 나를 몰아갔다.

>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시119:28).

가족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 이때 간첩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 약 1년간을 혼자 몰래 숨겨 두고 도둑질하듯이 흠정역 성경을 읽으면서 흠정역 성경을 읽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무척 겁을 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다고 어디에다 내놓고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매일매일을 진퇴양난 속에서 지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르고픈 이발사가 바로 나였다. 아마 요즈음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은 잘 안다. 불온서적이나 금서라고 리스트에 오른 책을 소지하거나 만났을 때의 심정을!

>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시니이다(시73:26).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교단 신학교 출신자가 사역을 하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걸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흠정역 성경이 전혀 흠잡을 데 없이 – 흠, 흠이다 –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나의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딛1:15). 하지만 나의 이성은 늘 양심의 반대편에서 아래처럼 끊임없이 맞불을 질러 댔다.

>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세상 교회가 모두 개역성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을 써야지. 그러면 신경 쓸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할 텐데 왜 그러니(갈5:17)? 왜 굳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해. 또 확인도 검증도 안 된 길을 골라서 가려고 하니?

개인적으로 나의 유일한 남동생은 장로 교단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단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흠정역이고 동생은 개역이다. 아이고,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생각하면 머리에 쥐난다!

이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문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도 없었고(암3:3) 고민으로 다가왔다(마10:36).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쯤에서 흠정역 성경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저 하겠다.

>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전15:10).

이제부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흠정역 성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려 한다. 여기서 흠정역 성경의 정통성/우수성/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할 것이다. 진심으로 독자가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킹제임스 성경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당연히 흠정역을 반대하는 글도 찾아 읽으면서 서로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렘29:13).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성경이란 이름을 걸고 교회와 교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마5: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순수한 성경과 인간들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기교를 부려 만든 성경은 전혀 같을 수 없다. 이 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물러서서 다른 일을 보는 게 좋을 것이다.

>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부터는 무조건 잘못된다. 즉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들이 손을 대서 고친 성경은(고후2:11) – 성경의 단 한 글자라도 고의로 고쳤다면 – 진리의 성경이 될 수 없다. 그 성경은 그저 그런 인간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말을 줄이고 지금부터는 왜 내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택하고 전혀 후회 없이 외길을 가는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 이유를 공개하려 한다. 이유가 엄청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 정도만 쓰려 한다.

1. 흠정역 성경의 기본 정신이 나의 온 마음을 강타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본 정신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진이 우수하다든가 혹은 성경 번역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성경들을 여러모로 접하면서 – 대략 20~30가지 – 세상의 일반적인 성경들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절대자(전능자)로 대접한다는 점이다.

>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10).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상 모든 성경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자 하나님과 아울러 우리 주님에 대한 대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두 성경을 펴 놓고 어떤 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읽어 보라!

>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흠정역 고후5:15, 21).

>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개역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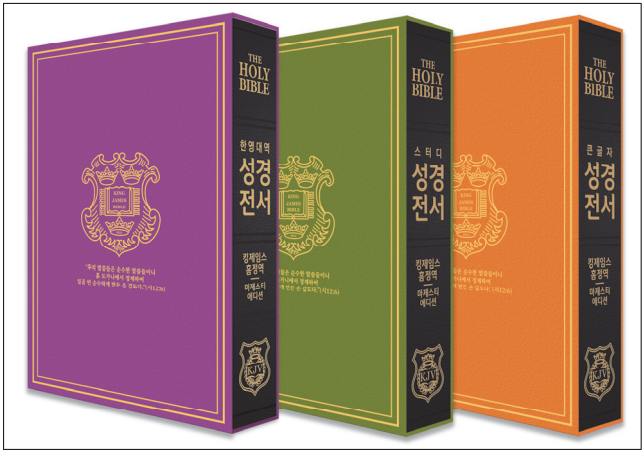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극존칭을 사용한다. 세상 성경과 달리 흠정역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깍듯한 극존칭으로 대우를 해 드리고 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안 그런가? 영적 아버지께는 대충 해도 되는가? 독자는 독자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말하는가? 내가 늘 말하듯이 그저 그런 절간의 땡초들도 – 모두 지옥에 갈 인생들이다 – 자기 동료를 부를 때는 높여서 '스님'이라고 한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그분께 의도하든 안하든 '님'자도 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성경들이 하는 일이다.

>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주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다들 그냥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한다. 독자는 이게 그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흠정역 요4: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2021>

>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개역 개정판)

이런 번역은 늘 아기 예수만 들먹이는 로마 카톨릭 집단이 의도한 것이다(시2:4). 이러니까 설교나 기도하면서 사역자고 교인이고 누구나 겁도 없이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호칭을 마구 쏟아 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존칭으로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배밭 근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살전5:22).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을 보고 그때 결심을 하였다.

>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전5:2).

2. 흠정역 성경은 기절할 정도로 쉽다

나도 개역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 완독을 몇 번 했다는 식의 자랑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읽었다.

>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약4:16).

그런데 개역성경을 가지고 완독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읽든지 짜증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히 개역성경은 내켜서 읽었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읽었다.

"거 참, 성경이 진짜 어렵구나! 이건 보통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말하며 더 읽거나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적이 매우 많다. 명색이 목사인데도 말이다. 성경이 어려우니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역성경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앞뒤 문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며 개별 단어는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관련 주석 책을 달고 살았다. 물론 나의 무식도 여기에 일조했을 것이다.

>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난 뒤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엄청 의심을 했다.

> 아니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독자도 당장 구해서 한번 읽어 보면 내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살전5:21).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석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다. 물론 살 돈도 별로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굳이 주석 책을 봐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흠정역을 읽으면서 당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해답을 찾아 주시고 아둔한 나를 깨닫게 하신다(시32:8).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지 어떤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당연한 생각이 떠오르자(고전1:26-29) "옳거니, 이게 진짜 성경이구나!"라는 감탄사와 함께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빠져들어 갔다. 반면에 이를 악용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직 교회와 사제에게 성경 독점권을 준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벧후1:20-21). 그런데 '영적'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 즉 '영적인 것 = 어렵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성경은 난해한 책이고 누구나 해석해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대개 단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이기 전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성경기록의 일차적 목적이 교리에 관한 분별이다(딤후3:16).

>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doctrine)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76](흠정역)

---

76)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은 '교리'(doctrine)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을 개역성경은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개역 개정판)

그런데 교리 부분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성경 해석은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이고 – 이건 상식이다 – 그 뒤에 문자적 해석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자기 위주의 해석이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다.

나의 글들을 읽으면 모든 글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행된다. 그런데 내가 인용한 말씀의 영적 뜻은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하면서 올린 문장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찾아보라!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1%도 안 된다. 이것을 위해 영적 해석에 매달려야 하나? 그러므로 내가 인용한 말씀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면서(롬12:3) 슬슬 읽어 가면 된다. 복잡한 세상에서 굳이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말씀의 깊은 뜻이 무얼까?", "이건 무얼 말하는 걸까?" 등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서 가면 된다. 성경을 어렵게 읽고, 어렵게 해석하는 짓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때 바로 올라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을 영적(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잘난 인간들의 못된 버릇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성경이 어려우면 좋아할 사람은 오직 삯꾼 목사들과 신학자들밖에 없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내용이 평이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므로 성경을 마음먹고 대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의 대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고전2:13).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없다(요일2:27). 의심나면 직접 읽어 보고 아니면 나에게 항의하기 바란다.

> 오히려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4).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야 할 목회 방향도 결정하는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었다(고전2:13).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쪽으로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딤후3:14)!

>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교훈'으로 바꾸어 버렸다.

찬양하리라(시56:10).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첫 출판 후 지금까지 철자법 등의 변화로 인한 교정(정정)만 몇 번 했다.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개정(revision)은 성경의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교정 혹은 정정(correction)은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것은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 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본문을 바꾸는 일, 즉 성경 개정을 휴지로 코 푸는 일처럼 쉽게 해 왔다(수십 번씩이나).

>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요즈음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개역 개정판을 사라고 선전하고 거의 반강제로 팔고 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성경을 개정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 개정이라고 토를 달았다.

개역 개정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개정한 것을 밝혀 놓았다.

> 개역성경을 7만 군데 이상 고쳐서 시대에 맞게 내놓았다.

"새 시대에 맞게 고쳤다."는 말은 예전의 개역성경은 내용이 부족한 구시대 성경이라 첨단을 달리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이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고치고 조정한다는 말이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그러면 개역성경을 과연 올바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나?

집에서 쓰는 걸레도 7만 군데를 고치면 더 이상 걸레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다. 내 말이 틀렸는가?

>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고쳤는가?
>
> 무엇을 근거로 고쳤는가?
>
> 다음번에 70만 군데를 고친 개정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걸레는 강력 하이타이로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마9:16).

반면에 영국에서 1611년에 처음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약 4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너무 좋아 춤추고 싶다!

물론 몇 번의 교정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정이지 개정이 아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도 몇 차례 교정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흠정역 성경의 가치를 모른다면 가서 발 닦고 자는 게 좋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네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잠23:9).

성경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인간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기록을 닫으시면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신다. 우리 모두 똑똑히 한 자 한 자 읽고 마음 판에 새겨야 한다(잠3:3).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22:18)

위의 말씀으로는 뭔가 2% 부족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9).

이쯤에서 일단 이번 글은 마무리하련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119:103)

그럭저럭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욥34:21).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신실한 종이었고(잠20:6) 청지기 사역의 바탕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었다고 기억되기 원한다(고전4:2).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시4:3).

15

용어 정리

성경 이슈를 논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책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독자께서 시간을 내서 조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77]

>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 **파피루스**(Papyrus):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필기 용도로 사용되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서 사초과(莎草科, Cyperaceae)에 속하는 동일한 이름의 파피루스(Cyperus papyrus) 식물의 잎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 파피루스 식물은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필기 용도로 쓰기 위해 자루나 줄기를 모았고 가운데 수(髓)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 압착하여 말린 뒤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풀처럼 생긴 수생 식물로서 목본성의 무딘 3각형 줄기를 가지며 깊이가 90㎝ 정도인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 4.6m 높이까지 자란다. 지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연못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온실에서 기르곤 한다.
>
>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 줄기를 돛·천·방석·밧줄·종이를 만드는 데 썼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주요한 문방구였는데 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문과 법률 공문서를 기록하는 데도 쓰였다.
>
> 플리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줄기 속의 섬유 층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한 조각으로 잘라 이들을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다른 조각들을 직각으로 교차시킨다. 이렇게 2층으로 쌓은 시트를 풀이 죽게 압축시킨다. 말리는 동안 아교 같은 수액(樹液)이 시트를 서로 접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망치로 두드린 다음 햇볕에 말린다.
>
>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순백색을 띠며 잘 만들어진 것은 반점·얼룩 및 다른 결함 등이 없다. 두루마리의 경우 시트를 풀로 붙여 만드는데 대개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트가 2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피루스는 8-9세기에 다른 식물 섬유로

---

77)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와 맨 끝에 있는 추천 참고 도서를 참조하기 바람.

종이를 제조하기 전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필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3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미 벨럼이라 불리는 저렴한 양피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12세기경까지는 책이나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 간간이 쓰였다.

양피지 사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파피루스 사본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초기에 신약 성경은 이런 종이 위에 필사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파피루스 조각 사본들은 1, 2, 3, 4, 5, 6, 7 등의 번호가 매겨졌으며 그 안에는 신약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사본 중 많은 수가 교회 역사의 첫 3세기(주후 100-3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벨럼**(Vellum): 글이 기록된 고급 가죽(양피지). 벨럼은 주로 양·염소·송아지 등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서사(書寫) 재료이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BC 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페르가뭄(지금의 터키 베르가마)에서 양피지가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짐승의 가죽이 필기 재료로 쓰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가죽을 좀 더 철저하게 세척하고 늘리고 문지르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필사지의 양면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두루마리 사본이 철을 한 책자(코덱스)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 또는 사산되었거나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벨럼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최고급 양피지를 일컫는 데 쓰이게 되었다.

AD 6세기에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에 사용되었던 벨럼은 질이 좋았다.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시장에 나왔으나 서유럽에서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던 12세기까지는 부드럽고 유연한 벨럼이 유행하였다.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진한 자줏빛 염색을 하고 금·은으로 글씨를 새긴 호화스러운 형태의 양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제롬은 그의 잘 알려진 시구에서 이러한 관행을 쓸모없는 사치라 비난했다. 자줏빛 염색은 그 후에 사라졌지만 금·은 그리고 다른 색조로 양피지 사본에 '윤을 내는' 관행은 중세에도 크게 유행하였다. 오늘날 양피지 혹은 벨럼이라는 용어는 주로 목재 펄프 및 제지용 넝마로 제조하여 특수한 마감 처리를 한 일종의 고급 종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벨럼 중 어떤 것들은 족자처럼 말을 수 있었으므로 '두루마리'(scroll)라고 불리며 또 어떤 것은 마치 책처럼 장(p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덱스'(codex)라고 불린다. 현존하는 성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코덱스'는 '바티칸 코덱스'(Vaticanus)와 '시내 코덱스'(Sinaiticus)이다. 이들은 보통 '바티칸 사본'(B 사본) 그리고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 사본'(Aleph)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다.

● **자필 원본**(Autographs): 글자나 음표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원고.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어의 'autograph'는 사람이 손으로 쓴 서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동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나 부수적인 가치 이외에도 자필 원고는 원고의 초기 초안이거나 또는 수정본일 수 있고 작성 단계상 귀중한 증거나 작품의 마지막 수정판의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 원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다 소실되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구절이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 성경 사본이든 구약 성경 사본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 **사본들의 계열**(Families of manuscripts): 현재 네 종류의 사본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독일어 루터의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으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우리말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혹은 '이집트 계열'(Egypt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 계열'(Western family)과 '카이사르 계열'(Caesarian family)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계열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924년에 스트리터(B. H. Streetr)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학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열이다.

● **본문**(Texts):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필사본 자료를 모아 구성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본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엘제비어, 베자, 밀, 펠, 왈톤,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흐, 알포드, 메츠거, 알란드(알란트), 네슬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을 들 수 있다.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시리아/비잔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보통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린다. '공인 본문'은 어떤 공적인 단체가 그 성경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인 본문'을 '표준 원문'(標準原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거나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따라 알란드, 네슬레 등이 천주교의 이집트 '소수 사본'에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본문으로부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과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 간의 대립이며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로마 카톨릭 본문 간의 대립이다.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NIV, NASB, RSV,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본, 한글개역성경, 한글표준새번역, 한글공동번역 등은 모두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문체와 표현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잘못된 점들에서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 **역본**(Versions):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틱(에티오피아) 언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역본'은 사실 '성경기록'(Scripture)을 '옮겨 놓은 것'(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Version'이란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SV*)과 미국표준역(*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말의 영향으로 '왕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흠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 제임스가 승인한 54명의 학자들 가운데 47명이 7년 동안 세 곳에서 여섯 개 조로 나뉘어 원어로 된 본문과 과거의 여러 역본들을 사용하여 작업했다. 그 결과 등장한 킹제임스 영역 성경은 영어 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300년 이상 표준 영어 성경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상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수성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 부흥과 영혼 구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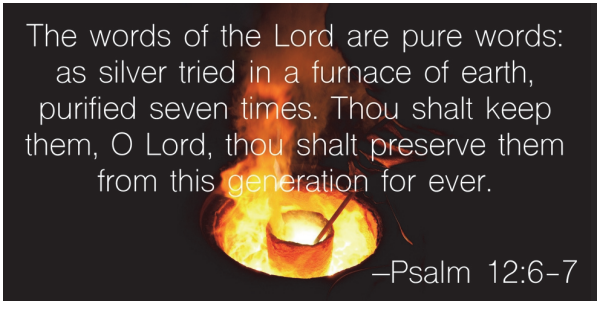
(b) 물질적 번영: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 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난이 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c)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의 열매: 만일 독자가 이성적이라면 로마 카톨릭교회의 지배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필리핀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 국가들 모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짊어진 나라들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고 땅도 비옥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이교 사상)과 신학(바르지 못한 성경)이 나라를 지배하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 네슬레, 알란드, 메츠거, 웨스트코트, 호르트, 라이트푸트 등 - 참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미 161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등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78]

로마 카톨릭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 **개정**(Revisions): 성경 본문을 바꾸는 것.
- **교정, 정정**(Correction):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로서 '개정'과는 전혀 다른 것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12:6-7)

78)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등을 참조하기 바람.

<성경의 영감, 보존, 번역 역사>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비교 대조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깁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 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로이드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 W. 클라센 저, 김복기 역. KAP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8.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9.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0.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빈야드와 신사도의 가짜 부흥 운동 H. 해너그라프 저, 이선숙 역, 부흥과개혁사
3.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G. 길리 저, 김세민 역, 부흥과개혁사
4. 이머징 교회와 신비주의 R. 오클랜드 저, 황스데반 역, 부흥과개혁사
5.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R. 윤겐 저, 김성웅 저, 부흥과개혁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J.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존 맥아더의 다른 불 J. 맥아더 저, 조계광 역, 생명의말씀사

● 창조와 진화

1. 창세기 강해(창조 타락 홍수 구원 약속 이스라엘)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
3.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4.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5. 창조과학백과 ICR(미국창조과학연구소) 저, 정병갑 역, 생명의말씀사
6. 창조과학백과 공룡 ICR(미국창조과학연구소) 저, 조은경 역, 생명의말씀사
7. 창조과학백과 인체 ICR(미국창조과학연구소) 저, 박의준 역, 생명의말씀사
8. 진화론의 상징들 J. 웰스 저, 소현수 역, 부흥과개혁사
9. 유신진화론 비판 J. P. 모어랜드 외 저, 소현수 외 역, 부흥과개혁사
10.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11.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12.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3.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예향
14.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목회황제 스펄전의 목사론 C. 스펄전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5.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6. 윌밍턴 본문중심 성경연구 H.L. 윌밍턴 저, 나침반사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J.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9. 칼빈주의 비평 데이비드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1.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2. 정교분리의 진짜 의미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신약 교회 역사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4. 예배 J. 맥아더 저, 유정희 역, 아가페북스
15.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P. 블룸필드 저, 성서유니온
16. 왜 침례교인인가 W. 에스텝 저, 김승진 역, 요단출판사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대조 신약 성경

KJV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정, 번역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흠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외
알 레이시, 엠알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알 레이시
알 레이시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잭슨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시켜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제,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흠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대조 신약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을 2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빨간색과 밑줄로 표기하여 누구라도 쉽게 2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위치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빼고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킹제임스 성경
무료 PDF와 앱

정동수 목사
주요 설교·강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값 25,000원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ISBN 978-89-92485-77-7